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老舍 幽默(유머)散文 選譯

2018年

蔚山大學校 教育大學院

中國語教育專攻

黃 智 炫

# 老舍 幽默(유머)散文 選譯

指導教授 李 仁 澤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中國語教育)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8年 1月

蔚山大學校 教育大學院

中國語教育專攻

黃 智 炫

黃智炫의 教育學碩士(中國語教育)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李 相 度 (印)

審査委員 李 仁 澤 (印)

審査委員 朴 璟 實 (印)

審査委員 朴 三 洙 (印)

蔚山大學校 教育大學院

2018年 1月

# 目 次

I. 序論 .....	1p
II. 老舍의 生涯와 時代的 背景 .....	4p
1. 출생이후 북경체류 시기(1899~1924년) .....	6p
2. 영국유학시기에서 전쟁발발이전 시기(1924~1936년) .....	8p
3. 항전기(1937~1945년) .....	9p
4. 해방이후 시기(1946~1966년) .....	10p
III. 老舍 幽默散文 概觀 .....	12p
1. 풍자성 .....	12p
2. 예술성 .....	16p
IV. 作品翻譯	
1. 一些印象(節選) .....	22p
2. 討論 .....	34p
3. 夏之一周間 .....	37p
4. 一天 .....	43p
5. 晝寢의 風潮 .....	51p
6. 當幽默變成油抹 .....	54p
7. 不遠千裏而來 .....	60p
8. 吃蓮花的 .....	70p
9. 辭工 .....	73p
10. 買彩票 .....	77p
11. 有聲電影 .....	81p
12. 科學救命 .....	87p
13. 致陳逸飛先生信 .....	90p
V. 結 論 .....	92p
【參考文獻】 .....	94p

## I. 序論

老舍의 본명은 서경춘(舒慶春)이며, 老舍는 그가 처음 사용한 필명으로, 그는 평생 그 필명을 즐겨 사용하였다. 그는 청나라 말엽 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웠던 1899년 2월 3일(淸光緒 24年 12月 23日) 북경 서쪽의 빈민가에서 태어났다. 어려운 가정환경이었지만 그의 형제들과는 달리 학교 교육을 받았고, 19살의 나이로 북경 사범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북경공립 第十七小學校 교장으로 발령받고 일했다. 또한 그는 북경 교외의 북구권학원(北區勸學院) 장학관으로도 근무하였다. 1924년에는 영국으로 건너가 런던대학의 중국어 교사로 생활하게 된다. 노사는 영국에 온지 2년 후인 1926년에 <小說月報>(제17권 7호, 1926. 07. 20.)에 <老張的哲學>을 발표함으로 문단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老張的哲學>은 中國現代文學史 첫 10년(1917년~1927년)간 장편소설에 있어서 내용은 물론 기교 등에 있어서까지 별다른 발전을 보지 못하고 있던 때에 발표되어 매우 의미가 있다.<sup>1)</sup> 현대문학 초창기 단편소설에 있어서는 노사의 <狂人日記> 등을 비롯해 여러 작품들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으나 장편소설의 발전은 미진하였는데, 노사의 신선한 작품내용은 중국 장편소설사에 있어 큰 영향을 미쳤다.

老舍는 교육자로서 일을 하면서 창작에 힘썼고, 그의 대표작인 《駱駝祥子》를 저술하며 전업 작가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노사의 글은 대부분 그가 자라고 생활하였던 북경과 북경시민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북경 사람들의 삶과 생활 그리고 기쁨과 슬픔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그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문장 때문에 노사는 적지 않은 인기를 얻었고 중국에는 전업 작가로 전환하게 된다. 그는 小說, 散文, 詩, 戲曲 등 그 평생 동안 다양한 작품을 창작하였는데, 특히 소설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老舍의 대표작으로는 《駱駝祥子》, 《四世同堂》, <趙子曰>, <二馬> 등이 있으며, 주로 소설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으나 그는 散文, 詩, 戲曲 분야에서도 중국 현대문학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의 작품들 중 산문은 더욱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그의 초기산문인 幽默(유머)散文의 경우 주제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초기 중국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그의 유머산문은 당시 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으며, 작가 특유의 풍자적인 필치와 언어적 기교가 돋보인다. 이러한 그의 유머산문은 中國現代散文의 영역을 확장시켰으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이러한 幽默散文은 언어적 기교와 풍자성, 시대 반영적 성격 등 여러 방면에서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마땅하지만 국내의 학자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노사의 많은 幽默散文 작품들도 한국어로 번역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노사 幽默散文의 작품성과 가치를 고려하였을 때 한국어로 번역하여 국내 독자들에게 노사의 幽默散

1) 이수웅, 《노사(老舍)》(건국대학교출판부, 1994), p. 30

文 작품들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 노사의 幽默散文 중 그의 작품성과 유머성이 짙게 드러나 있는 13편을 선역하고 그의 작품을 평가·감상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老舍가 집필한 유머작품 13편을 선역하였는데, 13편은 모두 인민문학 출판사에서 1993년에 출판한 《老舍文集(第十四卷)》을 참고하였다. 《老舍文集(第十四卷)》은 1930년부터 1964년까지 老舍가 집필한 산문 162편이 수록되어 있다.

13편의 작품은 “유머성과 작품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여 번역하였다. 노사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소재로 하여 많은 글을 썼다. 또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내어 창작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작품에서도 그 당시의 상황에 충분히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즉, 흔히 그 시대에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그의 글에 등장한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문장에 뚜렷한 목적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작품성과 대중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공감하고 웃음 짓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노사의 글은 노사 자신의 방학생활, 교원으로서의 생활, 유머에 대한 생각, 마을사람들과 함께 돈을 모아 복권을 산 사건 등 자신이 체험하였던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경험적, 체험적 글을 통해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 사상을 엿볼 수 있다.

【표 1】 선역 작품

순번	작품명	발표년도	發表志	收錄集
1	一些印象(節選)	1931年 3月~6月	《齊大月刊》	《老舍幽默詩文集》
2	討論	1931年 11月 10日	《齊大月刊》	《老舍幽默詩文集》
3	夏之一周間	1932年 9月 1日	《現代》第5期	“
4	一天	1933年 1月 1日	《論語》第8期	“
5	晝寢的風潮	1933年 1月 16日	《論語》第9期	“
6	当幽默變成油抹	1933年 2月 16日	《論語》第11期	‘
7	不遠千裏而來	1933年 5月 1日	《論語》第16期	“
8	吃蓮花的	1933年 8月 16日	《論語》第23期	“
9	辭工	1933年 8月 24日	《申報》自由談	“
10	買彩票	1933年 9月 1日	《論語》第24期	“
11	有聲電影	1933年 11月 16日	《論語》第29期	“
12	科學救命	1933年 12月 1日	《論語》第30期	《老舍散文抬頭見喜》
13	致陳逸飛先生信	1981年 9月	《論語》，《人間世》	《老舍早年在文壇上的活動》

老舍의 대표적 작품은 이미 영어, 일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세계적으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다. 국내에는 그의 대표작인 《駱駝祥子》와 희곡작품인 《歸去來兮》, 《龍鬚溝》, 《神拳》이 책으로 완역되어 있고, 그 외 여러 산문 작품들이 국내 학위논문 등을 통해 번역이 되어 있으나 중국 내외에서의 노사의 영향력, 작품의 우수성, 창작물의 수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번역된 그의 작품 수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았던 그의 작품들을 위주로 번역하여 노사와 그의 작품을 아끼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감상을 제공하고자 한다

[일러두기]

1. 작품번역에서는 중국어로 발음을 표기하면 중국어를 모르는 한국인이 생소하고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명과 지명은 한자의 독음을 따랐다. 단, 중국 화폐단위를 독음으로 표기하는 경우 정확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표기 하였다.
2. 이해를 돕기 위해 주석과 역자주를 달았다.
3. 번역에 사용된 중국어 원문은 중국 인민문학출판사에서 발행한 《老舍文集(第十四卷)》(1993)이다.
4. 선역된 작품 중 일부는 한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역하였다.
5. 선역작품의 본문과 작품의 인용문은 간체자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부분들은 번체자를 사용하였다.



## II. 老舍의 生涯와 時代的 背景

老舍가 태어난 시기는 중국이 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시기였다. 외부적으로는 아편전쟁으로 시작하여 청·프(1884년), 청·일(1894년) 전쟁이 발발하여 제국주의 국가에 엄청난 금액의 배상금을 지불함은 물론 그들과 불평등조약을 맺어 반 식민지국가로 전락하게 되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태평천국의 난(1851년), 양무운동(1861년), 변법자강운동(1898년) 등이 발생하여 나라 안으로도 어지러운 상황의 연속이었다.

老舍는 이처럼 중국이 매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북경 서쪽 빈민가에서 태어났다. 그가 출생한 이후부터도 중국은 여러 가지 격변기를 맞게 된다. 그가 태어난 다음해인 1900년도에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 의화단이 북경 內 해외공사관을 방화하고 점거하였다. 그러자 연합군이 공사관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미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의 8개 연합군을 조직하여 천진, 북경을 함락시켰고, 이 때 노사의 아버지는 연합군과의 전투에 참가하던 중 전사하게 된다. 노사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고 힘든 유년기를 보낸다. 홀어머니와 함께 지독하게 가난하고 어두운 유년기를 보낸다. 그는 어둡고, 냄새나는 골목에서 생활했던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 북경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정서를 깊이 체득하게 되었고, 이후에 그의 작품 속에 이러한 경험이 많은 부분 반영이 되었다.<sup>2)</sup>

유년기 이후에도 老舍는 중국의 격변기와 함께했다. 중국은 신해혁명(1911년)부터 남북전쟁(1918~1928년), 중일전쟁(1937년~1945년), 국공내전(1945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수립(1949년), 문화대혁명(1966년~1976년) 등 혼란의 시기가 계속되었고, 노사는 이처럼 중국 격변의 시기에 한 인생을 보낸 문인이다. 어떤 면에서 “그가 조금 더 일찍 태어났다면 또는 조금 더 늦게 태어났다면 또는 아버지가 있었다면 그의 인생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고찰을 해보게 된다. 그렇다면 조금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랬다면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친 그의 작품들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한 작가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처한 시대적 배경과 그의 생애를 살펴 보아야 한다. 老舍와 같이 혼돈의 시기에 살았던 작가라면 더욱 그렇다. 작가가 어떠한 시대적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한 작품을 집필을 하였는가를 이해한다면 작품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노사의 경우 정치적인 글들을 많이 집필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살아온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 또는 산문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그가 살아온 인생과 시대배경을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쉽게 구분하기 위해 4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그의 인생을 살펴보고자 한다. 老舍 출생이후 북경체류 시기(1899~1924년), 영국유학시기에서 전쟁발발이전 시기(1924

2) 이수웅, 《노사(老舍)》(건국대학교출판부) p. 13

~1936년), 항전기(1937~1945년), 해방이후 시기(1946~1966년) 총 네 시기로 분류하여 노사의 생애를 평가해보고 그가 살아온 시대배경을 관찰하고자 한다.

【표 2】 노사의 기간별 거주지 및 활동<sup>3)</sup>

기 간	거 주 지	활 동
1899. 2 ~ 1924. 9	北京	성장, 학업 교원생활
1924. 9 ~ 1929. 6	런던	강사, 문학수업, 창작생활
1929. 9 ~ 1930. 2	싱가폴	귀국길에 잠시 체류
1930. 9 ~ 1934. 9	濟南	교수생활
1934 ~ 1937	靑島	교수생활
1938 ~ 1946	重慶	항전활동
1946 ~ 1949	뉴욕	강연활동
1949 ~ 1966	北京	노년시기

3) 최성임, <老舍의 幽默 小說 研究>(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 23

## 1. 출생이후 북경체류 시기(1899~1924년)

老舍는 청나라 말엽 1899년 2월 3일(淸光緒 24年 12月 23日) 북경 서쪽의 小楊家라는 빈민가에서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滿洲族이다. 노사의 본명은 서경춘(舒慶春)이며 字는 솜予이다. 그의 출생이 입춘 전날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慶春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필명으로 솜予, 絜靑, 絜予, 非我, 鴻來 등이 있는데 그는 평생 老舍라는 필명을 주로 사용하였다.

老舍의 아버지 舒永壽은 황궁을 보위하는 한 수비병으로 8旗族의 正紅旗에 속하였고, 당시 하급병사인 馬甲이었다. 그의 어머니도 가난한 농가 출신의 滿洲族이었다.

老舍가 태어난 이듬해인 1900년에 그의 아버지가 의화단 사건<sup>4)</sup>으로 인해 8국 연합군에 대항하다 전투 끝에 사망하게 된다. 노사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자 그나마 유지되었던 가정 형편이 더욱 더 어려워졌다. 그의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 바느질, 품팔이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의 어머니가 이러한 소일거리를 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그녀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존심이 강했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말을 하여 돈벌이를 하거나 허리를 굽신 거리지 않았다.<sup>5)</sup> 그의 어머니는 부지런하고 검소했으며 의협심이 강했다. 그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어려움과 가난을 이겨나가는 생활태도를 배웠고, 이러한 어머니의 영향 때문에 과묵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노사는 이러한 북경의 어려웠던 생활과 어머니의 성격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후에 그가 쓴 <老張的哲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가난한 사람이다. 성격상에 있어서 깊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 그녀는 차라리 굶어도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않았고, 또 사람들에게 대해서 의리가 있는 여인이었다. 가난(窮), 나로 하여금 세상을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였다. 강직(剛強), 나로 하여금 개인적인 감정과 주장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하였다. 의기(義氣),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 대해 동정심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점을 이해한다면 내가 왜 한편으로는 웃기면서 한편으로는 욕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我自有便是个穷人，在性格上又深受我母亲的影响，她是个愣挨饿也不肯求人的，同时对别人又是很义气的女人。穷，使我好骂世，刚强，使我容易以个人的感情与主张去判断别人，义气，使我对别人有点同情心，有了这点分析，就很容易明白为什么我要笑骂....<sup>7)</sup>

4) 청나라 말기인 1900년 중국 산둥성(山東省)에서 일어난 반기독교 폭동을 계기로 화북(華北) 일대에 퍼진 반제국주의 농민투쟁이다.

5) 이수웅, 《노사(老舍)》(건국대학교출판부, 1994), p. 13

노사가 문단에 입문한 뒤 집필한 많은 작품들에서 북경의 생활상과 분위기, 인물이 매우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은 그가 보낸 북경에서의 가난하고 힘들었던 유년기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년기 시절 주목할 점은 그의 어머니는 그의 형제들에게는 천자(千字) 한 권 읽힐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老舍만큼은 마을의 글방에 입학시켜 약 3년 동안 글을 배우게 한다. 그 후 市立高井胡同第二兩等小學校 3학년으로 편입하였고, 제13소학교로 전학한 후 졸업하게 된다. 그 후 北京市立 第3中學校에 입학하였으나 중간에 가정형편으로 인해 퇴학하게 된다. 하지만 다시 시험을 치르어 학비, 기숙사비, 교재비 등 학업과 관련한 제반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北京師範學校에 입학하여 교장과 선생님들에게 촉망을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노사는 1918년 졸업과 동시에 19살의 나이로 북경공립 第十七小學校 敎長으로 발령받은 후 일을 하게 됨으로 교육자로서 첫발을 내딛게 된다.

老舍가 小學校에 재직하고 난 그 이듬해인 1919년에 중국에 5.4운동<sup>8)</sup>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하지만 노사는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 별다른 자각을 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만 열심히 할 뿐이었다.

중국문학사에서 많은 중국 내외의 학자들이 胡適의 <文學改良芻議><sup>9)</sup>가 발표된 1917년 또는 5.4운동이 일어난 1919년 이후를 중국의 근대와 현대가 갈리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晚淸 이후로 1917년 또는 1919년 이전의 문학을 근대문학이라고 하고, 그 이후의 문학은 현대문학이라고 구분한다.<sup>10)</sup>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지만 1910년대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 예컨대 1911년 신해혁명, 1917년 胡適의 <文學改良芻議> 발표, 1919년 5.4운동이 중국문학을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변화시켰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특히, <文學改良芻議>가 있는 지 1년 후인 1918년도에 魯迅이 첫 백화문 소설인 <狂人日記>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백화문의 첫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의 문학양식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학양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출발을 알렸다.

이처럼 5.4운동은 중국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당시 중국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지만 노사는 5.4운동에 대해서는 완전한 방관자였다. 그는 후에 5.4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그러나 결국 이 운동에 대하여 방관자였다.(可是到底對這個大運動是個旁觀者)”<sup>11)</sup>

7) 老舍, 《老舍文集(第十六卷)》“我怎麼寫老張的哲學”(인민문학출판사, 1993년) 참고

8) 1919년 5월 4일 중국 북경(北京)의 학생들이 일으킨 항일운동이자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혁명운동. 봉건적인 윤리도덕을 반대하고, 유교를 타도하며 구시대의 철학과 종교에 대하여 반대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민중의 계몽을 위한 문학개혁을 제창한 운동. 계몽운동의 중심에 언어(문어가 아닌 구어)와 문학(낡은 문학이 아닌 신문학)의 문제, 그리고 인간(주체)을 제대로 세운다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문학단체의 결성도 잇따랐다. '인생을 위한 예술'을 주장한 문학연구회(文學硏究會, 1921)와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하며 일본에서 결성된 창조사(創造社, 1921), 그리고 "자유롭게 말하고 거리낌없이 새 생명의 탄생을 촉진하며 새 것에 방해가 되는 낡은 것을 힘써 배격"할 것을 주장한 어사사(語絲社, 1924), 그 밖의 현대평론(現代評論, 1924), 신월사(新月社, 1928) 등이 그 주역들이었다.(《중국, 중국인 그리고 중국문화》 2011. 3. 3., 다락원 참고)

9) 胡适은 <新青年> 제2권 5호에 중국고전문학에 반대하는 글인 <文學改良芻議>를 실었다.

10) 김영구·김진공, 《중국현대문학론》(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9), p. 5

11) 이수용, 《노사(老舍)》(건국대학교출판부, 1994), pp. 17~18

하지만 老舍가 5.4운동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5.4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 운동을 계기로 옛 문학 창작법을 포기하고 백화를 사용하여 새로운 문학을 창작하기 시작했다. 그는 후에 5.4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또 서술한다. “만약에 5.4운동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종신토록 이와 같은 일을 하는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즉 부지런히 학교 일을 처리하고, 공손하게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틀에 박힌 결혼생활을 하고 아들을 낳고 하는 것일 뿐이었을 것이다.... 중략.... 나는 절대로 갑자기 문예를 할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sup>12)</sup>

## 2. 영국유학시기에서 전쟁발발이전 시기(1924~1936년)

1924년 여름 老舍는 원하던 대학진학을 뒤로한 채 R. K. Evans 교수의 추천으로 런던대학 동방학원(School of Oriental Studies, London Institute)의 중국어 교사로 일하게 된다. 그곳에서 노사는 중국어 교사로 일하면서 四書を 가르치기도 하였는데 월급은 적었으나 시간적으로는 많은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다. 때문에 남는 시간에는 영어공부를 위해 도서관에서 종일 책을 읽었다. 그는 당대의 유명한 유럽 작가들 예컨대 셰익스피어, 괴테, 단테, 찰스 디킨스 등의 책을 읽었는데, 특히 단테의 《신곡》<sup>13)</sup>은 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또한 노사는 영국의 디킨스와 웨일즈, 프랑스의 프로벨, 모파상 등의 소설을 읽었는데 이 소설들 역시 노사의 문학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老舍가 영국에 체류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영국에서 만난 許地山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허지산은 문학연구회의 창립회원이자 소설가였는데 당시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사, 인도철학, 민속학 등을 연구하고 있었다. 허지산의 작품이 명성을 얻게 되자 이를 흠모한 노사가 자신도 소설을 써보겠다는 막연한 마음을 먹게 되었고, 중국에서 교육자로 복무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다. 이 작품은 1926년부터 <小說月報>에 연재되기 시작하였고, 다음 해에는 단행본으로 출판되기에 이르는데 그것이 바로 <老張의哲學>이다. 그 후 노사는 영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5·4운동 시기 학생운동을 회화한 <趙子曰>을 집필하였고, 차례로 영국인과 영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소재로 한 장편소설 <二馬>을 탈고한다. 이처럼 영국에서 체류하였던 약 5년간 3편의 장편소설을 썼는데 이는 중국에서 노사의 소설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였고, 이를 통하여 귀국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12) 이수웅, 《노사(老舍)》 (건국대학교출판부, 1994), p. 19

13) 신곡 《La Divina Commedia, 神曲》: 1307년경부터 쓰기 시작하여 몰년(歿年)인 1321년에 완성하였다. <지옥편(地獄篇)> <연옥편(煉獄篇)> <천국편(天國篇)>의 3부로 이루어졌고, 각편 33가(歌), 각행 11음절(音節), 3운구법(韻句法)을 취했으며, 서가(序歌)를 합하면 100가에 총행수 1만 4233행에 이른다. 제명(題名)을 중세의 관용(慣用)에 따라 희곡(喜曲)이라 붙인 것은 비참한 인상을 주는 것은 <지옥편>뿐으로, 나머지 <연옥편> <천국편>에는 쾌적하고 즐거운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에 나타난 주제는 사후(死後)의 세계를 중심으로 한 단테의 여행담(旅行談)이다.(출처: doopedia 두산백과)

1929년 老舍는 영국을 떠나 3개월간 유럽을 여행하고, 싱가포르에서 반년 간 체류하며 華僑小學校에서 잠깐 교편을 잡는다. 1930년 봄 上海에 도착하고 북경을 거쳐 濟南에 있는 齊魯大學에서 강의를 맡게 된다. 그는 이후 수많은 단편소설과 수필을 썼으며 장편소설 《猫城記》(1932)와 《離婚》(1933)도 발표한다. 1934년 여름부터 青島의 山東大學으로 옮겨 강의를 하며 작품 활동을 병행하면서 단편소설집 《趕集》(1934년), 《櫻海集》(1935년), 《蛤藻集》(1936년)을 차례로 출간하였다.

1936년 여름 그는 교수직을 사임하고 전업작가로 활동하게 된다. 《駱駝祥子》는 전업 작가로서 발표한 그의 대표작이다. 노사의 창작생애 가운데 특히 30년대는 대표작 《駱駝祥子》를 비롯하여 《老舍幽默詩文集》(1934)과 산문(소품문), 비평, 번역 등 다각적인 문학 활동을 하였던 시기이다.<sup>14)</sup>

老舍 영국유학시기에서 전쟁발발이전 시기였던 1924부터 1936년까지는 역사적으로 보면 1910년대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이후에도 중국은 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국은 내적으로는 1926년 제1차 국공내전이 시작되었고 9·18만주사변(1931년)과 1·28상해사변(1932년)이 차례로 발생하였다. 외적으로는 일본군의 침략과 중일전쟁(1937년~1945년) 발발로 인해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들은 바로 문인들의 작품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20년도 후반부터 1930년대 후반까지 약 10년 동안은 대부분의 문인들과 지식인들이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의 좌우 이념 대립에서 많은 갈등을 겪었다. 문인들은 정치적 긴장상태에서 좌우 두 축을 중심으로 대립국면에 직면했고, 문학과 정치의 관계라는 문제가 문단의 핵심적인 주제로 부각되었다.

### 3. 항전기(1937~1945년)

1930년대 후반부터 1949년 약 10년간은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국공내전이 심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항일과 국공내전이 문단의 주요한 쟁점이었다.<sup>15)</sup> 많은 작가들이 원래의 창작환경을 떠나 내륙으로, 농촌으로, 항일전선으로 향했다. 老舍 역시 나라를 구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처자식을 뒤로하고 항전투쟁에 가담하였다. 1938年 3月 27日 전국의 文人대표 97명은 武漢에 모여 中華全國文藝界抗敵協會(약칭‘文協’)을 조직하였다. 회의에서 老舍는 郭沫若, 茅盾, 夏衍, 胡風, 巴金 등 45인과 함께 이사로 선출되었고 나중에는 총무부 主任으로 추대되어 ‘文協’의 일상업무를 보게 되었다.<sup>16)</sup>

본래 老舍는 공산당이나 국민당이 아니었다. 그는 정치적인 입장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항전문학에만 힘을 썼다. 하지만 1939년 6월 항전병사와 인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반년 동안 서북 8개성과 연안지역에 위문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모택동과

14) 이영숙, <老舍 散文 選譯>(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p. 4~5

15) 김영구·김진공, 《중국현대문학론》(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9), pp. 306~308

16) 방수경, <老舍 小說에 나타난 傳統的 思想 觀念의 受用과 批判 研究>(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p. 13~14

만나 대화를 나누며 노사가 가지고 있었던 혁명에 대한 오해가 바뀌게 되었고, 그의 정치적 태도도 변하게 된다.

항전기간 동안 老舍는 항전시기의 현실을 주제로 하여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특히 그는 통속문예가 항전문학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장르 중 하나라고 생각하여 여러 통속작품을 창작하였다. 경극(京劇), 고사(鼓詞)<sup>17)</sup>, 상성(相聲)<sup>18)</sup> 등을 창작하였으며, 《殘霧》, 《國家至上》 등 10편의 희곡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노사는 이러한 작품들을 통하여 국민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줄 것을 호소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애국의 전사들을 높이기도 하였다.

1944年 9月에는 20년간의 창작생활을 회고한 《習作二十年》을 발표하였고, 11月에는 40년대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四世同堂》의 제1부 〈惶惑〉을 <掃蕩報>에 연재하기 시작하였다.

#### 4. 해방이후시기(1946~1966년)

老舍는 美 국무성의 초청으로 문화교환계획의 일환으로 극작가 曹禺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들은 미국에 도착한 후 예정대로 1년 간 각 지역의 대학을 순방, 강연을 하였다. 그 이후 노사는 3년간을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집필활동을 계속한다. 1946년 11월에 《四世同堂》의 제1부 〈惶惑〉과 제2부 〈儉生〉이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1948년에는 장편소설 《鼓書藝人》을 집필하였고, 1949년에는 《四世同堂》의 제부 〈饑荒〉을 완성하였다.

1949년 10월 1일 모택동은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되기 3개월 전인 7월에 ‘중화 전국문학예술공작자 대표대회’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周恩來는 노사를 포함한 해외 작가들의 귀국을 호소하였다. 노사는 이에 부응하여 12월에 고국으로 귀국하게 된다.

귀국 후 이듬해인 1950년도 9월에 희곡 《龍須溝》을 발표하고, 1951년 2월에 상연하였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이 상연이 북경시로부터 높이 평가되어 같은 해 12월에 북경시장으로부터 “人民藝術家”의 칭호를 수여받기도 하였다.

1950년대 老舍의 문학 활동은 1950년 이후 老舍의 작품 활동은 희곡창작 및 예전에 발표되었던 작품을 대해 공산당 이념에 맞게 수정을 하는 정도였다. 작가로서의 예술 생명은 50년대 이후 조금씩 사라졌다. 1950년대 이후 노사는 계속해서 戲曲에 역량을 쏟아 부었으나 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패하였다.<sup>19)</sup>

17) 북의 반주(伴奏)에 맞추어 운문(韻文)의 창과 산문(散文)의 말을 번갈아 하는 중국(中國) 창극

18) 상성(相聲)은 중국의 연희로 우리의 재담이나 만담과 유사함. 상성은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것이 특징으로, 설(說, 우스갯소리·수수께끼·잰말놀이), 학(學, 새·짐승의 소리나 인물의 모습과 말씨를 흉내 내는 것), 두(逗, 서로 우스갯소리를 주고받으면서 웃음을 자아내는 것), 창(唱, 우스꽝스럽게 노래하는 것) 등을 그 주요한 예술 수단으로 삼는다. 공연 방식에는 혼자 하는 단구(單口), 두 사람이 일문일답하는 대구(對口), 세 사람이 이상이 하는 군구(群口)의 3종이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19) 방수경, <老舍 小說에 나타난 傳統의 思想 觀念의 受用과 批判 研究>(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 15

1961년 老舍가 편집을 맡은 <北京文藝>에 吳晗의 <海瑞罷官>이 실렸다. 1965년 姚文元이 <海瑞罷官>을 비판하면서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었고, 노사도 자연스럽게 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1966년 문화대혁명이 발발하자 노사는 文聯 간부들과 홍위병에게 심한 구타를 당하고 결국은 太平湖에서 시체로 발견된다. 사후에도 그에 대한 비판은 계속 되었으며 1978년에 비로소 명예회복이 이루어져 그의 삶이 재조명되고, 그 이후 출판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Ⅲ. 老舍 幽默散文 概觀

유머산문은 본래 재미와 해학이 있는 글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미소 짓고 유쾌하게 만드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하지만 老舍는 이 재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자신의 글에 풍자성도 담으려고 하였다. 사회의 비상식적인 풍습, 잘못된 악습, 권세가들, 상류사회 등을 자신만의 유머로 풍자하려고 하였다.

또한 老舍의 유머산문은 일반시민들의 삶을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산문을 보면 당시 사람들의 생활태도, 생각, 시대 정취 등이 매우 긴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그의 산문을 통하여서 시대상과 정신을 관찰할 수 있다.

老舍 幽默散文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기조는 풍자성과 예술성이다. 노사는 유머라는 제재를 사용하여서 주인공이 살아가는 시대상과 정서를 나타냈고 또 특정대상을 비판·풍자하였는데 이 두가지 기조가 노사의 유머산문 대부분의 작품에 드러나 있는 뚜렷한 기조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그의 유머작품을 풍자 및 해학적인 측면과 예술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풍자성과 예술성이라는 두 기조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노사 작품을 더욱 더 깊이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 1. 풍자성

老舍의 幽默散文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하였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유머산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아 주제를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억지로 글에 유머소재를 넣어서 글의 사실성과 진실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었다. 노사는 그의 작품에 유머와 풍자를 함께 가미하여 사람들의 웃음을 유발하는 동시에 반성하게 하는 작품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두 마리의 효과 모두 놓쳐버린 작품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老舍의 유머작품이 비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유머와 풍자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유머와 풍자는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했으며, 풍자가 빠진 글은 유머작품이 아니라 ‘골계(滑稽)’라고 생각하였다. 골계는 아래의 글에서 노사가 설명한 것과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한번 웃게 하면 그만인 장르이다. 말 그대로 그 웃음 이면에 전혀 생각할 거리도 반성할 거리도 없이 단순히 사람들의 웃음만을 유발하는 것이다.

老舍는 이러한 장르와 자신의 유머작품을 명백하게 구분하였다. “什麼是幽默”라는 그의 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유머는 더 높은 의도가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저 하하하 웃게 하고 깊은 의의가 없는 것은 골계이다. 하지만 유머는 반드시 사상성과 예술성이 있어야 한다.(而“幽默”有更高的企图。凡是只为逗人哈哈一笑，没有更深的意义的，都可以作“滑稽”，而“幽默”则须有思想性与艺术性。)” 이처럼 그는 그저 웃음을 유발하는 것과 유머를 명백히 구분하였고, 유머에는 사

상성, 즉 작가의 사상을 나타내는 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대부분의 유머 작품이 풍자성을 띄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그의 생각 때문이었다.

우리의 만담은 유머의 한 종류이다. 이것은 풍자적이고, 풍자는 유머와 분리될 수 없다. 만약 엄숙한 태도로 사람들을 교훈한다면 풍자적인 의미는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머를 가지고 기습적으로 측면공략을 해야 하며, 사람들을 먼저 조금 웃기고 나서 사람들이 자세히 생각해보고 음미하게 하여 얼굴이 붉어지게 해야 한다. 해방 이전에 통용되던 만담은 많은 사람들을 놀리면서 재미있는 하는 ‘골계(滑稽)’인데 언어가 통속적이고 요지가 없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한번 웃게 하고 그만이다. 교육적 의의와 예술적 감각이 없다. 해방 이후에 만들어지는 내용은 이와 같지 않다. 언어에는 함축이 있고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풍자의 책임을 다해야 하며 사람들이 듣고 웃지만 함께 반성도 하게 만들어야 한다.

我们的相声就是幽默文章的一种。它讽刺，讽刺是与幽默分不开的，因为假若正颜厉色地教训人便失去了讽刺的意味，它必须幽默地去奇袭侧击，使人先笑几声，而后细一咂摸，脸就红起来。解放前通行的相声段子，有许多只是打趣逗眼的“滑稽”，语言很庸俗，内容很空洞，只图招人一笑，没有多少教育意义和文艺味道。解放后新编的段子就不同了，它在语言上有了含蓄，在思想上多少尽到讽刺的责任，使人听了要发笑，也要去反省。<sup>20)</sup>

유머문자는 단순히 온순한 문자가 아니다. 유머는 지혜를 사용하고 증명하며 사람들을 웃게 하는 여러 가지 기교를 운용한다. 유머는 사람들로 하여금 웃게 하고 놀라게 하며 또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하고 교훈을 받게 한다. 우리는 찰스 디킨스, 마크 트웨인, 니콜라이 바실리에비치 고골의 작품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게 된다. 한 단락의 만담(相聲)을 들으면 또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幽默文字不是老老实实的文字，它运用智慧，聪明，与种种招笑的技巧，使人读了发笑，惊异，或啼笑皆非，受到教育。我们读一读狄更斯的，马克·吐温的，和果戈里的作品，便能够明白这个道理。听一段好的相声，也能明白些这个道理。<sup>21)</sup>

老舍의 이러한 생각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의 작품의 풍자성은 더욱 더 뚜렷해진다. 초기에 그의 유머작품을 보면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는 작품들이 많았지만 시

20) 《北京文藝》1956年 三月号 <什麼是幽默> (北京出版社, 1956년) 참고

21) 위의 책 참고

간이 지날수록 그의 작품에는 풍자성이 뚜렷해진다.<sup>22)</sup> 그의 이 풍자성은 단순히 산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소설에도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가 창작하는 많은 작품들에 이러한 풍자성이 드러나게 된다.

그의 유머산문 <一天>에 보면 老舍 자신이 하루동안 경험한 일들에 대해 유머와 풍자를 적절하게 섞어 글을 구성하였다. 자신이 아침에 일어나 글을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지만 갑작스럽게 제남을 경유한다는 편지를 보낸 친구를 보기 위해 붓과 먹을 손에서 놓고는 옷을 입고 집에서 나선다. 하지만 집에서 나선 이후 택시를 잡아탔지만 차는 막히고 급한 마음에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솜저고리의 안자락이 차에 걸린다. 이에 힘을 주어 잡아 당겼는데 힘을 너무 세게 주면서 노사의 팔이 아이에게 부딪혔다. 그 때의 상황을 글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솜저고리의 안자락이 차에 걸려서 힘을 주어 당겼다. 두루마기는 없어도 그만이다. 좋은 친구를 만날 기회를 놓칠 순 없다! 두루마기가 크게 한 조각 찢어졌다. 또 힘을 너무 세게 주면서 내 팔꿈치가 엄마 품에 있는 아이에게 부딪혀 버렸다. 아이 엄마는 곧바로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욕을 해댔다.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모든 말들이 명백하게 내 귀에 들렸다. 마치 내가 무선 이어폰을 낀 것과 같았다. 아이는 기이하게 울었는데, 입이 마치 화산 입구처럼 벌려져 있었다. 눈물은 한 방울도 없었는데,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 외국에서는 모든 것이 “미안하다”는 말로 가능한데 중국에서는 장시간 사람들을 떠받쳐 주어야 한다. 주변에는 경찰 다섯 명, 노인들 한 무리, 여학생 두 명, 사탕 파는 사람 한 명, 스물 명이 넘는 청년들, 한 마리 황구가 있었는데 모두 나를 둘러싸서 조금의 틈도 없었다. 무슨 할 말이 없었다. 오직 우는 모습과 욕하는 것을 들어야만 했고, 주위에서는 내가 친둥 번개를 맞는 모습을 쳐다보며 희희덕 거렸다. 다행히도 사탕을 파는 사람이 성인이었다. 나를 향해 눈짓을 보냈다. 나도 마음이 급했기에 손놀림이 빨랐다. 빠르게 사탕을 한 움큼 움켜쥐고 우는 아이의 품에 안겨주었다. 화산의 입구가 즉시 닫혔다. 주위의 사람들은 모두 크게 실망했다. 사탕 값을 치루고 틈이 보이자마자 적들의 포위를 뚫고 나갔다.

棉袄的底襟挂在小车子上，用力扯，袍子可以不要，见好友的机会不可错过！袍子扯下一大块，用力过猛，肘部正好碰着在娘怀中的小儿。娘不加思索，冲口而成，凡是我不爱听的都清清楚楚的送到耳中，好象我带着无线广播的耳机似的。孩子哭得奇，嘴张得象个火山口；没有一滴眼泪，说好话是无用的；凡是在外国可以用“对不起”了之的事，在中国是要长期抵抗的。四围的人——五个巡警，一群老头儿，两个女学生，一个卖糖的，二十多小伙子，一只黄狗——把我

22) 최성임, <老舍의 幽默 小説 研究>(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 62

围得水泄不通；没有说话的，专门能看哭骂，笑嘻嘻的看着我挨雷。幸亏卖糖的是圣人，向我递了个眼神，我也心急手快，抓了一大把糖塞在小孩的怀中；火山口立刻封闭，四围的人皆大失望。给了糖钱，我见缝就钻，杀出重围。

위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老舍는 택시를 내리며 일어난 상황을 코믹하게 그려내었고 또 중국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풍자적인 내용도 함께 담아내었다.

또한, 老舍는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내용을 자주 소재로 삼았는데, <買彩票>라는 작품에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유머스럽게 풍자하기도 하였다.

복권 당첨자를 발표하는 그날까지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잠을 잘 자지 못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1등이 된다면…… 누군가 1등이 된다면 우리가 되지 않겠는가!? 2만원(元)<sup>23</sup>을 내가 받게 된다면 이 2만원을 어떻게 써야 하나? 작은 집을 하나 구입하자, 좋다, 집의 위치, 양식, 집안 배치는 어떻게 하나? 이에 대해 새벽까지 생각했다.<중략>

개표가 시작됐다. 신문에 오등까지 번호가 나왔는데 우리가 줄줄 외웠던 번호는 하나도 없었다. 집, 가게…… 흘린 땀을 따라 모두 사라졌다. 6등이나 7등을 기다려보자 앞 5등까지는 없었더라도 설마 6등도 못하려고? 점도 쳤고 길하게 나왔는데 말이야. 6등은 5백위안을 주니 몇 위안을 써서 여름 모시셔츠 한 벌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중략>

둘째 누나와 나는 발기인(發起人)이었다! 셋째 외할머니는 우리 둘에게 그녀가 낸 5편(分)을 청구했다. 배상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그녀에게 배상하고 다른 사람들의 2자오(角)도 의도치 않게 허비해 버렸다. 둘째 누나는 최근 며칠 몸져누웠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면 몸이 아픈 재주가 있었다. 남은 것은 결국 나였고 나는 사람들의 2자오를 마련해야 했다.

直到开彩那天，大家谁也没睡好觉。以我自己说，得了头彩——还能不是我们得吗？！——就分两万，这两万怎么花？买处小房，好，房的地点，样式，怎么布置，想了半夜。不，不买房子，还是作买卖好，於是铺子的地点、形式、种类，怎么赚钱，赚了钱以后怎样发展，又是半夜。

开奖了。报上登出前五彩，没有我们背熟了的那一号。房子，铺子……随著汗全走了。等六彩七彩吧，头五奖没有，难道还不中个小六彩？又算了一卦，上吉；六彩是五百，弄几块作件夏布大衫也不坏。

二姐和我是发起人呀！三姥姥向我们俩要索她的五分。没法不赔她。赔了她，别人的二角也无意虚掷。二姐这两天生病，她就是有这个本事，心里一想就会生病。剩下我自己打发大家的二角。

23) 중국의 화폐단위: 1위안(元): 10자오(角), 1자오(角): 10편(分) / 1위안(元)은 1콰이(块)와 같다.

글에서 볼 수 있듯이 老畬는 둘째 누나와 함께 2자오가 1만위안이 된다는 허황된 내용으로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돈을 모아 복권을 샀다. 복권을 사기 전 돈을 들여 점을 두 번이나 쳐보고 무조건 될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을 가졌지만 복권은 당첨되지 않고 사람들은 주주였던 노사와 그의 둘째 누나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결국 둘째 누나는 몸져 누웠고 그는 스스로 돈을 마련하여 사람들에게 받았던 돈을 갚았다. 노사는 이렇게 허황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였던 자신을 유머스러운 문장으로 풍자한다.

위의 두 작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노사는 자신이 주장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먼저 유머적인 요소로 웃음을 주고난 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음미하게 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그의 유머산문은 대부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반성하고 성찰하게 하는 것이다.

## 2. 예술성

老畬의 幽默散文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예술성이다. 그는 자라왔던 北平과 경험하였던 제남 등 그가 보고 느낀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그의 작품을 읽다보면 그가 자란 北平은 어떠한 곳인지 그의 집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를 시중드는 老田은 어떠한 사람인지 심지어 그가 키우는 개의 모습까지도 그려볼 수가 있다. 또한 그의 글을 읽고 있으면 그가 묘사하는 제남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며 사계절 동안 어떠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다. 이처럼 그가 묘사하는 모습들, 풍경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필체에는 독자들로 하여금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생동감이 있다. 그의 작품 <一些印象>에 그가 그린 제남의 모습은 마치 천국과 같은 곳이다.

제남에 와보라. 색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높낮이 다른 산들은 가을정취 속에서 더욱 달라 보인다. 색으로 설명하자면 산중턱의 소나무들의 색은 푸르고 검다. 소나무들이 가을 햇볕을 받으면 그 그림자는 회색보다 깊은 색이 나면서 검은 색보다는 옅은 색이 된다. 이 그림자가 옆에 있는 황초(黃草)를 덮어 회색 중 노랑색을 띠는 그늘 그림자를 드리운다. 산자락에는 각종 색깔의 나무들과 가지들이 있는데 한층 한층 어떤 것은 황색이고, 어떤 것은 회색이며 어떤 것은 녹색이다. 어떤 것은 마치 옅은 자주색과 같다. 산 정상에 있는 색은 태양의 이동에 따라 색이 다르다. <중략>

가을의 물을 보자. 제남에는 가을 산이 있고 또 가을 물(水)도 있다. 이 가을이야말로 진정한 가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을 신(秋神)이 제남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다른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물속의 녹조

만 말하겠다. 상제(上帝) 마음 속의 녹색을 제외하면 제남 녹조식물의 녹색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 밝은 녹색은 모두 물의 맑고 깨끗함을 빌려 자신을 드러내는데 이는 마치 미인(美人)이 거울을 빌려 자신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 이 녹조는 스스로 물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는 중인데 이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다. <중략>

작은 산들은 제남을 둘러서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었다. 완벽한 원에서 오직 북쪽만 비어있다. 이 둥글게 있는 산들은 특히 겨울에 매우 사랑스럽다. 마치 제남을 하나의 작은 요람 안에 넣어둔 것만 같다. 그들은 모두 조용하게 흔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곳은 틀림없이 따뜻한 곳이에요.” 정말 제남 사람들은 겨울에 모두 미소를 짓고 있다. 그들은 이 작은 산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의지할 곳이 있다고 느낀다.

那末，请看济南吧。那颜色不同，方向不同，高矮不同的山，在秋色中便越发的不同了。以颜色说吧，山腰中的松树是青黑的，加上秋陽的斜射，那片青黑便多出些比灰色深，比黑色浅的颜色，把旁边的黄草盖成一层灰中透黄的陰影。山脚是镶着各色条子的，一层层的，有的黄，有的灰，有的绿，有的似乎是藕荷色儿。山顶上的色儿也随着太陽的转移而不同。

是要看秋水的。济南有秋山，又有秋水，这个秋才算个秋，因为秋神是在济南住家的。先不用说别的，只说水中的绿藻吧。那份儿绿色，除了上帝心中的绿色，恐怕没有别的东西能比拟的。这种鲜绿全借着水的清澄显露出来，好象美人借着镜子鉴赏自己的美。是的，这些绿藻是自己享受那水的甜美呢，不是为谁看的。

小山整把济南围了个圈儿，只有北边缺着点口儿，这一圈小山在冬天特别可爱，好象是把济南放在一个小摇篮里，它们全安静不动的低声的说：你们放心吧，这儿准保暖和。真的，济南的人们在冬天是面上含笑的。他们一看那些小山，心中便觉得有了着落，有了依靠。

이처럼 그가 묘사하고 있는 제남의 모습을 읽고 있으면 읽는 일을 잠시 멈추고 그의 글을 음미하게 된다. 그리곤 자신도 모르게 제남의 풍경을 머릿속에서 그리게 된다. 산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산이 햇빛에 비친 모습들을 그리게 된다. 또한, 제남의 물이 얼마나 깨끗할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글의 風格이며 예술성이다.

또한 老舍는 서민생활을 매우 긴밀하게 그려내고 있다. 서민들의 생활상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애환이나 생활상 등을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다. 그의 유머산문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돈 많고 힘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지극히 평범하

고 또는 어쩌면 우매한 인물들이 나온다. 반드시 북평이라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나 만나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예컨대 나이 든 할머니, 이모, 고모, 동네 사람 등 지극히 평범하고 우리의 생활반경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제재들은 독자로 하여금 매우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자신의 삶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시민들의 슬픔과 고통을 유머의 재제로 사용하여 웃음과 재미를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웃음과 재미 가운데에는 소시민들의 아픔과 눈물이 서려 있다. 한편으로는 공감하고 미소를 지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시민들이 처한 환경과 의식수준 때문에 한숨짓고 허탈하게 되며 또 슬퍼지게 되는 것이다.

왕선생은 곧 결혼을 하고 싶었다. 어디에서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이 좋을까? 천진과 북평은 당연히 길한 땅이 아니고 홍콩(香港)은 너무 멀어서 별로다. 게다가 아직 배우자도 찾지 못했다. 먼저 배우자를 찾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도 지역의 문제가 있다. 어디서 찾을까? <중략>

왕선생은 차표를 사지 못했다. 동역, 서역 두 역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상제가 역 플랫폼에서 그들을 막 지은 것 같았다. 거기 있는 누구도 다른 곳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플랫폼과 기차만이 성지(聖地)라서 사람들은 모두 그곳에 박혀 있었다. <중략>

왕 선생은 급한 가운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물품보관소에 가서 자신에게 물품번호표를 붙이는 것이었다. 내 자신이 짐이 되면 당연히 차표를 살 필요가 없어진다. 하지만 물품보관소에서는 공교롭게도 다리가 딸린 짐은 받지 않았다! 어떻게 말해도 불가능했다. 왕 선생은 그저 물품보관소의 직원이 이성이 없다고 욕하는 방법 외엔 별다른 수가 없었다. <중략>

4시까지 기다렸고 드디어 평포(平浦) 쾌속열차가 운행을 시작했다. 왕선생은 오히려 이렇게 순조롭게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 하룻밤밖에 기다리지 않았는데! 하지만 갈 수 있게 되었으니 더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하지? <중략>

역을 나오자 혼인대사(婚姻大事)가 생각났다. 하지만 집에는 아직 어머니가 있었다. 먼저 집의 평안을 비는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후에 부인(愛人)을 찾기로 했다. 길에서 낮은 목소리로 얘기했다. “부인은 어디서 찾지? 부인은 어디에 있을까?” 말에는 자신만의 리듬이 있었다.

여관에 가서 집에 편지를 썼고 탕면(湯面)을 먹었다. 신문을 볼 생각이 났다. 북평은 아직 폭격을 당하지 않아 마음속으로 매우 실망했다. 한숨을 자고 부인을 찾으러 나갔다.

王先生马上想结婚。在何处举行婚礼好呢。天津和北平自然不是吉地，香港又嫌太远。况且还没找到爱人。最好是先找爱人。不过这也有地方的问题在内：在哪里找呢？

王先生买不到车票；东西两站的人就象上帝刚在站台上把他们造好似的，谁也不认识别处，只有站台和火车是圣地，大家全钉在那里。

王先生急中生智，到了行李房，要把自己打行李票：人而当行李，自然可以不必买车票了。行李房却偏偏不收带着腿的行李！无论怎说也不行；王先生只能骂行李房的人没理性，别无办法。

一直等到四点，居然平浦特别快车可以开。王先生反觉得事情不应当这么顺利；才等了一天一夜！可是既然能走了，也就不便再等。

上哪儿去呢？

出了车站，想起婚姻大事。可是家中还有个老婆，不免先写封平安家信，然后再去寻找爱人。一路上低吟：“爱人在哪里？爱人在哪里？”亦自有腔有韵。

下了旅馆，写了平安家信，吃了汤面；想起看报。北平还未被炸，心中十分失望。睡了一觉，出去寻求爱人。

위 작품은 <不遠千裏而來>라는 작품이다.王先生이라는 주인공이 결혼할 대상을 찾아 목적없이 기차역에 가서 고민 끝에 제남행 열차에 타게 되는 이야기이다. 그는 기차역에 가기 전 까지 어디를 가야할지 몰랐고 기차역에서 살 수 있는 아무표나 사려고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에게 짐표를 붙여서 무료로 기차를 타려고 하는 우매한 생각을 하기도 한다.

우여곡절 끝에 제남행 열차를 타게 되었고 제남행 기차는 滄州와 德州를 경유한다. 덕주에 잠시 기차가 정차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려 통닭구이와 소병(燒餅)을 향해 내달렸다. 그리고는 소병을 파는 아이를 서로 당겨서 죽음에까지 몰게 되는데 정작 왕선생은 자신은 통닭구이를 쟁취해 냈고 다시 차를 탈 수 있는 것에 도취되어 승리를 만끽한다.

마침내 제남에 도착하자 혼인대사와 집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났다. 집에 계신 어머니에 평안을 비는 편지를 쓰고 난 후 자신의 고향인 북평이 아직 폭격을 당하지 않아 실망하는 모습도 나온다.

이러한 줄거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매하고 무기력한 소시민의 형상을 볼 수 있다. 아무 생각 없이 되는데로 살아가지만 “중화의 인민들에게, 이 황제의 자손들에게 모든 것이 다 방법이 있어”라는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결국 노사는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들의 환경과 의식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또,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유머라는 제재를 사용하여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이렇듯 서민들의 애환과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매우 현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이러한 그의 묘사는 매우 예술적이라고 할 수 있다.



老舍가 이렇게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幽默散文 작품을 만들게 된 배경에는 외국 작가들의 영향이 컸다. 노사는 영국에서 1924년 런던대학 동방학원(School of Oriental Studies, London Institute)의 중국어 교사로서 일하게 되는데, 이 때부터 영국에서 일하며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 여가 시간에 읽었던 외국 작가들의 작품이 예술적인 측면에서 그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찰스 디킨스, 마크트웨인, 니콜라이 바실리에비치 고골 등을 유머작가라고 설명하면서 그들의 작품의 효용에 대해 설명한다.

영국의 찰스 디킨스, 미국의 마크 트웨인, 러시아의 니콜라이 바실리에비치 고골 등의 위대한 작가들은 모두 유머작가라고 불린다. 그들의 작품 및 다른 위대한 작품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거짓, 교활 등의 악을 증오하고 약자, 압박을 당하는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동정한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과 증오는 모두 유머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쓴 문장의 초소(招笑)이고 유머(風趣)이다.

英国的狄更斯、美国的马克·吐温，和俄罗斯的果戈里等伟大作家都一向被称为幽默作家。他们的作品和别的伟大作品一样地憎恶虚伪、狡诈等等恶德，同情弱者，被压迫者，和受苦的人。但是，他们的爱与憎都是用幽默的笔墨写出来的一——这就是说，他们写的招笑，有风趣。<sup>25)</sup>

老舍는 외국작가 중에서 찰스 디킨스(1812-1870)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찰스 디킨스는 풍자를 섞어 19세기 영국 사회의 생활, 특히 하층 시민에 대한 공감을 묘사함으로써 대중 작가로서 독자를 끌었던 영국의 비판적 리얼리즘의 대표적 작가이다. 또한 그의 소설은 폭넓은 사회현실을 반영하면서 풍속, 습관 등의 묘사를 매우 중시 하였던바 노사는 이러한 디킨스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sup>26)</sup>

찰스 디킨스는 유머라는 무기를 사용해 사회 분위기, 사람들의 감정, 하층시민에 대한 묘사를 통해 대중작가로 발돋움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은 노사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사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자신이 생활하고 경험하였던 사회의 분위기, 풍경 그리고 그러한 배경에서 살아가는 소시민들에 대해서 매우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 예컨대 사랑, 증오, 분노, 욕심, 이기심 등을 잘 서술해 내고 있다.

25) 《北京文藝》1956年 三月号 <什麼是幽默> (北京出版社, 1956년) 참고

26) 최성임, <老舍의 幽默 小說 研究>(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 62

유머작가는 반드시 언어문학을 숙달(掌握)한 작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의 글은 반드시 세련되어야 하고, 강력하고 또 분명해야 한다. 유머작가는 또한 반드시 강한 관찰력과 상상력이 있어야 한다. 관찰력이 좋아야 생활 중의 모든 재미난 일들과 상호 모순적인 일들을 간파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비평할 수 있다. 상상력이 좋아야 과장을 할 수도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웃게 만들고 영원히 잊지 않게 할 수 있다.

幽默的作家必是极会掌握语言文学的作家，他必须写得俏皮，泼辣，警辟。幽默的作家也必须有极强的观察力与想象力。因为观察力极强，所以他能把生活中一切可笑的事，互相矛盾的事，都看出来，具体地加以描画和批评。因为想象力极强，所以他能把观察到的加以夸张，使人一看就笑起来，而且永远不忘<sup>27)</sup>。

결국 老舍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 유머라는 체재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예술성을 잘 드러내었다. 그가 설명한 것처럼 그의 글들은 세련되었고 생활 중의 모순을 통해 재미를 일으켰고 또 풍자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 정규교육을 통해 기른 문학적 소양과 외국작가들의 우수한 작품들을 읽고 기른 능력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문학세계를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만의 특색 있는 작품들을 창작하여 “幽默大師”，“笑匠”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물론 그의 모든 글들이 다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의 많은 작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의 幽默작품들은 중국현대문학사의 한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

27) 《北京文藝》1956年 三月号 <什麼是幽默> (北京出版社, 1956년) 참고

#### IV. 作品翻譯

##### 1. <어떤 인상들(一些印象(節選))>

제남의 가을경치는 시적이다. 가령 당신의 환상 중에 있는 중고시대<sup>28)</sup>의 오래된 성과 같다. 잠이 든 성루, 협소한 돌길, 넓고 두터운 성벽 그리고 성을 중심으로 흐르는 맑은 시내는 산을 비추고 있다. 시냇가에는 붉은 도포와 푸른색 바지를 입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다. 당신의 환상 중에 만약 이러한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제남이다. 만약 상상을 할 수 없다면 (많은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제남에 와서 보기 바란다.

가을이 되면 제남에 와 보라. 제남의 성(城), 강(河), 옛 길, 산의 멋진 경치는 언제나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여기에 제남의 추색(秋色)이 더해지면 소박하고 예스러운 그림 같은 경관에서 조용하고 아름다운 시적인 경관으로 변한다. 이 시적인 가을 정취는 오직 제남에만 있는 것이다. 상제는 여름의 예술을 스위스에 하사하셨고, 봄의 예술은 서호(西湖)<sup>29)</sup>에, 가을과 겨울의 예술은 모두 제남에 주셨다. 제남의 가을과 겨울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가을이 깊이 잠들면 겨울로 변해 가는데 상제는 제남을 갑자기 깨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가을과 겨울을 함께 제남에 주셨다.

시의 경지(境界)에는 반드시 산과 물이 있어야 한다. 제남에 와보라. 색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높낮이 다른 산들은 가을정취 중에 더욱 달라 보인다. 색으로 설명하자면 산중턱의 소나무들의 색은 푸르고 검다. 소나무들이 가을 햇볕을 받으면 그 그림자는 회색보다 깊은 색이 나면서 검은 색보다는 옅은 색이 된다. 이 그림자가 옆에 있는 황초(黃草)를 덮어 회색 중 노랑색을 띄는 그늘 그림자를 드리운다. 산자락에는 각종 색깔의 나무들과 가지들이 있는데 한층 한층 어떤 것은 황색이고, 어떤 것은 회색이며 어떤 것은 녹색이다. 어떤 것은 마치 옅은 자주색과 같다. 산 정상은 태양의 이동에 따라 색이 다르다. 산 정상 색깔이 같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고, 산중턱의 색깔이 다른 것은 진정 사람들로 하여금 시를 짓게 만든다. 산 중턱의 색깔은 영원토록 그곳에서 바뀌는데 특별히 가을에 태양빛은 홀연 시원하기도 하고 갑자기 잠깐 따뜻해지기도 한다. 이 변화는 격렬하지는 않지만, 산의 색은 햇빛 세기의 변화에 따라 바뀐다. 황색이 갑자기 조금 선명해지고, 또 갑자기 조금 어두워지며 또 갑자기 보이지 않는 한 층의 옅은 안개가 그곳에서 움직이는 것 같다가, 홀연히 갑자기 산들바람이 자연을 대신해서 이 색깔들을 조화롭게 한다. 가볍게 여러 가지 각종 색깔을 한 층 덧입히는데 이 색깔들은 옅어지면서도 아름다운 색이 된다. 이와 같은 산에 남색 하늘과 맑고 따뜻한 태양빛을 더한다. 하늘의 남빛

28) 중고시대는 중국 역사의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대에서 당(唐)대까지이다.

29) 절강(浙江)성 항주(杭州)에 있는 호수 이름. 서호(西湖)는 중국 고대 4대 미인 중 한명이었던 서시(西施)의 이름을 따서 서자호(西子湖)라고도 불리며, 북송 시인 소동파(蘇東坡)가 칠언절구로 서호(西湖)와 서시(西施)에 대한 유명한 시를 남겼다.(출처: 중국행정구역총람, 편집부, 2010. 8. 1., 도서출판 황매회)

은 남색이 곧 녹색으로 변할 것 같은 색이지만 완전한 녹색은 아니다. 맑고 따뜻한 태양빛은 곧 더워질 것 같지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것은 마치 시와 같은 부드러움이다. 이것이 바로 제남의 가을이다. 게다가 색의 다름 때문에 그 산의 높음과 낮음이 더욱 분명해진다. 높은 것들은 더 높아지고, 낮은 것은 더욱 낮아진다. 산의 날카로운 꼭선은 맑은 하늘아래 더욱 명백하고 분명해지며 견고해진다. 산 정상에 저 꼭대기를 보라!

다시 물을 보라. 양과 질 그리고 형식으로 말하자면 어디의 물을 제남의 물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샘이 있다. 곳곳이 샘이다. 강(河)과 호수(湖)가 있다. 이것은 형식상의 구분일 뿐이다. 샘이든 강이든 호수이든 모두 매우 맑으며 모두 매우 달다. 제남은 자연의 연인이자 않은가? 대명호(大明湖)의 여름 연꽃과 성하(城河)의 녹색 버드나무와 같은 자연은 매우 아름답다. 하지만 물을 보라. 특히 가을의 물을 보자. 제남에는 가을 산이 있고 또 가을 물(水)도 있다. 이 가을이야말로 진정한 가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을 신(秋神)이 제남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다른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물속의 녹조만 말하겠다. 상제(上帝) 마음 속의 녹색을 제외하면 제남 녹조의 녹색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 밝은 녹색은 모두 물의 맑고 깨끗함을 빌려 자신을 드러내는데 이는 마치 미인(美人)이 거울을 빌려 자신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 이 녹조는 스스로 물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는 중인데 이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다.

녹조식물들은 녹(綠)의 걱정거리를 알고 있다. 그들은 성장하여 말년이 되면 수면에 입맞춤 할 것이며, 녹색의 달콤한 꿈을 꿀 것이다. 장난기 있는 오리는 황색 발을 사용하여 녹(綠)을 한 번, 두 번 밟을 것이다. 옷을 빠는 여인들의 그림자들이 녹색 앞에 또 한, 두 번 입 맞출 것이다. 단지 이것만이 그들의 달콤한 걱정거리이다. 이 아름다움을 보았던 죽은 시인이 부러울 따름이다!

가을에 제남에는 물과 푸른 하늘 같은 시원함이 있다. 하늘에는 작고 하얀 구름이 있고, 물위에는 작은 파도 굴곡이 있다. 하늘과 물 중간은 청명(淸明)하다. 따뜻한 공기는 계수나무<sup>30)</sup> 꽃향기를 머금고 있다. 산 경치는 더욱 더 분명하다. 가을 하늘과 가을 바다는 비현실적으로 입맞춤하고 있다. 산들은 움직이지 않고, 바다는 미세하게 요동친다. 중고시대의 오래된 성은 가을 색과 가을철의 소리를 띄고 있다. 이곳이 바로 제남이고, 곧 시(詩)이다.

제남의 겨울이 어떠한지 알고 싶으면 다음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라  
지난번에는 제남의 가을에 대해 이야기 했었지. 이번에는 겨울을 이야기해야  
겠구나.

나와 같이 북평(北平)생활에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지 않으

30) 중국 및 일본 원산의 낙엽 큰키나무로 우리나라에서는 정원수로 심어 기른다.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고 개화기에는 향기가 좋다

면 그것은 곧 기적이다. 제남의 겨울에는 바람 부는 소리가 없다. 나와 같이 런던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된 사람에게 겨울에 일광(日光)을 볼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제남의 겨울은 구름 한 점이 없다. 열대지방의 일광(日光)은 영원토록 그렇게 독하고, 맑은 날씨는 오히려 사람들을 무섭게 한다. 하지만 중국 북방지역의 겨울에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있는 제남은 정말 보배와 같이 살기 좋은 곳이다.

만약 오직 햇빛만 있다면 특별한 일이 아니다. 눈을 감고 생각해 보라. 하나의 오래된 성에 산과 물이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파란 하늘아래 따뜻하고 편안하게 자고 있다. 이 도시는 오직 봄바람만이 그들을 깨워준다. 이 곳이 이상적인 세계가 아닐까?

작은 산들은 제남을 둘러서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었다. 완벽한 원에서 오직 북쪽만 비어있다. 이 둥글게 있는 산들은 특히 겨울에 매우 사랑스럽다. 마치 제남을 하나의 작은 요람 안에 넣어둔 것만 같다. 그들은 모두 조용하게 흔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곳은 틀림없이 따뜻한 곳이에요.” 정말 제남 사람들은 겨울에 모두 미소를 짓고 있다. 그들은 이 작은 산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의지할 곳이 있다고 느낀다. 그들은 하늘부터 시작하여 아래의 산들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생각한다. “내일은 아마 봄이 오겠지요? 이렇게 따뜻한데 오늘 밤 중에 산과 풀이 아마 녹색으로 물들겠지요?” 이 환상은 한순간에 실현될 수 없기에 그들은 결코 급해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자선을 베푸는 겨울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다른 계절이 오기를 희망하겠는가?

가장 절묘한 것은 작은 눈이 내릴 때이다. 보기 바란다. 산의 작은 소나무들은 갈수록 청흑(靑黑)색을 발하고, 소나무의 뾰족한 부분은 모두 하얀 꽃들을 떠받치고 있는데 왜국(小日本) 간호사들과 같다.<sup>31)</sup> 산봉우리들은 모두 하얗게 변하고, 푸른 하늘에 은태를 두른다. 산비탈 위에 어떤 부분은 눈이 많이 쌓였고, 어떤 부분은 흰 눈 아래에 여전히 초색(草色)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한길은 희고, 한 길은 푸르게 되어 산에 물결무늬의 화의(花衣)를 입혀 놓았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 이 화의(花衣)가 바람에 흔들려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당신이 더욱 아름다운 산의 속 살결을 보기를 소망하게 만든다.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누르스름한 태양 빛이 산 중턱을 비춘다. 그 때쯤에 얇은 눈은 부끄러움을 타듯이 조금씩 분홍색을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작은 눈이 내릴 때인데 제남은 큰 눈은 견디지 못한다. 제남의 작은 산들은 매우 수려하다.

오래된 제남, 성안(城內)은 그렇게 협소하고 성 밖(城外)은 또 그렇게 넓으며, 산비탈 위에는 작은 시골마을들이 엮드려져 있다. 마을 집들의 지붕에는 눈이 쌓여 있다. 맞다. 이것은 한 폭의 수묵화(水墨畵) 또는 당대(唐代) 유명한 사람의 그림일 것이다.

제남의 물을 한번 보자. 물은 얼음이 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녹조(綠藻)위에서 뜨거운 김이 난다. 수초(水藻)<sup>32)</sup>는 정말 푸르러서 겨울에 비축해 두었던 녹색을 모두

31) 역자 주: 나무의 뾰족한 부분이 눈에 덮힌 모습을 일본 간호사들이 흰색 간호 모자를 쓴 모습으로 비유함.

가지고 온 것 같다. 하늘이 맑을수록 수초는 더욱 푸르다. 이러한 푸르른 활력 때문에 물이 어는 것을 지켜 볼 수가 없다. 게다가 길게 늘어진 수양버들은 물속에서 그림자를 비춘다. 보라. 맑은 하수(河水)부터 천천히 위쪽까지 보라. 공중과 하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그렇게 맑고 투명하다. 그렇게 맑고 푸르다. 이 모든 것이 맑고 신비스러운 푸른색 수정이다. 이 수정안에는 붉은 지붕과 황초산(黃草山)<sup>33)</sup> 그리고 카펫 위의 작은 꽃무늬와 같은 회색 나무 경치를 품고 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겨울의 제남이다.

나무는 비록 잎이 없어도 새들은 게으르지 않다. 햇빛 아래 날개를 펴고 짓는 종달새를 보라. 산동사람들은 종달새의 송배자들이다. 제남은 종달새의 나라이다. 집집과 곳곳마다 종달새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당연히 작은 피꼬리도 적지 않다. 종달새의 나라 안에서 열심히 노래한다. 그리고 산 까치는 무리를 지어 나무위에서 노래하고 연한남색의 꼬리를 당기며 난다. 나무위에는 잎이 없지만 깃털로 장식되어 있다. 그 모습이 마치 서양의 미인과 같기도 하다. 강가에 앉아서 그들이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계곡물이 찰찰 흐르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한 숨 자고 싶어진다. 이것은 잠이 오게 하는 힘이 있다. 믿지 못하겠거든 한번 시도해 보라. 잠을 자봐라, 절대 얼어 죽지는 않는다.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

제노대학에 도착했을 땐 아직 여름방학이 아직 끝나지 않은 때이다. 태양이 떨어질 때를 제외하고는 학교 내에서는 하나의 그림자도 볼 수가 없다. 몇 개의 백색장의자 위에는 단풍나무가 그 의자를 위해 우산이 되어주고, 또한 나의 임시 서재가 되어준다. 손에는 하나의 책이 들려 있지만 반드시 읽는 것은 아니다. 땅위의 나뭇잎들의 그림자를 읽는데, 책을 읽는 것보다 재미가 있다. 내가 보기에 잔무늬가 있는 녹색 그림자<sup>34)</sup>는 작은 황색 동그라미들을 끼고 있는데 그 황색 동그라미들이 모두 동그랑지는 않다. 나뭇잎이 드문 지역이라 어떤 때는 일곱 모서리와 팔각형의 작은 조각의 나뭇잎만 눈에 띈다. 작고 검은 당나귀 같은 개미들은 오로지 이 빛의 원위에서 황망하게 오간다. 저쪽 편의 흰색 의자위에는 잔무늬의 녹색 그림자가 새겨져 있고, 또 작은 남색 나비들이 내려와 날개를 오므리고 있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 것 같다. 조금의 바람은 녹색 그림자를 불어서 흩어지게 한다. 작은 남색 나비는 깨어나서 마지못해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데, 마치 꿈에서 날개 짓을 하는 것 같다. 날아서 가지만 멀리가지 않고 다른 곳에 내려 노란 국화의 꽃술을 안는다. 보고 있으면 금방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작은 나비는 다시 날아간다. 그리곤 멍청한 말벌이 날아온다.

정말 조용하다. 남쪽을 향해 보라. 천불산(千佛山)은 마지못해 몇몇 흰 구름에 의지하며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북쪽을 향해 보라. 담 벽 밑에 가끔 당나귀 한, 두 마리가 지나가며 작은 방울소리를 낸다. 동서쪽을 향해 보라. 건물담장위에 담쟁이

32) 물풀

33) 산동성 제남시에 있는 산

34) 역자주: 잔무늬가 있는 녹색 그림자는 햇빛이 벌레 먹은 나뭇잎을 비추며 생기는 그림자를 말한다.

덩굴이 보인다. 나뭇잎은 두 면의 올라오는 검푸른 물결과 같이 미동한다. 아래를 향해 보라. 사면이 모두 푸른 풀이다. 위를 향해 보라. 붉은색의 지붕 끝이 보인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녹색, 붉은 색, 위와 아래 모두 한 장의 그림과 같다. 색은 고정되어 있으나 볼수록 아름답다. 사무실 큰 종의 침은 슬그머니 이동하는데 마치 시간을 깨우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 움직인다. 나무의 빈틈을 통해 가끔 여자아이를 볼 수 있다. 꽃 의복은 특히 화려하여 이 조용함을 돌연 자극한다. 꽃은 더욱 붉어지고 시간은 더욱 푸르게 된다. 마치 그녀의 꽃 의복이 이 색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것 같다. 작은 소녀가 보이지 않자 다시 조용해지기 시작한다. 아카시아 나무위에는 페페로미아(豆瓣綠)의 작은 벌레가 가볍게 떨어져 공중에 걸려있다. 나머지는 모두 움직이지 않는다.

정원(園中)에는 물이 조금 부족하다. 작은 참새들도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 자주 작은 눈을 사용하여 사면을 둘러 물을 찾는다. 만약에 정원에 작은 계곡이 있으면 얼마나 훌륭하겠는가. 계곡 내에는 각종 색깔의 물고기들이 있고, 또 연꽃이 있다면 말이다! 분수지(噴水池)<sup>35</sup>가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물소리는 단풍잎과 조화롭게 소리난다. 돌 탁자 위에서 15분을 자면 어떠한 색깔과 어떠한 달콤한 향이 나는 꿈을 꾸게 될 것인가! 꽃나무는 이미 충분하나, 다만 물이 조금 부족할 뿐이다.

작은 소나무 울타리는 활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다행히 소나무 향이 풍겨져 나온다. 만약 위에 유홍초를 두르고, 새빨간 꽃들을 피웠다면 아마 활기 없는 것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정원 밖의 몇 그루 아카시아 나무는 매우 아름다운데, 흰색 돌 의자 몇 개는 부족한 것 같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돌 의자가 없는 것도 또한 좋다. 정원의 전경은 기묘하게 꽃과 나무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 인공적인 장식은 적다. 벽돌의 화단, 녹색 대나무 울타리 모두 없다. 이러면 사람이 없을 때에 정말로 사람이 없는 것과 같다. 인공적으로 관리한 흔적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속되거나 조잡하지 않다.

아! 곧 여름이 온다! 작년의 풍경이 또 생각난다. 아마 어서 여름방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겠지. 여름방학아 빨리 와라! 이 전체의 정원을 꿀벌과 나비 그리고 나에게 달란 말이다. 지나치게 이기적이다. 누가 아니라고 하는가! 하지만 나는 나무그림자를 보며 훌륭하진 않지만 괜찮은 시를 여러분들에게 지어줄 수 있다.

학교 남쪽 편의 그 수박 밭은 사람의 입에 단물이 고이게 한다. 하지만 움직이기 귀찮다. 돌 의자 위에 앉아 기다리자. 태양이 떨어지기를 기다린 후 밭에 가서 수박 몇 개를 사자. 당연히 이것은 작년에 내가 했던 말이다. 올해 남쪽 편의 밭에 수박을 심었던가? 수박을 심었던가 아니면 콩을 심었을 것이다. 어쨌든 흰색 돌 의자는 여전히 거기에 있고, 담쟁이덩굴도 녹색으로 물들어 간다. 오직 장미가 열리길 기다린다! 장미가 열릴 때쯤이면 종자(粽子)<sup>36</sup>를 먹는다. 비가오고, 날이 맑게 개고, 단풍

35) 분수탑에서 떨어지는 물이 괴도록 만든 못

36) 粽子(zōngzǐ): 매년 단오절인 음력 5월 5일에 먹는 중국전통음식

나무 아래, 흰색 돌 의자, 작은 남색 나비, 녹색 괴나무 벌레, 하! 꿈이었다! 다시 천천히 꿈을 생각해 보자.

시로 증명한다. 맞다! 인상(印象)은 시로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상은 필히 얼마간 촌스럽게 된다. "춘야(春夜)"에 대해서 쓰고 싶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제목인가! 이 제목을 생각해 보면 나는 자연스럽게 시를 짓게 된다. 하지만 나는 시인은 아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은 마치 "찼찼매는 모습"인 것 같다. 시적인 맛이 조금도 없는 단어를 사용했다. 신시(新詩)는 매우 어렵다. 머리 속에는 "아(呀), 오(噢), 애(唉), 루(嘸)"와 준수한 "세미콜론(;)" 그리고 눈물 방울이 주룩주룩 흘러 내리는 것 같은 "따옴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없다. 어떻게 능히 이러한 보배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장식할 수 있는가? 이것은 실행이 불가하다! 구시(舊詩)? 역시 활기가 없다. 또한 최소한 십 몇 년 동안 사용되지 않아서 이미 고대의 물건이 되어 버렸다. 체면 구김을 면할 수가 없다.

결국 칠언율시 한수가 완성이 되었다! 60점도 못 받는 칠언율시를 만들어서 마음이 매우 기쁘다. 없는 것보다 낫고, 이유를 막론하고 이는 나의 기본 철학과 일치한다. 좋다. 다시 일곱 수(七首)를 지어서 총 8수(八首)를 만들자. 비록 한수도 매끄럽지 않더라도, "양"으로 치면 족히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중국 땅은 광대하고 생산물은 풍부하니, 한 사람이 족히 8수의 "춘야(春夜)"에 대한 시를 쓸 수 있다.

아이고! 무릎 병이 또 도졌다. 무릎이 붓고 뻗뻗해져서 활기가 없다. 하루 종일 멍청하게 있으면서 밥 생각도 없다. 어떻게 시를 짓는가? 큰 소리로 포기한다고 외치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다. 정말 무능하다! 세 수를 지었는데 그 다음을 지을 수가 없다.

한편의 산문을 따로 만들려고 하면 원고를 제출해야 하는 때에 이르고, 게다가 정신이 좋지 않으면 시와 산문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분산을 해서 좌우간 작성한 그 세 수(三首)를 받든지 말든지 먼저 보내버린다. 나는 바로 이러한 주의이다. 아무튼 어떻게 얘기하든 나는 시로 증명한다.

(一)

셀수 없을 만큼의 춘광(春光)이 그렇게 쉽게 가는가?

말이 없는 꽃과 새의 밤은 가을과 같다.

동풍은 꿈과 같으면서도 살짝 취하게 만들고,

작은 달은 내 마음을 알지만 고민만 비출 뿐이다.

버드나무를 보고 있으면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이 들고,

불같은 복숭아 색이 부끄러운 듯이 곱다.

어느 집에서 옥피리를 삼경(三更)<sup>37)</sup>이 지나서 부는가?

산은 드문 별들에 기대고 사람은 건물에 기댄다.

37) 하룻밤을 오경(五更)으로 나눈 셋째 부분. 밤 열한 시에서 새벽 한 시 사이이다.



(二)

유유자적한 마음으로 시의 경지(詩境)에 들어가니,  
바람이 버드나무에 부딪혀 흩어지는 소리도 차갑게 들린다.  
산중턱에는 달빛이 적어 푸른 소나무도 까맣게 보이고,  
울타리의 언저리에는 빛이 많아 옥처럼 아름다운 자두나무가 노랗게 보인다네.  
마음이 평온해 지면 점점 봄이 바다 같이 느껴지고,  
꽃 무르익은 곳에 있으면 그림자에서도 향기가 날 것 같다.  
언제 밭 일천 경<sup>38)</sup>을 사서  
그곳에 온통 오동나무와 해당화<sup>39)</sup>를 심을까!?

(三)

잠을 탐하지 말고 오히려 거만함을 덜어라,  
봄밤의 달빛이 평범하지 않다.  
벽도<sup>40)</sup> 몇 그루는 나비들을 모으고,  
자색 제비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여 꽃 해당화에 대한 꿈을 꾸다네  
꽃들이 시 보다는 많은데 밤이 짧아 안타깝다.  
버드나무가 사람처럼 마른 것은 정이 많기 때문이라네  
최근 몇 년 간 부평초와 같이 떠돌며 초라하게 살다가  
동풍과 함께 따뜻함과 차가움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이 세 수를 봐야한다! 오십년 후에 틀림없이 많은 사람이 주해를 할 것이다. 좋은 시는 주해(注解)가 필요 없다. 나의 평가자는 분명히 나는 자본가(資本家)이거나 가난하지만 자본주의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두 번째 시에 “언제 밭 일천 경을 살 수 있을까?”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자. 내가 먼저 주를 달겠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산지(山地)를 사는 것이지 일천 경이 펼쳐진 좋은 밭을 사라는 것이 아니다. 밭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어 농민으로 하여금 배가 고파 죽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천불산(千佛山) 양쪽의 벌거숭이산에 모두 야생능금(海棠)을 심으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이것이 나의 진정한 꿈이다. 이것은 나의 말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율시 자체의 부자연스러움 때문이다. 한 구절이 일곱 자가 아니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갑자기 여덟 자나 아홉 자로 바꿀 수가 있겠는가?

됐다. 이제부터 다시는 이 고생을 하지 않겠다. 《일사인상(一些印象)》 작품 역시

38) ‘1頃’은 ‘100畝’에 상당함. 畝는 중국식 토지 면적의 단위. (‘10市分’을 ‘1市畝’로 하고 ‘100市畝’를 ‘1頃’으로 함. ‘1市畝’는 약 666.7제곱미터임.)

39) 꽃사과나무의 하나

40) 벽도(복숭아나무의 변종)

계속하지 않을 것이다. 여름방학 중에 잘 쉬면서 다리 관리를 잘 하면 미래 극동(远东)지역 운동회의 오백마일<sup>41)</sup> 경보대회에 참가해서 일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영웅호걸이다. 일곱 자가 한 구가 되는 시를 몇 구절을 꾸며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1931년 3월부터 6월까지 《齐大月刊》 제1권 제5, 6, 7, 8기에 실음

### <一些印象(節選)>

济南의秋天是诗境的。设若你的幻想中有个中古的老城，有睡着了的大城楼，有狭窄的古石路，有宽厚的石城墙，环城流着一道清溪，倒映着山影，岸上蹲着红袍绿裤的小妞儿。你的幻想中要是这么个境界那便是个济南。设若你幻想不出——许多人是不会幻想的——请到济南来看看吧。

请在秋天来。那城，那河，那古路，那山影，是终年给你预备着的。可是，加上济南的秋色，济南由古朴的画境转入静美的诗境中了。这个诗意秋光秋色是济南独有的。上帝把夏天的艺术赐给瑞士，把春天的赐给西湖，秋和冬的全赐给了济南。秋和冬是不好分开的，秋睡熟了一点便是冬，上帝不愿意把它忽然唤醒，所以作个整人情，连秋带冬全给了济南。

诗的境界中必须有山有水。那末，请看济南吧。那颜色不同，方向不同，高矮不同的山，在秋色中便越发的不同了。以颜色说吧，山腰中的松树是青黑的，加上秋陽的斜射，那片青黑便多出些比灰色深，比黑色浅的颜色，把旁边的黄草盖成一层灰中透黄的阴影。山脚是镶着各色条子的，一层层的，有的黄，有的灰，有的绿，有的似乎是藕荷色儿。山顶上的色儿也随着太陽的转移而不同。山顶的颜色不同还不重要，山腰中的颜色不同才真叫人想作几句诗。山腰中的颜色是永远在那儿变动，特别是在秋天，那陽光能够忽然清凉一会儿，忽然又温暖一会儿，这个变动并不激烈，可是山上的颜色觉得出这个变化，而立刻随着变换。忽然黄色更真了一些，忽然又暗了一些，忽然象有层看不见的薄雾在那儿流动，忽然象有股细风替“自然”调合着彩色，轻轻的抹上一层各色俱全而全是淡美的色道儿。有这样的山，再配上那蓝的天，晴暖的陽光；蓝得象要由蓝变绿了，可又没完全绿了；晴暖得要发燥了，可是有点凉风，正象诗一样的温柔；这便是济南的秋。况且因为颜色的不同，那山的高低也更显然了。高的更高了些，低的更低了些，山的棱角曲线在晴空中更真了，更分明了，更瘦硬了。看山顶上那个塔！

再看水。以量说，以质说，以形式说，哪儿的水能比济南？有泉——到处是泉——有河，有湖，这是由形式上分。不管是泉是河是湖，全是那么清，全是那么甜，哎呀，济南是“自然”的Sweetheart吧？大明湖夏日的莲花，城河的绿柳，自然是美好的了。可是看水，是要看秋水的。济南有秋山，又有秋水，这个秋才算个秋，因为秋神是在济南

41) 500mi/h은 804.672km/h

住家的。先不用说别的，只说水中的绿藻吧。那份儿绿色，除了上帝心中的绿色，恐怕没有别的东西能比拟的。这种鲜绿全借着水的清澈显露出来，好象美人借着镜子鉴赏自己的美。是的，这些绿藻是自己享受那水的甜美呢，不是为谁看的。它们知道它们那点绿的心事，它们终年在那儿吻着水皮，做着绿色的香梦。淘气的鸭子，用黄金的脚掌碰它们一两下。浣女的影儿，吻它们的绿叶一两下。只有这个，是它们的香甜的烦恼。羡慕死诗人呀！

在秋天，水和蓝天一样的清凉。天上微微有些白云，水上微微有些波皱。天水之间，全是清明，温暖的空气，带着一点桂花的香味。山影儿也更真了。秋山秋水虚幻的吻着。山儿不动，水儿微响。那中古的老城，带着这片秋色秋声，是济南，是诗。

要知济南的冬日如何，且听下回分解。

上次说了济南的秋天，这回该说冬天。

对于一个在北平住惯的人，象我，冬天要是不刮大风，便是奇迹；济南的冬天是没有风声的。对于一个刚由伦敦回来的，象我，冬天要能看得见日光，便是怪事；济南的冬天是响晴的。自然，在热带的地方，日光是永远那么毒，响亮的天气反有点叫人害怕。可是，在北中国的冬天，而能有温晴的天气，济南真得算个宝地。

设若单单是有阳光，那也算不了出奇。请闭上眼睛想：一个老城，有山有水，全在蓝天下很暖和安适的睡着；只等春风来把他们唤醒，这是不是个理想的境界？

小山整把济南围了个圈儿，只有北边缺着点口儿，这一圈小山在冬天特别可爱，好象是把济南放在一个小摇篮里，它们全安静不动的低声的说：你们放心吧，这儿准保暖和。真的，济南的人们在冬天是面上含笑的。他们一看那些小山，心中便觉得有了着落，有了依靠。他们由天上看到山上，便不觉的想起：明天也许就是春天了吧？这样的温暖，今天夜里山草也许就绿起来吧？就是这点幻想不能一时实现，他们也并不着急，因为有这样慈善的冬天，干啥还希望别的呢。

最妙的是下点小雪呀。看吧，山上的矮松越发的青黑，树尖上顶着一髻儿白花，象些小日本看护妇。山尖全白了，给蓝天镶上一道银边。山坡上有的地方雪厚点，有的地方草色还露着，这样，一道儿白，一道儿暗黄，给山们穿上一件带水纹的花衣；看着看着，这件花衣好象被风儿吹动，叫你希望看见一点更美的山的肌肤。等到快日落的时候，微黄的阳光斜射在山腰上，那点薄雪好象忽然害了羞，微微露出点粉色。就是下小雪吧，济南是受不住大雪的，那些小山太秀气。

古老的济南，城内那么狭窄，城外又那么宽敞，山坡上卧着些小村庄，小村庄的房顶上卧着点雪，对，这是张小水墨画，或者是唐代的名手画的吧。

那水呢，不但不结冰，反倒在绿藻上冒着点热气。水藻真绿，把终年贮蓄的绿色全拿出来了。天儿越晴，水藻越绿，就凭这些绿的精神，水也不忍得冻上；况且那长校的垂柳还要在水里照个影儿呢。看吧，由澄清的河水慢慢往上看吧，空中，半空中，天上，自上而下全是那么清亮，那么蓝汪汪的，整个的是块空灵的蓝水晶。这块水晶里，

包着红屋顶，黄草山，象地毯上的小团花的小灰色树影；这就是冬天的济南。

树虽然没有叶儿，鸟儿可并不偷懒，看在日光下张着翅叫的百灵们。山东人是百灵鸟的崇拜者，济南是百灵的国。家家处处听得到它们的歌唱；自然，小黄鸟儿也不少，而且在百灵国内也很努力的唱。还有山喜鹊呢，成群的在树上啼，扯着浅蓝的尾巴飞。树上虽没有叶，有这些羽翎装饰着，也倒有点象西洋美女。坐在河岸上，看着它们在空中飞，听着溪水活活的流，要睡了，这是有催眠力的；不信你就试试；睡吧，决冻不着你。

要知后事如何，我自己也不知道。

到了齐大，暑假还未曾完。除了太阳要落的时候，校园里不见一个人影。那几条白石凳，上面有枫树给张着伞，便成了我的临时书房。手里拿着本书，并不见得念；念地上的树影，比读书还有趣。我看着：细碎的绿影，夹着些小黄圈，不定都是圆的，叶儿稀的地方，光也有时候透出七棱八角的一小块。小黑驴似的蚂蚁，单喜欢在这些光圈上慌手慌脚的来往过。那边的白石凳上，也印着细碎的绿影，还落着个小蓝蝴蝶，抵着翅儿，好象要睡。一点风儿，把绿影儿吹醉，散乱起来；小蓝蝶醒了懒懒的飞，似乎是作着梦飞呢；飞了不远，落下了，抱住黄蜀菊的蕊儿。看着，老大半天，小蝶儿又飞了，来了个楞头磕脑的马蜂。

真静。往南看，千佛山懒懒的倚着一些白云，一声不出。往北看，围子墙根有时过一两个小驴，微微有点铃声。往东西看，只看见楼墙上的爬山虎。叶儿微动，象竖起的两面绿浪。往下看，四下都是绿草。往上看，看见几个红的楼尖。全不动。绿的，红的，上上下下的，象一张画，颜色固定，可是越看越好看。只有办公处的大钟的针儿，偷偷的移动，好似唯恐怕叫光阴知道似的，那么偷偷的动，从树隙里偶尔看见一个小女孩，花衣裳特别花哨，突然把这一片静的景物全刺激了一下；花儿也更红，时儿也更绿了似的；好象她的花衣裳要带这一群颜色跳舞起来。小女孩看不见了，又安静起来。槐树上轻轻落下个豆瓣绿的小虫，在空中悬着，其余的全不动了。

园中就是缺少一点水呀！连小麻雀也似乎很关心这个，时常用小眼睛往四下找；假如园中，就是有一道小溪吧，那要多么出色。溪里再有些各色的鱼，有些荷花！那怕是有个喷水池呢，水声，和着枫叶的轻响，在石台上睡一刻钟，要作出什么有声有色有香味的梦！花木够了，只缺一点水。

短松墙觉得有点死板，好在发着一些松香；若是上面绕着些密罗松，开着些血红的小花，也许能减少一些死板气儿。<sup>48)</sup>园外的几行洋槐很体面，似乎缺少一些小白石凳。可是继而一想，没有石凳也好，校园的全景，就妙在只有花木，没有多少人工作的点缀，砖砌的花池咧，绿竹篱咧，全没有；这样，没有人的时候，才真象没有人，连一点人工经营的痕迹也看不出；换句话说，这才不俗气。

48) 열대 아메리카산으로 관상용으로 심어 기르는 덩굴성 한해살이풀이다. 꽃은 7~8월에 피고 꽃은 색은 주로 붉은색 또는 흰색을 띤다.

啊，又快到夏天了！把去年的又想起来；也许是盼望快放暑假吧。快放暑假吧！把这个整个的校园，还交给蜂蝶与我吧！太自私了，谁说不是！可是我能念着树影，给诸位作首不十分好，也还说得过去的诗呢。

学校南边那块瓜地，想起来叫人口中出甜水；但是懒得动；在石凳上等着吧，等太阳落了，再去买几个瓜吧。自然，这还是去年的话；今年那块地还种瓜吗？管他种瓜还是种豆呢，反正白石凳还在那里，爬山虎也又绿起来；只等玫瑰开呀！玫瑰开，吃粽子，下雨，晴天，枫树底下，白石凳上，小蓝蝴蝶，绿槐树虫，哈，梦！再温习温习那个梦吧。

有诗为证，对，印象是要有诗为证的；不然，那印象必是多少带点土气的。我想写“春夜”，多么美的题目！想起这个题目，我自然的想作诗了。可是，不是个诗人，怎么办呢；这似乎要“抓瞎”——用个毫无诗味的词儿。新诗吧？太难；脑中虽有几堆“呀，噢，唉，喽”和那俊美的“；”，和那珠泪滚滚的“！”。但是，没有别的玩艺，怎能把这些宝贝缀上去呢？此路不通！旧诗？又太死板，而且至少有十几年没动那些七庚八葱的东西了；不免出丑。

到底硬联成一首七律，一首不及六十分的七律；心中已高兴非常，有胜于无，好歹不论，正合我的基本哲学。好，再作七首，共合八首；即便没一首“通”的吧，“量”也足惊人不是？中国地大物博，一人能写八首春夜，呀！

唉！湿膝病又犯了，两膝僵肿，精神不振，终日茫然，饭且不思，何暇作诗，只有大喊拉倒，予无能为力矣！只凑了三首，再也凑不出。

想另作一篇散文吧，又到了交稿子的时候；况且精神不好，其影响于诗与散文一也；散了吧，好歹的那三首送进去，爱要不要；我就是这个主意！反正无论怎说，我是有诗为证：

(一)

多少春光轻易去？无言花鸟夜如秋。  
东风似梦微添醉，小月知心只照愁！  
柳样诗思情入影，火般桃色艳成羞。  
谁家玉笛三更后？山倚疏星人倚楼。

(二)

一片闲情诗境里，柳风淡淡析声凉。  
山腰月少青松黑，篱畔光多玉李黄。  
心静渐知春似海，花深每觉影生香。  
何时买得田千顷，遍种梧桐与海棠！

(三)

且莫贪眠减却狂，春宵月色不平常！

碧桃几树开蝴蝶，紫燕联肩梦海棠。  
花比诗多怜夜短，柳如人瘦为情长。  
年来潦倒漂萍似，惯与东风道暖凉。

得看这三大首！五十年之后，准保有许多人给作注解——好诗是不需注解的。我的评注者，一定说我是资本家，或是穷而倾向资本主义者，因为在第二首里，有“何时买得田千顷”之语。好，我先自己作点注吧：我的意思是买山地呀，不是买一千顷良田，全种上花木，而叫农民饿死，不是。比如千佛山两旁的秃山，要全种上海棠，那要多么美，这才是我的梦想。这不怨我说话不清，是律诗自身的别扭；一句非七个字不可，我怎能忽然来句八个九个字的呢？

得了，从此再不受这个罪；《一些印象》也不再续。暑假中好好休息，把腿养好，能加入将来远东运动会的五百哩竞走，得个第一，那才算英雄好汉；诤几句不准多于七个字一句的诗，算得什么！

载一九三一年三月至六月《齐大月刊》  
第一卷第五、六、七、八期

## 2. <토론(討論)>

일본병사가 닥쳐 들었다. 왕영감은 하인과는 말을 섞지 않는 부자였는데, 매우 겸손하고 친절하게 변하였다. 목숨을 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하인의 도움이 없이는 이 목숨을 건질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영감은 이복(李福)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이복, 대청의 자동차는 아직 부를 수 있느냐?” 왕영감은 재정청 청장이다. 시국이 불안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대청으로 가보지 못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대청에 가는 그날 육 개월 치의 봉급을 가불하려고 했다.

“외부에 있는 차들은 조계(租界)<sup>56</sup>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복이 말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차량 임대소에서 차 한 대를 가지고 오게” 왕영감은 서둘러서 목숨을 구하고 싶어하였다. 국가의 차량을 희생하는 수 밖에 없었다.

“임대소가 이미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이복이 말했다.

“하지만” 왕영감이 오랫동안 깊이 생각한 후 말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이 일조계(日租界)를 떠나야 하네,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군이 들이닥치면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가지 못한단 말이야!”

이복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왕영감은 다시 잠깐 깊이 생각을 하고는 무의미하게 한숨을 쉬었다.

“이것은 모두 아내가 제멋대로 행동을 해서 그래. 반드시 일조계로 이사를 와야만 한다고 했던 말이야. 만약 프랑스 조계에 살았다면 이렇게 급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주인어른, 일본병사들은 어차피 모든 성을 점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역이 곧 일조계(日租界)로 변할텐데 이사를 온 것이 헛수고만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도 북평(北平)으로 이사가면 되잖아! 너...” 왕영감은 욕을 참았다.

“천진이 함락되면 그 다음이 바로 북평인데, 북평이라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복이 말했다. 이복의 태도는 모범적이었지만 말투는 조금 거만했다.

왕영감은 입만 크게 벌려대고 별다른 말은 하지 않은 채 한참을 있었다.

그럼 그냥 죽음을 기다려야 하나? 여기서 그냥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라는 말이냐? 누가 뜬눈으로 죽음을 기다리길 원하겠습니까?” 이복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저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으면 얼른 얘기해봐, 웃기는 왜 웃어? 너...” 왕영감은 다시 자신의 성질을 억눌렀다.

“경자년에 저는 아직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 경자년 얘기 좀 안할 수 없냐!”

“청장님, 뭐가 그리 급합니까!?” 이복은 갑자기 “청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고

56) 제국주의 국가가 불평등조약으로 식민지 국가를 강압하여 개항시킨 도시의 외국인 거주지

의적으로 농담을 하는 것만 같았다.

“경자년 그해에 팔국연합국이 북평을 점거하였는데, 저의 아버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래 의화단(義和團)이었습니다. 서양군대가 성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는 바로 하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일본군을 위해.....

가이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이드! 그들을 데리고 각 처로 다니면서 정확하게 공격하고 약탈할 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망국노(亡國奴)<sup>57)</sup>!” 왕영감이 얘기했다.

“망국노든 망국노가 아니든 저는 좋은 의도로 왕어르신께 아이디어를 드리는 것입니다. 왕어르신께서는 학식이 있는 신분으로 일본관아로 가 그들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아버지는 수준 낮은 사람이었지만 기회를 틈타 임기응변을 잘 하였습니다. 왕어르신의 지식은 제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왕어르신이 청나라에서도 관료였고 저는 왕어르신과 함께한지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맞지 않습니까? 원(袁)총통시대에도 관료였고 그 시절에 왕어르신의 관운이 지금보다 좋았습니다. 저는 모두 기억이 납니다. 어르신은 지금도 관료이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관료인데 왜 일본의 관료가 될 수 없겠습니까? 어르신이 관료로 있으시면 이복도 어르신을 따라서 배부르게 밥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헛소리 말아라! 나라를 팔 순 없다!” 왕영감은 조금 화가 났다.

“어르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게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왕영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복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해보라는 의미였다

“어르신이 기왕 매국노가 되고 싶지 않으시고, 충신이 되고 싶으시다면 집에 앉아서만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응당 청에 가서 인장을 지키고 계셔야 합니다. 《소무목양(蘇武牧羊)》<sup>58)</sup>, 《탁조팽비(托兆碰碑)》, 《영무관(寧武官)》은 제가 들어본 사람들인데 모두 충신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만약 저 사람들처럼 일을 처리하신다면 저의 이 개 같은 목숨 모두 어르신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뒷사람이 모범을 보이면 아랫사람이 본받는다라는 “상행하효(上行下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홍검(紅臉)역<sup>59)</sup>을 하든 백검(白臉)역<sup>60)</sup>을 하든 결국은 한 역을 할 텐데 어르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역시 마누라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너의 이 헛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왕영감이 얘기했다.

이복은 두 걸음 물러나 머리를 숙여 잠시 생각했다.

“그렇지 않다면 어르신 이렇게 하시지요. 경자년 그해에 팔국연합군이 막 제화문(齊化門)에 들어왔을 때 일본군이 가장 선봉에 있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일본군이

57) 나라를 잃고 침략국의 노예가 된 사람, “나라를 망가뜨리는 노예”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음.

58) 소무는 전한(前漢) 사람. 자는 자경(子卿). 무제의 천한원년(B.C. 100), 흉노에 사신으로 갔다가 붙들렸으나 결코 항복하지 않고, 북해로 옮겨져서 양을 치는 등 19년간 많은 고생을 함.

59) 홍검(중국 전통극에서 얼굴에 붉은 분장을 하는 충신·열사 등의 남자 배역)

60) 백검(중국 전통극에서 하얗게 분장하는 악역)



성에 들어왔다는 것을 듣자마자 바로 골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그는 마을사람들이 골목입구에 일본기를 높이 게양하도록 했습니다. 네모난 백색 천 중간에 연지(胭脂)를 발라 중간에 동그라미만 그리면 됩니다. 아주 쉬웠습니다. 일본기를 게양한 후 역시나 일본군대가 다른 골목들은 모두 공격하였지만, 우리 양미파(羊尾巴) 골목만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망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본군이 이미 왔습니다. 죽는 것 아니면 약탈당하는 것인데 그보다 항복기를 걸어놓으면 한바탕 공격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헛소리 말아라, 헛소리 마! 정말 화나 죽겠어! 이 망국노야!”

이복은 왕영감이 화가 난 것을 보고 기분을 잡친 채로 밖으로 나갔다.

“이복!” 왕영감의 부인이 위층에서 내려올 때 방금 있었던 대화를 들었다. “이복, 가서 흰색 천을 가지고 와, 연지는 거울함 안에 있어”

왕영감은 마누라를 잠깐 보고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찰나 소리가 났다.

“광!” 대포음이었다.

“이복, 희색 천을 빨리 가지고 와!” 왕영감은 소리쳤다.

1931년 11월 10일 《齐大月刊》 제2권 제2기에 실림

### <討論>

日本兵到了，向来不肯和仆人讲话的阔人，也改变得谦卑和蔼了许多，逃命是何等重要的事，没有仆人的帮助，这命怎能逃得成。在这种情形之下，王老爷向李福说了话：

“李福，厅里的汽车还叫得来吗？”王老爷是财政厅厅长，因为时局不靖，好几天没到厅里去了；可是在最后到厅的那天，把半年的薪水预支了来。

“外边的车大概不能进租界了。”李福说。

“出去总可以吧？向汽车行叫一辆好了。”王老爷急于逃命，只得牺牲了公家的自用汽车。

“铺子已然全关了门。”李福说。

“但是，”王老爷思索了半天才说。“但是，无论如何，我们得离开这日租界；等会儿，大兵到了，想走也走不开了！”

李福没作声。

王老爷又思索了会儿，有些无聊，还叹了口气：

“都是太太任性，非搬到日租界来不可；假如现在还在法界住，那用着这个急！怎么办？”

“老爷，日本兵不是要占全城吗？那么，各处就都变成日租界了，搬家不是白费——”

“不会搬到北平去呀？你——”王老爷没好意思骂出来。

“打下天津，就是北平，北平又怎那么可靠呢？”李福说，样子还很规矩，可是口气有点。

王老爷张了张嘴，没说什么。待了半天：

“那么，咱们等死？在这儿坐着等死？”

“谁愿意大睁白眼的等死呢？”李福微微一笑，“有主意！”

“有主意还不快说，你笑什么？你——”王老爷又压住自己的脾气。

“庚子那年，我还小呢——”

“先别又提你那个庚子！”

“厅长，别忙呀！”李福忽然用了“厅长”的称呼，好象是故意的耍笑。

“庚子那年，八国联军占了北平，我爸爸就一点也不怕，他本是义和团，听说洋兵进了城，他‘拍’的一下，不干了，去给日本兵当——当——”

“当向导。”

“对，向导！带着他们各处去抢好东西！”

“亡国奴！”王老爷说。

“亡国奴不亡国奴的，我这是好意，给老爷出个小主意，就凭老爷这点学问身分，到日本衙门去投效，准行！你瞧，我爸爸不过是个粗人，还能随机应变；你这一肚儿墨水，不比我爸爸强？反正老爷在前清也作官——我跟着老爷，快三十年了，是不是？——在袁总统的时候也作官——那时候老爷的官运比现在强，我记得——现在，你还作官；这可就该这么说了：反正是作官，为什么不可以作个日本官？老爷有官作呢，李福也跟着吃碗饱饭，是不是？”

“胡说！我不能卖国！”王老爷有点发怒了。

“老爷，你要这么说呢，李福也有个办法。”

王老爷点了点头，是叫李福往下说的意思。

“老爷既不作卖国贼；要作个忠臣，就不应当在家里坐着，应当到厅里去看着那颗印。《苏武牧羊》，《托兆碰碑》，《宁武关》，那都是忠臣，李福全听过。老爷愿意这么办，我破出这条狗命去陪着老爷！上行下效，有这么一句话没有？唱红脸的，还是唱白脸的，总得占一面，我听老爷的！”

“太太不叫我出去！”王老爷说：“我也没工夫听你这一套废话！”

李福退了两步，低头想了会儿：

“要不然，老爷，这么办：庚子那年，八国联军刚进了齐化门，日本高悬打前敌，老爷。我爸爸一听日本兵进了城，就给全胡同的人们出了主意。他叫他们在门口日本旗；一块白布，当中用胭脂涂个大红蛋，很容易。挂上以后，果然日本兵把别的胡同全抢了，就是没抢我们那条——羊尾巴胡同。现在，咱们跑是不容易了。日本兵到了呢，不杀也得抢；不如挂上顺民旗，先挡一阵！”

“别说了，别说了！你要把我气死！亡国奴！”

李福看老爷生了气，怪扫兴的要往外走。

“李福！”太太由楼上下来，她已听见了他们的讨论。“李福，去找块白布，镜盒里有胭脂。”

王老爷看了太太一眼，刚要说话，只听：

“咣！”一声大炮。

“李福，去找块白布，快！”王老爷喊。

载一九三一年十一月十日《齐大月刊》第二卷第二期

### 3. <어느 여름 한 주간(夏之一週間)>

나와 학계의 사람들은 일제히 겨울방학, 여름방학에서 “방학”글자를 빼고 겨울과 여름으로만 구분한다. “방학”이라는 글자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은 결코 내게 특별한 정(情)을 남기지 않는다. 하지만 인력거를 고는 사람, 경찰들,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무슨 원망을 품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방학은 역시 방학이기 때문에 2, 3분 늦게 일어나도 수업에는 문제가 없다. 학교 종소리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은 노예가 엄청난 자유를 받는 것과 같았다! 게다가 두 콧구멍이 분필가루의 괴롭힘을 받지 않아도 된다. 미안하다 내 콧구멍들아. 한 쌍의 콧구멍은 항상 함께 공기를 들이마시는데 아직 콧구멍 하나로만 들이마시려는 노력을 하진 못했다. 적지 않은 기간을 교원으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강의를 하였던 강의노트를 정리하고, 다음 학기의 새로운 교재를 준비한다. 이 과정에서 “념독서작(念读写作)<sup>65)</sup>”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불가하다는 자세로 충분히 노력한다. 그 외에 소설도 써야한다. 교원과 작가 또는 작가와 교원 어떻게 배열을 하든 겸업은 가장 유행하는 것이다. 이 중 한 가지 일만 하면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가 힘들다. 게다가 나는 또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다! 다행히 운 좋게도 교원과 운전기사 또는 작가와 백정을 동시에 직업으로 삼는 것은 아직 크게 성행을 하고 있지는 않다. 다행히 중국과 같이 이러한 문명국가에서 아직 이런 일이 성행되지 않고 있으니 염불을 외워야 하지 않겠는가?<sup>66)</sup>

자명종은 방학을 한 이후부터는 일하는 것을 멈춘다. 하지만 나는 방학 때는 6시 이후에는 일어나 본적이 없다. 소설의 인물들은 날이 밝기 전후로 머리 속에서 항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한다. 만약 전쟁이 한창인 때에 그들을 잡아 세우지 않는다면 그날 아니 2, 3일 정도는 그들을 순조롭게 부를 수가 없다. 당신이 얼마나 맛이 좋은 담배를 피던지 그들은 면전 앞에서 항상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러다 당신이 손을 내밀면 그들은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도망가 버린다.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데 소설을 쓰는 사람도 이와 같다.

이것은 결코 일찍 일어나면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나는 제남에 초복(初伏)이 오기 전까지 땀을 흘리지 않기로 계획했다. 제남을 떠나는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다. 이른 아침(早晨), 정오(晌午), 저녁(晩間), 밤중(夜里), 땀구멍은 강처럼 흐르고 쉬지 않는다. 당신이 눈을 깜빡하거나 고양이를 부르려고 소리 내는 그 순간 온몸에 땀이 난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땀을 적게 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펜을 들어 땀을 쫓기 위해서이다. 땀이 나는 작업은 사람들 모두 두려워하고, 땀도 그 일을 두려워한다. 한편으로는 쓰고 한편으로는 땀이 흐른다. 땀이 흐를수록 쓰는 일은 더욱 흥이 난다. 땀은 알고 있다. 당신이 땀과 결투하여 끝장을 볼 때 땀은 흐르

65) 고민하고, 읽고, 쓰고, 창작하는 것

66) 역자 주: 교원과 운전기사, 작가와 백정을 겸업하는 것은 아직 성행하지 않고 있으니 염불을 계속 외워 이 일이 계속해서 성행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됨.

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이 도리는 아마도 역경(易经)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데 나는 시간이 없어 아직 찾아보지 못했다.

여섯시부터 아홉시까지의 아마 5백자는 쓴다. 3천자를 쓸 수도 있다. 만약 따로 오는 손님이 없다면 말이다. 5백자도 좋고 3천자도 좋다. 이 정도면 아침의 작업은 마무리가 된다. 말할 가치가 있는 것은 5백자를 쓸 때는 3천자 쓸 때 보다 담배 7, 8개비를 더 핀다. 담배를 펴서 글의 구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영원히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문곡성(文曲星)<sup>67)</sup>에게 분향하여 제사라도 지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9시 이후에는 편지를 쓴다. 편지를! 항상 편지를 써야 한다. 우체부가 다시 1년 동안 파업하기를 희망한다! 요요원(澆澆院)의 꽃과 풀 그리고 고양이는 땅에서 한 차례 뒹군다. 나는 오 헨리<sup>68)</sup>의 책을 읽는다. 이렇게 한바탕 시골벽적하면 12시가 다된다. 그리고 나는 점심을 먹는다. 아마 냄새만 조금 맡을 수도 있다. 여름에 반찬과 밥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다.

식사 이후 낮잠을 잔다. 이 잠은 정말 큰 사건이 없는 이상 깨어날 수가 없다. 번개가 치거나 옆집의 부부가 싸움을 해서 물독이 담장을 넘어 날아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면 말이다. 단지 지진이 아니길 바란다. 비록 지진이 잠을 깨는 데에 분명 가장 효과적이지만 말이다. 깨어나면 강의노트를 정리해야 한다. 얼마나 하는가는 제한이 없고 매일 조금씩 한다. 저녁 6시가 되면 다시 밥을 먹는다. 식사 이후 제노대 화원에 가서 30분 정도를 걷는데 이것은 하루 중 척추를 펴는 특별히 허가된 시간이다. 24시간 중에 30분 정도 척추를 펴는 데 이 시간엔 마치 위생신(衛生神)의 묘술이 내 척추에 머무르는 것 같다. 가슴을 활짝 편 채 걷는 모습은 역시 장관이다. 가슴을 똑바로 펴고 있는 것이 맞는지 또 다른 문제라서 깊이 연구해보지는 않았다.

등을 피는 운동을 끝내고 집에 돌아갔다. 집안은 방금 구운 빵의 화로보다 얼마나 뜨거울까? 알 길이 없다. 온도계가 없기 때문이다. 집안의 모기가 아직 뜨거워 죽지 않은 것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샤워를 하고 정원에 잠깐 앉는다. 거리에서 사이다와 아이스크림을 파는 소리가 들린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자연스럽게 시원해지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사이다를 마시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는다. 자스민차는 내가 일 년 동안 마시는 유일한 음료인데 자스민차도 외국에서 사들여온 것은 마시지 않는다. 9시 전후로 잠이 든다. 얼마나 덥든지 나는 항상 눕는다. 어떤 때는 1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바로 잠이 든다. "신체가 약하면 잠을 많이 자야한다"는 것은 나의 격언(格言)이다. 한 숨에 내일까지 잔다. 내일 다시 일어나서 펜을 들어 땀을 쏟을 것이다.

1932년 9월 1일 《现代》 제5기에 실음

67) 중국신화 전설 속에서 문곡성(文曲星)은 글을 쓰는 데에 도움을 주는 존재

68) 오 헨리(O. Henry, 1862년 10월 11일 - 1910년 6월 5일), 미국의 작가.

## <夏之一周間>

我与学界的人们一同分润寒假暑假的“寒”与“暑”，“假”字与我老不发生关系似的。寒与暑并不因此而特别的留点情；可是，一想起拉车的，当巡警的，卖苦力气的，我还抱怨什么？而且假期到底是假期，晚起个三两分钟到底不会耽误了上堂；暂时不作铜铃的奴隶也总得算偌大的自由！况且没有粉笔面子的“双”薰——对不起，一对鼻孔总是一齐吸气，还没练成“单吸”的工夫，虽然作了不少年的教员。

整理已讲过的讲义，预备下学期的新教材，这把“念读写作，四者缺一不可”的工夫已作足。此外，还要写小说呢。教员兼作家，或作家兼教员，无论怎样排列吧，这是最时行的事。单干哪一行也不够养家的，况且我还养着一只小猫！幸而教员兼车夫，或作家兼屠户，还没大行开，这在象中国这么文明的国家里，还不该念佛？

闹钟的铃自一放学就停止了工作，可是没在六点后起来过，小说的人物总是在天亮左右便在脑中开了战事；设若不乘着打得正欢的时候把他们捉住，这一天，也许是两三天，不用打算妥当的调动他们，不管你吸多少校香烟，他们总是在面前耍鬼脸，及至你一伸手，他们全跑得连个影儿也看不见。早起的鸟捉住虫儿，写小说的也如此。

这决不是说早起可以少出一点汗。在济南的初伏以前而打算不出汗，除非离开济南。早晨，晌午，晚间，夜里，毛孔永远川流不息：只要你一眨巴眼，或叫声“环”——那只小猫——得，遍体生津。早起决不为少出汗，而是为拿起笔来把汗吓回去。出汗的工作是人人怕的，连汗的本身也怕。一边写，一边流汗；越流汗越写得起劲；汗知道你是与它拚个你死我活，它便不流了。这个道理或者可以从《易经》里找出来，但是我还没有工夫去检查。

自六点至九点，也许写成五百字，也许写成三千字，假如没有客人来的话。五百字也好，三千字也好，早晨的工作算是结束了。值得一说的是：写五百字比写三千的时候要多吸至少七八枝香烟，吸烟能助文思不永远灵验，是不是还应当多给文曲星烧股高香？

九点以后，写信——写信！老得写信！希望邮差再大罢工一年！——浇浇院中的草花，和小猫在地上滚一回，然后读欧·亨利。这一闹哄就快十二点了。吃午饭；也许只是闻一闻；夏天闻闻菜饭便可以饱了的。饭后，睡大觉，这一觉非遇见非常的事件是不能醒的。打大雷，邻居小夫妇吵架，把水缸从墙头掷过来，……只是不希望地震，虽然它准是最有效的。醒了，该弄讲义了，多少不拘，天天总弄出一点来。六点，又吃饭。饭后，到齐大的花园去走半点钟，这是一天中挺直脊骨的特许期间，廿四点钟内挺两刻钟的脊骨好象有什么卫生神术在其中似的，不过，挺着胸膛走到底是壮观的；究竟挺直了没有自然是另一问题，未便深究。

挺背运动完毕，回家。屋子里比烤面包的炉子的热度高着多少？无从知道，因为没有寒暑表。屋内的蚊子还没都被烤死呢，我放心了。洗个澡，在院中坐一会儿，听着街上卖汽水，冰激凌的吆喝。心静自然凉，我永远不喝汽水，不吃冰激凌；香片茶是我一年到头的唯一饮料，多嗜香片茶是由外洋贩来我便不喝了。九点钟前后就去睡，不管多

热，我永远的躺下（有时还没有十分躺好）便能入梦。身体弱多睡觉，是我的格言。一气睡到天明，又该起来拿笔吓走汗了。

过去的一周就是这么过去的；没读过一张报纸，不作亡国的事的，与作亡国的事的，或者都不大爱读新闻纸；我是哪一等人呢？良心上分吧。

载一九三二年九月一日《现代》第五期

#### 4. <하루(一天)>

종이 울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항상 6시 반에 울린다. 눈을 반쯤 뜨면 아직 햇빛이 창가를 비추고 있지는 않다. 자명종에 대한 믿음이 태양을 숭배하는 것으로 바뀌고,<sup>72)</sup> 다시 반쯤 뜬 눈을 감는다.

8시에 겨우 일어났다. 서둘러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은 후 아침을 먹었다. 밥을 먹은 후에는 글을 쓸 것이다.

아침을 먹은 후 하루의 첫 번째 담배를 피고 붓과 먹을 정리하였다. 그 즈음 빠른 우편이 도착했는데 가까운 친구 왕군(王君)이 제남을 경유한다고 했다. 역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붓과 먹을 놓고 한손으로는 단추를 메고 한손으로는 모자를 쓰며 달려 나갔다. 그런데 입구에 차가 한 대도 없다. 괜찮다. 골목길 어귀에는 항상 차가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빠른 걸음으로 몇 걸음 뛰어갔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가장 좋은 것은 그가 차에서 내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하루라도 묵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즐겁게 얘기도 하고 말이다. 골목 어귀에 도착했는데 차가 한 대도 없다. 기사들이 나를 위해 차를 모는 것이 두려운 것 같다.

다시 250미터를 넘게 뛰어서 차 한 대를 잡았다. 급하게 타고는 “진포역(津浦站)이요!” 라고 말했다. 차는 매우 빨리 달렸고 늦지 않을 것 같았다. 친구의 웃음 띤 얼굴과 반가운 목소리 그리고 그가 역 플랫폼에서 이쪽저쪽을 살피며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했다.

어쩐지 골목길에는 차가 없더라니 여기서 차가 많이 막히고 있었다. 늘어선 차는 끝이 보이지 않았고 거리에는 차로 꽉 차서 어떤 차도 움직일 수가 없다. 서쪽의 한 견직물집에 불이 났다. 나는 마음속으로 좁은 길로 돌아가기로 결정 했다. 여기서 이렇게 계속 기다릴 수는 없었다. 여기서 계속 기다리는 사람은 아마 바보일 것이다. 곧 기사에게 차를 돌려라고 말했다. 이 결정은 매우 결단력이 있고 현명해 보였다.

차는 작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때야 거리의 좋은 점이 생각났다. 그 작은 골목안의 차들은 촘촘하게 붙어 있을 뿐 아니라 절대 뒤로 물러갈 수도 없었다. 곧 다시 좋은 생각이 났다. 기사에게 돈을 주고 원숭이처럼 가볍게 뛰어내렸다. 이 도로 구간을 지나서 차 한대를 다시 잡으면 일을 그르치지 않고 늦어도 10분 정도 밖에 늦지 않을 것이다.

숨저고리의 안자락이 차에 걸려서 힘을 주어 당겼다. 두루마기는 없어도 그만이다. 좋은 친구를 만날 기회를 놓칠 순 없다! 두루마기가 크게 한 조각 찢어졌다. 또 힘을 너무 세게 주면서 내 팔꿈치가 엄마 품에 있는 아이에게 부딪혀 버렸다. 아이 엄마는 곧바로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욕을 해댔다.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모든 말들이 명백하게 내 귀에 들렸다. 마치 내가 무선 이어폰을 낀 것과 같았다. 아이는

72) 자명종을 꺼버리고 태양이 자신을 깨워주기를 바란다는 의미



기이하게 울었는데, 입이 마치 화산 입구처럼 벌려져 있었다. 눈물은 한 방울도 없었는데,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 외국에서는 모든 것이 “미안하다”는 말로 가능한데 중국에서는 장시간 사람들을 떠받쳐 주어야 한다. 주변에는 경찰 다섯 명, 노인들 한 무리, 여학생 두 명, 사탕 파는 사람 한 명, 스물 명이 넘는 청년들, 한 마리 황구가 있었는데 모두 나를 둘러싸서 조금의 틈도 없었다. 무슨 할 말이 없었다. 오직 우는 모습과 욕하는 것을 들어야만 했고, 주위에서는 내가 천둥 번개를 맞는 모습을 쳐다보며 희희덕 거렸다. 다행히도 사탕을 파는 사람이 성인이었다. 나를 향해 눈짓을 보냈다. 나도 마음이 급했기에 손놀림이 빨랐다. 빠르게 사탕을 한 움큼 움켜쥐고 우는 아이의 품에 안겨주었다. 화산의 입구가 즉시 닫혔다. 주위의 사람들은 모두 크게 실망했다. 사탕 값을 치루고 틈이 보이자마자 적들의 포위를 뚫고 나갔다.

역에 도착해서 중국여행사 직원을 만났다. 항상 너무나 상냥하고 게다가 눈은 매우 예리하다. 사실 나는 역에 많이 와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선생님 집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 직원이 말했다.

“사람을 마중나왔습니다!”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말이다. 벌써 10시가 되었다. 친구인 왕군에게는 아직 열차가 한 시간 늦게 출발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팠다. 거의 죽고 싶었다.

역에서 나왔다. 죽고 싶은 생각은 플랫폼에 떨어뜨리고 나온 것 같았다. 그래도 괜찮다. 집으로 가서 돌아가서 글이나 쓰자.

집에 도착하니 고양이가 지붕에 올라가 있었다. 처음 지붕에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해도 내려가질 않았다. 전씨(老田)은 나이가 60이 넘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머리가 어지러운데 당연히 완곡하게 거절했고 벽을 넘을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 나의 능력을 보라! 의로운 일에 적극적이고 담도 넘는다! 사실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건물의 반 정도 올라가다가 나도 모르게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노골적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전씨의 미소는 악의가 있는 것 같지만 나를 부축하는 그를 잡지 않을 수가 없다.

평소에 “구(球)”를 부르자마자 고양이는 내게 와서 작은 코로 냄새를 맡는다. 한편으로는 냄새를 맡고 한편으로는 킁킁거린다. 지붕위에 올라간 “구”와 땅위의 그는 매우 다르다. 내가 “구”를 부를수록 “구”는 뒤로 물러간다.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만약 앞을 향해서 계속 전진한다면 “구”는 지붕 꼭대기까지 갈 것이고 내가 “구(球)”의 모습으로 변할 것임을 말이다. 나는 듣기 좋은 말은 이미 충분히 했다. 말투는 아직 여자들에게 배우고는 있다. “이리 와, 귀여운 구야, 얼른 오렴, 보배야, 와서 간식 먹어.....” 같은 말들 말이다. 하지만 효과가 없다! 말을 하면 겁을 먹는다. 소용이 없다.

한 시간 정도를 귀찮게 하고 있는데 둘째누나가 왔다. 그녀가 “구야”라고 소리만 내었는데 “구”는 나를 아는 체도 안하고 내 머리를 교량 삼아 담장으로 뛰었다. 그리고는 내 등을 사다리 삼아 둘째누나의 품으로 바로 뛰어 들어갔다.

형제자매간에 둘째누나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다. 그녀의 가장 좋은 점은 나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글을 쓰는 것을 볼 때마다 그녀는 작은 소리도 내지 않는다. 내가 괜찮다고 그녀에게 몇 마디 말을 걸면 그녀는 즉시 멧쩍게 가버린다.

“둘째누나, 구랑 좀 놀다가. 나는 가서 글을 좀 쓸께” 내가 매우 친절하게 말했다.

“너 나한테 먼저 몇 자 좀 적어주라, 근데 바쁘지 않아?” 둘째 누나도 매우 상냥하게 얘기했다.

당연히 바쁘지 않다. 둘째누나는 본래부터 미움을 사지 않고, 가끔 나에게 몇 자를 적어달라고 하는 데 내가 거절할 수 있겠는가? 둘째 누나는 편지 한통을 써달라고 했다. 이것은 더욱 쉽다. 막 담장위에서 내려왔고 마침 연습 삼아 글을 써 손목을 좀 풀려고 했다.

둘째누나의 편지는 그녀의 시어머니의 외손녀의 수양 외할머니의 고종사촌형제의 조카사위의 것이었다. 둘째누나와 나는 먼저 반시간이 넘도록 고민해서 어떻게 그를 부를지 결정했다. 토론하는 과정 중 둘째누나는 시어머니, 시어머니의 외손녀, 외할머니, 고종사촌형제의 성격과 상호 관계를 조금 설명해 주었다. 누나가 막 외할머니가 광서년<sup>73)</sup> 28년에 어떻게 이가 하나 빠졌는지를 말할 때 전씨가 밥이 다 준비되었다고 말했다.

점심을 먹은 후 둘째누나는 먼저 좀 자겠다고 말했다. 깐 이후에 다시 나에게 내가 어떻게 그 편지를 써야할지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다.

나는 마음속이 편하지가 않았다. 그냥 수양 외할머니의 일은 한쪽에 묻어두고 가서 문장을 쓰려고 하면 분명 셰익스피어를 조카사위로 잘못 쓸 것이다. 다행히 둘째 누나는 한숨 잠을 자러 갔다.

둘째누나의 낮잠은 3시 반까지 이어졌고 그제서야 일어났다. 그녀는 매우 친절하게 사과했다. 어제 카드놀이를 많이 했단다. 어찌됐든 먼저 편지를 써야한다. 그런데 둘째누나가 갑자기 생각났다면서 그녀가 만약 동관이(东关李)집에 가면 조카사위의 형을 만날 수 있으니 편지를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둘째누나가 갔다. 나는 다시 처음부터 붓과 먹을 정리하고 전씨에게 좋은 차를 하나 끓여두라고 얘기했다. 외할머니들로부터 받은 마음속의 자극들을 몰아내기 위해서였다.

전씨는 차를 가지고 와서 얘기했다. 바깥에서 호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몇 월생인지 물어보았다. “정월초일(正月初一)<sup>74)</sup>!”이라고 그에게 얘기해 주었다.

모든 것은 전씨가 생각하기에 믿을 수 없는 일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토론 한번을 해야 했다. 그는 경찰에게 얘기했다. 그는 나의 생일에 대해 적지 않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기억하기에 내 생일은 삼월이었다. 어떻게 하더라도 정월초일이 될 수가 없었다. 경찰은 공산당의 비밀을 빼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 같

73) 청(淸) 덕종(德宗)의 연호(1875~1908)

74) 정월(正月)은 음력 1월임.

왔고 반드시 나를 직접 보고 면밀히 조사하려고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받지 않았다. 나는 정월과 삼월은 음력과 양력의 차이일 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는 개띠라고도 했다. 경찰은 내가 태어난 해의 설명(戌狗亥猪)을 듣고는 당연히 공산당은 잊어버렸다. 하지만 15분 넘게 나를 방해했다.

4시가 되었다. 잊어버리자. 그림 전람회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지만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림을 희생해야한다. 다시 붓을 들었다. 내가 펜을 드는 것이 허락되기만 한다면 만사형통이다. 나는 아무리 정신없는 일들을 보냈더라도 편안하게 글을 쓸 수 있다.

초인종이 울렸다. 편지가 여러 통 왔다. 편지를 두고 보지 않으면 편지에서 귀신이 나온단다. 첫 번째 편지는 양로원을 창설하는 기부에 관련된 것이었다. 두 번째 편지는 셋째 삼촌이 내게 양수선(洋水仙)<sup>75</sup>을 살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었다. 세 번째 편지는 주소는 정확하나 이름이 틀렸다. 열어봐야 하는 것인가?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편지봉투만 또 오랜 시간을 들여다봤다. 필적, 우편에 찍힌 도장을 자세하게 보았다. 설록홈스(福尔摩斯)의 추리법을 추가하였으나 별다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한쪽에 편지를 두었다. 네 번째 편지는 새로 나온 책의 목록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 보았다. 내가 보길 원하는 책은 없었다. 다섯 번째 편지는 친구가 일을 구하는 것을 부탁해서 급히 답장을 달라는 것이었다. 급하게 회신을 썼다. 편지와 병은 똑같다. 지체할수록 처리하기가 어렵다. 편지를 다 쓰고 났는데 우표가 부족했다. 일분(一分)짜리 우편이 모자랐다. 전씨를 불렀으나, 전씨는 조금 전 밖으로 나갔다. 내가 직접 한번 다녀와야겠다. 우체국이 멀지 않으니 말이다.

편지를 붙이니 날이 어두워졌다. 식사 전에는 글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으니 신문을 봐야겠다.

저녁식사 이후 배 두개를 먹었다. 소화를 시켜 빨리 문장을 쓰기 위해서였다. 배를 먹고 난 후에는 마침 우씨(老牛)가 최근 결혼한 여자와 동행하여 함께 집에 찾아왔다.

우씨의 좋은 점은 천성적으로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당신이 얼마나 바쁘지 상관하지 않고, 당신이 얼마나 불쾌한 표정을 지어도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는 만약 이야기를 시작하면 시간관념을 완전히 상실한다. 하지만 오늘은 그의 아내와 함께 왔으니 그가 절대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앉아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씨 부인의 좋은 점은 공교롭게도 우씨와 동일하다. 천성적으로 생각이 없다. 이것은 8시 반에 더욱 명확해졌다. 대략적으로 이 두 명은 우리 집에서 신혼여행을 보냈다. 내가 해볼 만한 방법은 다 해봤다. 예를 들어 나의 원고를 검토하고, 가짜로 하품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로 친구를 보러간다고 하고, 전씨에게 시계 줄을 정확하게 조정하라고도 하고, 그들이 언제 자는지도 물어보고, 계속 손목시계를 보기도 했다. 우씨와 부인은 누가 더 생각이 없는지 대회를 벌이고 있었다. 10시가 되었다. 두 사람은 갈 생각이 전혀 없어보였다.

---

75) 히아신스, 터키, 레바논 등 지중해 동부연안에서 나는 자주색 꽃

“우리 거리에 나가서 좀 걷는게 어때? 머리가 좀 아프네” 내가 이렇게 제안했다. 마음속으로는 그들과 함께 몇 걸음 걸은 후 돌아와서 2천자 정도의 글을 쓸 요량으로 말이다. 밤이 조용하고 인적이 드물면 글이 좀 더 빨리 써진다. 나는 본래부터 비관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들과 함께 잠깐 길을 걸은 후에 집에 들어왔는데 재채기가 났다. 전씨가 말하기를 분명 감기라고 했다. 곧 뜨거운 물을 끓이러 가면서, 나를 침대에 눕게 했고 또 아스피린을 먹게 했다. 전씨의 명령은 거역할 수가 없다. 내가 만약 잠을 자러 가지 않으면 그는 곧 의사를 불러올 것이다. 그래 좋다. 침대에 누워서 내일 날이 밝자마자 일어나 글을 쓰겠다고 생각을 했다. “전씨 내일 아침 5시에 알람을 맞춰 줘!”

전씨는 또 웃었다. 노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진심으로 그의 주둥이를 몇 대 때리고 싶어질 것이다.

몸은 과연 조금 굳어졌다. 그래 됐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빨리 자자! 두 눈을 질끈 감았지만 피곤하지는 않았다. 1, 2, 3, 4 숫자를 셸다. 셀수록 정신이 들었다. 대략 11시가 되었다. 전씨는 이미 기침을 멈추었다. 전씨가 잠이 들었으니 다시 일어나야 한다. 어쨌든 나는 아직 잠이 들지 않았고, 어찌 세월을 허비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어쩐지 이불이 따뜻하다. 잠깐만 있자. 잠깐만 5분만 더 있다가 일어나서 글을 쓰자. 배속이 조금 뜨거워 진다. 아스피린의 효과인지 편안하다. 마치 우씨가 돌아온 것 같다. 둘째누나, 귀여운 구.....

“일어나세요 여덟시에요!” 전씨는 창문 밖에서 소리쳤다.

“알람이 안 울렸나? 5시에 알람을 맞춰달라고 했잖아!?” 나는 방 안에서 화를 냈다.

“누가 안 맞춰놨습니까? 자명종 때문에 제가 깬습니다. 어제 추위에 떨고 열이 나서 귀가 멀었나봅니다! 예!?”

생명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닌 것 같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원고를 보내야 하는데 아직 한자도 쓰지를 못했다!

“전씨, 신문사에서 사람이 와서 원고를 재촉하지 않았어?”

“왔었습니다. 급할 필요는 없다고 하던데요. 신문사에서 어제 경찰들 때문에 문을 닫았답니다.”

1933년 1월 1일 《论语》 제8기에 실음

<一天>

闹钟应当，而且果然，在六点半响了。睁开半只眼，日光还没射到窗上；把对闹钟的信仰改为崇拜太阳，半只眼闭上了。

八点才起床。赶快梳洗，吃早饭，饭后好写点文章。

早饭吃过，吸着第一枝香烟，整理笔墨。来了封快信，好友王君路过济南，约在车站相见。放下笔墨，一手扣钮，一手戴帽，跑出去，门口没有一辆车；不要紧，紧跑几步，巷口总有车的。心里想着：和好友是何等的快乐；最好强迫他下车，在这儿住哪怕是一天呢，痛快的谈一谈。到了巷口，没一个车影，好象车夫都怕拉我似的。

又跑了半里多路才遇上了一辆，急忙坐上去，津浦站！车走得很快，决定误不了，又想象着好友的笑容与语声，和他怎样在月台上东张西望的盼我来。

怪不得巷口没车，原来都在这儿挤着呢，一眼望不到边，街上挤满了车，谁也不动。西边一家绸缎店失了火。心中马上就决定好，改走小路，不要在此死等，谁在这儿等着谁是傻瓜，马上告诉车夫绕道儿走，显出果断而聪明。

车进了小巷。这才想起在街上的好处：小巷里的车不但是挤住，而且无论如何再也退不出。马上就又想好主意，给了车夫一毛钱，似猿猴一样的轻巧跳下去。挤过这一段，再抓上一辆车，还可以不误事，就是晚也晚不过十来分钟。

棉袄的底襟挂在小车子上，用力扯，袍子可以不要，见好友的机会不可错过！袍子扯下一大块，用力过猛，肘部正好碰着在娘怀中的小儿。娘不加思索，冲口而成，凡是不爱听的都清清楚楚的送到耳中，好象我带着无线广播的耳机似的。孩子哭得奇，嘴张得象个火山口；没有一滴眼泪，说好话是无用的；凡是在外国可以用“对不起”了之的事，在中国是要长期抵抗的。四围的人——五个巡警，一群老头儿，两个女学生，一个卖糖的，二十多小伙子，一只黄狗——把我围得水泄不通；没有说话的，专门能看哭骂，笑嘻嘻的看着我挨雷。幸亏卖糖的是圣人，向我递了个眼神，我也心急手快，抓了一大把糖塞在小孩的怀中；火山口立刻封闭，四围的人皆大失望。给了糖钱，我见缝就钻，杀出重围。

到了车站，遇见中国旅行社的招待员。老那么和气而且眼睛那么尖，其实我并不常到车站，可是他能记得我，“先生取行李吗？”

“接人！”这是多余说，已经十点了，老王还没有叫火车晚开一个钟头的势力。

越想头皮越疼，几乎想要自杀。

出了车站，好象把自杀的念头遗落在月台上了。也好吧，赶快归去写文章。

到了家，小猫上了房；初次上房，怎么也下不来了。老田是六十多了，上台阶都发晕，自然婉谢不敏，不敢上墙。就看我的本事了，当仁不让，上墙！敢情事情都并不简单，你看，上到半腰，腿不晓得怎的会打起转来。不是颤而是公然的哆嗦。老田的微笑好象是恶意的，但是我还不能不仗着他扶我一把儿。

往常我一叫“球”，小猫就过来用小鼻子闻我，一边闻一边咕噜。上了房的“球”和地上的大不相同了，我越叫“球”，“球”越往后退。我知道，我要是一直的向前赶，“球”会退到房脊那面去，而我将要变成“球”。我的好话说多了，语气还是学着妇女的：“来，啊，小球，快来，好宝贝，快吃肝来……”无效！我急了，开始恫吓，没用。

磨烦了一点来钟，二姐来了，只叫了一声“球”，“球”并没理我，可是拿我的头作桥，一跳跳到了墙头，然后拿我的脊背当梯子，一直跳到二姐的怀中。

兄弟姐妹之间，二姐是我最好的朋友。她第一个好处便是不阻碍我的工作。每逢看

见我写字，她连一声都不出；我只要一客气，陪她谈几句，她立刻就搭讪着走出去。

“二姐，和球玩会儿，我去写点字。”我极亲热的说。

“你先给我写几个字吧，你不忙啊？”二姐极亲热的说。

墙当然我是不忙，二姐向来不讨人嫌，偶尔求我写几个字，还能驳回？

二姐是求我写封信。这更容易了。刚由墙上爬下来，正好先试试笔，稳稳腕子。

二姐的信是给她婆母的外甥女的干姥姥的姑舅兄弟的侄女婿的。二姐与我先决定了半点多钟怎样称呼他。在讨论的进程中，二姐把她婆母的、婆母的外甥女的、干姥姥的、姑舅兄弟的性格与相互的关系略微说明了一下，刚说到干姥姥怎么在光绪二十八年掉了一个牙，老田说吃午饭得了。

吃过午饭，二姐说先去睡个小盹，醒后再告诉我怎样写那封信。

我是心中搁不下事的，打算把干姥姥放在一旁而去写文章，一定会把莎士比亚写成外甥女婿。好在二姐只是去打一个小盹。

二姐的小盹打到三点半才醒，她很亲热的道歉，昨夜多打了四圈小牌。不管怎着吧，先写信。二姐想起来了，她要是到东关李家去，一定会见着那位侄女婿的哥哥，就不要写信了。

二姐走了。我开始从新整理笔墨，并且告诉老田泡一壶好茶，以便把干姥姥们从心中给刺激走。

老田把茶拿来，说，外边调查户口，问我几月的生日。“正月初一！”我告诉老田。

凡是老田认为不可信的事，他必要和别人讨论一番。他告诉巡警：他对我的生日颇有点怀疑，他记得是三月；不论如何也不能是正月初一。巡警起了疑，登时觉得有破获共产党机关的可能，非当面盘问我不可。我自然没被他们盘问短，我说正月与三月不过是陰陽历的差别，并且告诉他们我是属狗的。巡警一听到戌狗亥猪，当然把共产党忘了；又耽误了我一刻多钟。

整四点。忘了，图画展览会今天是末一天！但是，为写文章，牺牲了图画吧。又拿起笔来。只要许我拿起笔来，就万事亨通，我不怕在多么忙乱之后，也能安心写作。

门铃响了，信，好几封。放着信不看，信会闹鬼。第一封：创办老人院的捐启。第二封：三舅问我买洋水仙不买？第三封：地址对，姓名不对，是否应当打开？想了半天，看了信皮半天，笔迹，邮印，全细看过，加以福尔摩斯的判断法；没结果，放在一旁。第四封：新书目录，从头至尾看了一遍，没有我要看的书。第五封：友人求找事，急待答复。赶紧写回信，信和病一样，越耽误越难办。信写好，邮票不够了，只欠一分。叫老田，老田刚刚出去。自己跑一遭吧，反正邮局不远。

发了信，天黑了。饭前不应当写字，看看报吧。

晚饭后，吃了两个梨，为是有助于消化，好早些动手写文章。刚吃完梨，老牛同着新近结婚的夫人来了。

老牛的好处是天生来的没心没肺。他能不管你多么忙，也不管你的脸长到什么尺寸，他要是谈起来，便把时间观念完全忘掉。不过，今天是和新妇同来，我想他决不会坐那么大的工夫。

牛夫人的好处，恰巧和老牛一样，是天生来的没心没肺。我在八点半的时候就看明白了：大概这二位是在我这里度蜜月。我的方法都使尽了：看我的稿纸，打个假造的哈欠，造谣言说要去看朋友，叫老田上钟弦，问他们什么时候安寝，顺手看看手表……老牛和牛夫人决定赛开了谁是谁更没心没肺。十点了，两位连半点要走的意思都没有。

“咱们到街上走走，好不好？我有点头疼。”我这么提议，心里计划着：陪他们走几步，回来还可以写个两千多字，夜静人稀更写得快：我是向来不悲观的。

随着他们走了一程，回来进门就打喷嚏，老田一定说我是着了凉，马上就去倒开水，叫我上床，好吃阿司匹灵。老田的命令是不能违抗的，我要是一定不去睡，他登时就会去请医生。也好吧，躺在床上想好了主意明天一亮就起来写。“老田，把闹钟上到五点！”

老田又笑了，不好和老人闹气，不然的话，真想打他两个嘴巴。

身上果然有点发僵，算了吧，什么也不要想了，快睡！两眼闭死，可是不困，数一二三四，越数越有精神。大概有十一点了，老田已经停止了咳嗽。他睡了，我该起来了，反正是睡不着，何苦瞎耗光阴。被窝怪暖和的，忍一会儿再说，只忍五分钟，起来就写。肚里有点发热，阿司匹灵的功效，还倒舒服。似乎老牛又回来了，二姐，小球……

“起吧，八点了！”老田在窗外叫。

“没上闹钟吗？没告诉你上在五点上吗？”我在被窝里发怒。

“谁说没上呢，把我闹醒了；您大概是受了点寒，发烧，耳朵不大灵，嘘！”

生命似乎是不属于自己的，我叹了口气。稿子应该就发出了，还一个字没有呢！

“老田，报馆没来人催稿子吗？”

“来了，说请您不必忙了，报馆昨晚被巡警封了门。”

载一九三三年一月一日《论语》第八期

## 5. <낮잠의 풍조(晝寢的風潮)>

재여<sup>79)</sup>가 낮잠을 잔다. 공자 왈: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 학생들은 말이 없었고 자로와 자공이 일제히 지르는 소리를 들을 뿐이었다. “파시스트!”

공자(夫子)가 노기를 숨기고 가벼운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모두 소리 질렀다. “파시스트!”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면 아는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다. 이것이 아는 것이다.”

사람들은 세 번째 소리쳤다. “파시스트!”

공자는 진짜 화를 냈다. 냉소를 한번 짓고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버렸다. 마음속으로 이런 저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많은 세월을 지식을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결국에는 파시스트가 되어 버렸구나. 생각할수록 힘들구나. 노자에게 가르침을 구해야겠다.”

노자를 만나 전말을 상세히 얘기했다. 노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공자야(老二), 뽀뽀이구나!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모든 일은 무위이치(无为而治)<sup>80)</sup>라고 말이다. 누가 너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그렇게 관여하라고 하더냐? 파시스트, 그런 꼴을 당해도 싸구나!”

그럼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잠을 자면 제가 이불을 덮어주어야 합니까? 공자는 반항하였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냐? 그들을 관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노자가 말했다.

그가 깨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깨어나면 그에게 졸업증서를 발급하면 되지 않느냐.

공자는 교육에 적극적이었고, 그저 대충대충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지만, 노자는 확실히 세상물정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돌아갔다.

학교에 도착하니 어이없게도 곳곳에 표어가 붙어있었다. “파시즘에 물든 공자(孔老二)<sup>81)</sup>를 타도하자.” 공자는 이 풍조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노자의 묘책을 사용해보기로 했다. 그는 조용히 후문으로 들어갔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몇 장의 졸업증서를 만든 후 미소를 띤 모습으로 재여(宰予)와 자로(子路)를 찾았다. 그들과 만났을 때 재여(宰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친구여, 이 졸업증서를 들고 가시게. 그리고 저녁에도 수업을 듣기 원하지 않을텐데, 내가 그대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자하네 어떤가?”

79) 공자의 제자 중 한사람. 노나라 사람으로, 자는 자아(子我) 또는 재아(宰我)라고 불렸다. 공자보다는 29세가 어렸으며 언변에 능했다고 알려졌다.

80) 자연에 순응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천하가 저절로 잘 다스려지는 것을 의미함.

81) 공로이(孔老二)는 공가의 차남이라는 의미로 공자를 낮춰부르는 명칭이다.



제자들의 얼굴에는 좋아하는 기색이 없었다. 자로가 학생들을 대표하여 말했다. “우리는 당신에게 명령하니 내일 우리를 위해 여학생을 추가 모집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두 번 다시 시험을 쳐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낮잠은 반드시 필수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재여에게 서면으로 사과하십시오”

공자는 요구사항 하나하나에 다 동의했다. 그리고 바로 재여에게 서면으로 사과의 뜻을 표했다. 이렇게하여 한바탕 풍랑은 더 커지지 않았다. 이후 재여 등은 72현(七十二賢)<sup>82)</sup>에 들었고, 공자는 죽을 때까지 파시즘의 오명을 쓰지 않았다.

1933년 1월 16일 《论语》 제9기에 실음

### <晝寢의風潮>

宰予昼寢。子曰：朽木不可雕也——言犹未了，只听得子路子贡.....齐声呐喊：法西斯蒂！

夫子暗藏怒气，轻声问道：何谓也？

大家齐喊：法西斯蒂！

夫子微笑道：知之为知之，不知为不知，是知也！

大家第三次喊道：法西斯蒂！

夫子真动了气，冷笑了一声，翼翼如也，走了出去。心中乱想：设想到教了这么多年书，卖了这么大力气，临完来个法西斯蒂。越想越难过，只好去请教于老子。

见了老子细说始末，老子微微一笑，道：老二，该！我没告诉过你么，凡事要无为而治，谁叫你爱管闲事？法西斯蒂，活该！

难道学生睡觉，我还得给他盖上点被子么？夫子反抗。

谁那么说来着？不要管他好了，老子说。

他醒了呢？

醒了之后发给他毕业证书，好啦。

夫子虽然热心教育，不肯马马虎虎，可是到底觉得老子对人情世故是极有经验的，于是翼翼如也走回来。

到了学校，喝，贴满了标语：打倒法西斯蒂化的孔老二。夫子知道风潮是要扩大，决定采取老子的妙策。他偷偷的进了后门，到自己屋中填好几张毕业证书，然后笑嘻嘻的来找宰予子路们。找到了他们，他拍着宰予的肩头，说：朋友，请拿去这证书吧；晚半天也不要上课了，我请大家吃个便饭，如何？

诸贤脸上并无喜色，由子路代表发言：我们命令你明天给我们添招女生，这是一；第二，以后再不准有考试；第三，昼寢定为必修课程；末了，向宰予在书面上道歉。

夫子一一的答应了，登时向宰予作书面上的致歉。这样，一场风波算是没有扩大，

82) 공자(孔子)의 제자 가운데 뛰어난 국가감 문묘(文廟)에는 공자와 함께 이들을 제사하였음. 72현의 72는 많은 수를 뜻하기도 하여 반드시 72인에 국한되지 않았음.(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后来宰予等就成了七十二贤，而夫子至死也没法西斯蒂化。

载一九三三年一月十六日《论语》第九期

## 6. <유머가 유말(油抹: 기름칠)로 변할 때(当幽默變成油抹)>

소이(小二)와 소삼(小三)은 질리게 놀았다. 땅에 떨어진 땅콩의 뽀족한 끝부분을 물어서 조금 뜯어내고, 낫 볼에 끼워넣어 귀걸이로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더는 할 수가 없었다. 귀걸이를 어떻게 끼우는지 몰라서 땅콩이 모두 그들의 배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아직까진 땅콩을 다 먹은 후 다시 그것을 꺼내서 귀걸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다!)

《어린이세계(儿童世界)》의 삽화도 모두 봤지만 만족할 만한 한 장의 그림도 없었다. 소이가 보기에 왕가(王家)의 소오(小五)를 거북이로 그리는 그림이어야 좋은 그림이지만 삽화에는 이러한 그림이 없다. 소이와 왕가의 소오(小五)는 얼마 전 다투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싸운 것이 아니었다. 소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소오가 잘못된 것도 아니었다. 그럼 누구의 잘못인가? 아는 사람은 없다.

“소삼, 니가 말 할래?” 소삼은 이 때 무엇이랴도 하고 싶어 했는데 단지 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면 개 흥내를 내면서 싸우는 놀이할까?” 소이는 다시 아이디어를 냈다. “그래 좋지, 하지만 진짜 귀를 무는거야?” 소삼은 하기 전에 확실히 했다. 소이의 귀를 물어버리면 그가 엄마에게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귀를 물면 어떻게 땅콩을 귀에 끼워서 귀걸이로 만들어? 소이는 원하지 않았다. “전통극 놀이할까? 좋아 전통극 놀이하자. 하지만 먼저 아빠와 엄마가 뭘 하고 계시는지 봐야해” 아빠가 집에 안계시면 조용히 가서 그의 잡지 몇 개를 뒤질 수 있다. 좋은 그림이 있으면 한, 두 장 뜯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전통극 놀이를 할 것이다.

아빠와 엄마는 서재에 있었다. 아빠의 손안에는 얇은 잡지가 하나 들려 있었지만 보고 있지는 않았다. 엄마의 손안에는 몇 개의 실이 들려 있었는데 뭔가를 짜고 있지는 않았다.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다. 소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어른들도 참 재미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빠가 왜 책을 들고 보지 않고 엄마가 왜 실을 가지고 뜨개질을 하지 않겠어?”

아빠가 말했다. “정말 유머스럽군(真幽默), 정말 유머스러워(真幽默)!” 아빠의 웃음 주름이 거의 귀까지 닿았다.

요 몇 일간 아빠는 자주 그러한 얇은 미색표지의 책을 들고 유머를 얘기했다.

소이와 소삼은 자연스럽게 유머(幽默)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게다가 유머가 아니라 “유말(油抹)<sup>87)</sup>”로 알아들었다. “유말”이 도대체 뭐가 재미있단 말이야? 소삼은 사실 이전에 옷소매 구멍에 유말(기름칠)을 해서 한차례 맞은 적이 있었다! 어른들은 유말을 해도 맞지 않고 오히려 희희덕 거리니 정말 공평하지 않아!

아버지는 읽고 또 읽으며 한편으로는 히죽히죽거리며 눈에는 가끔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고 어떤 때는 구절을 마저 읽지도 않았는데 하하 거리며 웃어댔다. 엄마도 아빠와 함께 하하하 웃었다. 아빠가 “자색 사슴(紫鹿)”이나 무슨 “삼민주의(三民主

87) 幽默(yōumò)와 油抹(yóumǒ) 의 병음이 같으나 성조가 달라 전혀 다른 의미이다. 본문에서 중국어의 병음이 같이 때문에 형제가 아버지가 말한 幽默(yōumò)를 油抹(yóumǒ)로 잘못 이해하였다. 幽默는 “재미있다. 유머스럽다.”라는 의미이지만 油抹은 “기름칠 하다.”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父)와 같은 단어를 말하고는 곧바로 하하하 웃어댔다. 하나도 재미가 없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재밌게 웃었다.

가서 그 책이 무엇인지 보기로 결정했다. 아버지는 그들이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여기서 방해하지 말고 저기 가서 놀아라!” 엄마도 말했다. “놀러 가거라, 아버지가 다 읽고 난 다음 들어와라!” 이 작은 책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중요한 것 같았다. 아마 아버지와 어머니는 배부르게 먹었나 보다. 엄마는 자주 아이들이 밥을 많이 먹으면 제멋대로 군다고 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도 이와 같았다.

한나절을 읽고 아버지는 시계를 보았다. 그러고는 작은 책의 한 쪽을 찢고, 매우 조심스럽게 사무용 테이블의 서랍 안에 두었다. “저녁에 다시 와서 읽겠소. 나갈 시간이 되었소”

“한 단락만 더 읽어 줘요!” 엄마는 한나절동안 뜨개질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또 다시 한 단락을 읽어달라고 한다. 정말 부끄럽다! 소삼은 마음속으로 손가락 끝을 불에 대고 놀렸다. “얼레리 꼴레리!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88!”

“저녁에, 저녁에! 어쩌면 제10기(第十期)를 사올 수도 있어!” 아버지는 여전히 웃으면서 말했다.

아빠는 정원에 나가서까지 여전히 하하하 웃었다. 아버지는 확실히 밥을 많이 먹었다.

어머니는 바느질 용품을 가지고 정원으로 나갔다.

소이와 소삼은 “건드리지 말아야할 아버지의 책”을 범하기로 결정했다. 어머니가 조금 멀리 갔을 때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하 보배책”을 꺼냈다. 그들은 모두 엄지를 입속에 넣고 빨면서 조심스럽게 사람을 웃게 만드는 귀신을 대면했다. 그들은 책안에는 반드시 귀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귀신은 아마 “유말(油抹)”이라는 귀신일 것이다. 사람이 유말귀신을 보기만하면 바로 희희덕 거리거나 하하하 웃게 된다. 오랜 시간을 찾았는데 책의 모든 내용은 검은색 글자였다! 하나의 그림이 있었는데 무슨 그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작은 토끼가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작은 개가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 어떤 형체도 아니었다! “이게 뭐가 재미있어? 글자와 이러한 그림이 만약 그렇게 재미있는 그림이라면 왜 어머니는 우리가 벽에 낙서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지?”

“우리 그냥 전통극 놀이 하러 가자?” 소삼은 인내할 수 없었다.

“소삼, 봐봐 아버지가 못 만지게 했던 작은 상자가 여기에 있는데 몰래 볼래?” 소이는 건의했다.

“이미 책도 훑쳐보았는데 작은 상자를 훑쳐보지 못 할 이유가 있어? 어차피 맞아도 한번이잖아.” 소삼의 생각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

88) 黑老道는 나무에서 서식하는 하얀 애벌레 같은 유충임. 当间儿画个黑老道는 직역하면 정중앙에 “黑老道를 그렸다.” 여기서는 얼굴에

작은 상자를 조심히 열었다. 안에는 치약 통 같은 통이 여러 겹 쌓여 있었는데 일반 치약 통 보다는 조금 가늘었다. 소이는 통 마개를 돌리고 찼는데 매끈매끈하고 가느다란 붉은 벌레<sup>89)</sup>가 올라왔다. 와우 재미있다! 소삼의 눈은 구리 동전모양처럼 동그랗게 커지고 또 밝아졌다. “이리 와바, 내가 하나 짜 볼게!” 그는 다른 통을 하나 잡고 찼는데 이번에는 청녹색 벌레가 올라 왔다.

한통 한통 모든 통을 다 찼다. 여러 가지 색이 모두 있었고 정말 재미가 있었다. 소이는 상자안의 펜 한 자루를 들고 그 펜에 붉은 색 액을 발랐고 이(牙)에 비비려고 했다.

“소이, 하지만 만약 아빠의 동상약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럴리 없어, 동상약은 어머니의 서랍 안에 있잖아”

“기다려 약이 아니라도 만약에…… 만약에……” 소삼은 오랫동안 생각을 했지만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럼 이렇게 하자, 소삼, 이 통들을 모두 책상 위에다 놓고 화검<sup>90)</sup>으로 분장을 하는 게 어때?”

“그 때 너와 아빠가 들었던 그 노래가 뭐였지? 그 노래를 부르자” 소삼의 희극지식은 그저 소이에게 있는 그 정도였다.

“화검이 있던 그거? 뭐더라…… 뭐더라…… 《황학루(黄鹤楼)》!”

“《황학루(黄鹤楼)》를 부르자! 니가 빨간 얼굴로 분장하고, 나는 녹색 얼굴로 분장할게. (수군수군수군)……”

“《황학루(黄鹤楼)》안에는 녹색 얼굴이 없어!” 소이는 분장에 대해서는 소삼에게 발언권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냥 녹색얼굴이 있는 걸로 하자! 길거리 상점의 점토 인형에는 녹색 얼굴이 있었어”

둘은 통 안의 작은 벌레를 찼는데 길면 길수록 좋았고 그 후 펜을 이용해서 얼굴에 발랐다.

“소이 내가 이건 치약이 아니라고 했잖아. 봐봐 반질반질 하잖아. 와아! 얼굴에 칠하니 까매진 것이 정말 답답하다!”

“그만 얘기해. 너의 입이 계속 움직이면 내가 어떻게 분장을 해줘!?” 소이는 소삼의 뺨 위에 자색으로 선을 긋고 있었다. 소삼은 녹색분장을 하길 원했지만 말이다.

이렇게 분장을 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아버지가 막 들어오셨다!

“너희 지금 뭐하고 있는거냐!? 뭐하고 있는 거냐고!”

“저희……” 소이는 당황해서 펜을 소삼의 머리위에 두었다.

소삼은 눈을 감고 소이가 눈썹을 다 그려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막 눈을 떴다.

“너희들 뭐하는 거냐고!?” 아버지는 화가 나서 이야기 했다 “한 상자에 20위안이 넘는 기름을 가지고!”

89) 치약과 같은 고체가 통에서 나오는 모습을 벌레가 나온다고 표현하였다.(挤出滑溜溜的一条小红虫来)

90) 화검(중국 전통극의 ‘净角(용맹하고 강렬하거나 난폭하고 간사한 남자 배역)’의 통칭. 반드시 배역 성격에 따라 얼굴을 분장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

“맞아요 아버지 저희는 여기서 “유말”을 하고 있었어요!” 소삼은 기름칠 때문에 얼굴이 답답해서 자신의 볼을 긁으면서 얘기했다.

“무슨 유말 말이냐?”

“아버지가 이 작은 책을 볼 때 어머니에게 ‘정말 유말스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도 웃으시고 어머니도 웃으셨잖아요?”

“이 작은 책 말이냐?” 아버지는 책상위에 있는 작은 책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 부터는 《논어》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다. 단번에 의자에 앉으셔서는 노기등등하게 자신도 모르게 호주머니에서 작은 책을 하나 꺼냈는데 책상위에 있는 책과 같은 책이었다.

아버지가 새로 사온 책을 보는 기회를 이용하여 소이와 소삼은 너나 할 것 없이 달라붙어 통을 상자 안에 넣었고 소삼은 머리 위에 있던 펜도 함께 넣었다.

아버지는 다시 책에 빠져 들었고 입 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소이, 소삼은 《황학루》를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없었고 또한 그곳을 떠날 수도 없었다. 아버지의 처벌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다시 웃었고 자신의 다리를 치며 말했다. “정말 유머스럽군!”

소삼은 소이의 귀를 물고 얘기했다. “아버지는 유말(기름칠)한 척만 한 것이야. 우리가 오늘 한 것이 진짜 유말(기름칠)이야!”

1933년 2월 16일 《论语》 제11기에 실음

#### <当幽默變成油抹>

小二小三玩膩了：把落花生的尖端咬开一点，夹住耳唇当坠子，已经不能再作，因为耳坠不晓得是怎回事，全到了他们肚里去；还没有人能把花生吃完再拿它当耳坠！《儿童世界》上的插图也全看完了，没有一张满意的，因为据小二看，画着王家小五是王八的才能算好画，可是插画里没有这么一张。小二和王家小五前天打了一架，什么也不因为，并且一点不是小二的错，一点也不是小五的错；谁的错呢？没人知道。“小三，你当马吧？”小三这时节似乎什么也愿意干，只是不愿意当马。“再不然，咱们学狗打架玩？”小二又出了主意。“也好，可是得真咬耳朵？”小三愿事先问好，以免咬了小二的耳朵而去告诉妈妈。咬了耳朵还怎么再夹上花生当耳坠呢？小二不愿意。唱戏吧？好，唱戏。但是，先看看爸和妈干什么呢。假如爸不在家，正好偷偷的翻翻他那些杂志，有好看的图画可以撕下一两张来；然后再唱戏。

爸和妈都在书房里。爸手里拿着本薄杂志，可是没看；妈手里拿着些毛绳，可是没织；他们全笑呢。小二心里说大人也是好玩呀，不然，爸为什么拿着书不看，妈为什么拿着线不织？

爸说：“真幽默，哎呀，真幽默！”爸嘴上的笑纹几乎通到耳根上去。

这几天爸常拿着那么一薄本米色皮的小书喊幽默。

小二小三自然是懂什么叫幽默，而听成了油抹；可是油抹有什么可笑呢？小三不是为把油抹在袖口上挨过一顿打吗！大人油抹就不挨打而嘻嘻，不公道！

爸念了，一边念一边嘻嘻，眼睛有时候象要落泪，有时候一句还没念完，嘴里便哈哈大笑。妈也跟着嘻嘻。念的什么路子——小三听成了紫鹿——又是什么三民主义，而后嘻嘻——一点也不可笑，而爸与妈偏嘻嘻！

决定过去看看那小本是什么。爸不叫他们看：“别这儿捣乱，一边儿玩去！”妈也说：“玩去，等爸念完再来！”好象这个小薄本比什么都重要似的！也许爸和妈都吃多了；妈常说小孩子吃多了就胡闹，爸与妈也是如此。

念了半天，爸看了看表，然后把小本折好了一页，极小心的放在写字台的抽屉里：“晚上再念；得出门了。”

“再念一段！”妈这半天连一针活也没作，还说再念一段呢，真不害羞！小三心里的小手指头直在脸上削，“没羞没臊，当间儿画个黑老道！”

“晚上，晚上！凑巧还许把第十期买来呢！”爸说，还是笑着。

爸爸走了，走到院里还嘻嘻呢；爸是吃多了！

妈拿着活计到里院去了。

小二小三决定要犯犯“不准动爸的书”的戒命。等妈走远了，轻轻的开了抽屉，拿出那本叫爸和妈嘻嘻的宝贝。他们全把大拇指放在嘴里咂着，大气不出的去找那招人笑的小鬼。他们以为书中必是有点小鬼，这个小鬼也许就叫做油抹。人一见油抹就要嘻嘻，或是哈哈。找了半天，一篇一篇全是黑字！有一张画，看不懂是什么，即不是小兔搬家，又不是小狗成亲，简直的什么也不象！这就可乐呀？字和这样的画要是可乐，为什么妈不许我们在墙上写字画图呢？

“咱们还是唱戏去吧？”小三不耐烦了。

“小三，看，这个小盒也在这儿呢，爸不许咱们动，楞偷偷的看看？”小二建议。

已经偷看了书，为什么不再偷看看小盒？就是挨打也是一顿。小三想的很精密。

把小盒轻轻打开，喝，里边一管挨着一管，都是刷牙膏，可是比刷牙膏的管小些细些。小二把小铅盖转了转，挤，咕——挤出滑溜溜的一条小红虫来，哎呀有趣！小三的眼睁得象两个新铜子，又亮又圆。“来，我挤一个！”他另拿了管，咕——挤出条碧绿的小虫来。

一管一管，全挤过了，什么颜色的也有，真好玩！小二拿起盒里的一支小硬笔，往笔上挤了些红膏，要往牙上擦。

“小二，别，万一这是爸的冻疮药呢？”

“不能，冻疮药在妈的抽屉里呢。”

“等等，不是药，也许呀，也许呀——”小三想了半天想不出是什么。

“这么着吧，小三，把小管全挤在桌上，咱们打花脸吧？”

“唱——那天你和爸听什么来着？”小三的戏剧知识只是由小二得来的那些。

“有花脸的那个？嘀咕的嘀咕嘀咕！《黄鹤楼》！”

“就唱《黄鹤楼》吧！你打红脸，我打绿脸。嘀咕——”

“《黄鹤楼》里没有绿脸！”小二觉得小三对扮戏是没发言权的。

“假装的有个绿脸就得了吗！糖挑上的泥人戏出就有绿脸的。”

两个把管里的小虫全挤得越长越好，而后用小硬笔往脸上抹。

“小二，我说这不是牙膏，你瞧，还油亮油亮的呢。喝，抹在脸上有点漆得慌！”

“别说话；你的嘴直动，我怎给你画呀？！”小二给小三的腮上打些紫道，虽然小三是要打绿脸。

正这么打脸，设想到，爸回来了！

“你们俩干什么呢？干什么呢！”

“我们——”小二一慌把小刷子放在小三的头上。

小三，正闭着眼等小二给画眉毛，睁开了眼。

“你们干什么？！”爸是动了气：“二十多块一盒的油！”

“对啦，爸，我们这儿油抹呢！”小三直抓腮部，因为油漆得不好受。

“什么油抹呀？”

“不是爸看这本小书的时候，跟妈说，真油抹，爸笑妈也笑吗？”

“这本小书？”爸指着桌上那本说：“从此不再看《论语》！”

爸真生了气。一下子坐在椅子上，气哼哼的，不自觉的，从衣袋里掏出一本小书——样子和桌上那本一样。

乘着爸看新买来的小书，小二小三七手八脚把小管全收在盒里，小三从头上揭下小笔，也放进去。

爸又看入了神，嘴角又慢慢往上弯。小二们的《黄鹤楼》是不敢唱了，可也不敢走开，敬候着爸的发落。

爸又喀嘻了，拍了大腿一下：“真幽默！”

小三向小二咬耳朵：“爸是假装油抹，咱们才是真油抹呢！”

载一九三三年二月十六日《论语》第十一期



## 7. <천리길 멀지라도 간다(不遠千裏而來)>

유관(榆关)<sup>91)</sup>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선생은 곧 결혼을 하고 싶었다. 어디에서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이 좋을까? 천진과 북평은 당연히 길한 땅이 아니고 홍콩(香港)은 너무 멀어서 별로다. 게다가 아직 배우자도 찾지 못했다. 먼저 배우자를 찾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도 지역의 문제가 있다. 어디서 찾을까? 전란으로 세상이 어수선한 지방에서 여자를 찾는 것은 쉽지만 혼인이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대충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역시 춤과 노래가 있는 지방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왕선생은 북평을 떠났다. 일본귀신 놈들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왕선생은 차표를 사지 못했다. 동역, 서역 두 역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상제가 역 플랫폼에서 그들을 막 지은 것 같았다. 거기 있는 누구도 다른 곳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플랫폼과 기차만이 성지(圣地)라서 사람들은 모두 그곳에 박혀 있었다. 왕선생은 동역에서 출발하든지 아니면 서역에서 출발하든지 개의치 않았는데 아직 목적지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어딜 가든지 같으니 북평만 피하면 돼. 일본을 두려워 하는 사람은 곧 소다. 하지만 만약 왕선생이 위험을 당한다면 누가 시집을 오겠는가? 동역도 좋고 서역도 좋으니 어쨌든 가자. 표를 사도 갈 것이고 못 사도 갈 것이다. 가다보면 길한 땅이 있을 것이다.

왕 선생은 급한 가운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물품보관소에 가서 자신에게 물품번호표를 붙이는 것이었다. 내 자신이 짐이 되면 당연히 차표를 살 필요가 없어진다. 하지만 물품보관소에서는 공교롭게도 다리가 딸린 짐은 받지 않았다! 어떻게 말해도 불가능했다. 왕 선생은 그저 물품보관소의 직원이 이성이 없다고 욕하는 방법 외엔 별다른 수가 없었다.

뜻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다. 왕선생은 뜻이 없는 쓸모없는 폐물이 아니었다. 그는 정양문(正陽門)에서 전차를 타고 서직문(西直門)으로 갔다. 거기서 듣자하니 원래 서직문 역은 평수로(平绥路)<sup>92)</sup>였다. 왕선생은 스스로 경험을 쌓는 것을 좋아하고 게다가 불안한 시대의 형국이 영웅을 만든다는 말을 깊이 믿었다. 만약 그가 친히 서직문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는 기차에 고정된 노선이 있고 임의로 경로를 이탈해 놀러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북방일대가 모두 길한 땅(吉地)이 아니고 이 노선은 걸어서 갈 수가 없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그로 하여금 조금 통과하지 못하게 하였다.

어디로 가야 하나? 아니다. 이것은 어디로 가야하는지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탈 수 있는 기차가 있느냐는 것이다. 역시 동역이나 서역에 가야한다. 만약 기차를 영원히 몰지 않아도 그만이다. 기차가 출발해야만 왕선생이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과일과 간식 그리고 술을 조금 사서 역에 가서 장기적으로 차를 기다리기로

91) 고지명(古地名)이며 오늘날 허북성(河北省) 중무현(中牟縣) 남쪽 부근이다.

92) 공산당이 국민당과 전쟁을 치를 때 근거지로 활용하였던 곳

했다. “이 놈아, 이 왕 어른과 넌 눈을 감았다, 꼭 가고 말 것이다. 기차 굴뚝에 앉아서라도 가고 말것이다!” 왕선생은 기차를 향해 맹세했다.”

동역에 다시 돌아왔다. 동역은 보기에 서역보다 체면이 좀 선다. 신량이 될 준비를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체면을 잘 세워야 한다. 5시간을 기다렸는데 플랫폼의 문을 통과할 수 없었다. 왕 선생은 마음이 급했지만 머리로는 여전히 분명하게 생각했다. “기다리기만 하면 반드시 방법이 생길거야. 게다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일본군이 움직이더라도 결국 기차역과 가까우면 도망갈 수 있는 희망이 있어. 예를 들어 총소리가 나면 기관사가 바로 열차를 몰아 도망가지 않겠어? 그럼 나도 뛰어서 열차를 타면 함께 도망갈 수 있잖아? 그러면 표도 필요 없어. 일단 도망가면 천진까지 갈 것이고, 기관사가 기차를 영국 조계(英租界) 여관 앞까지 차를 몰 것 이야. 그럼 차에서 뛰어 내려 순식간에 여관에 들어갈 것이다. 커피를 마시고, 얼굴을 닦고, 차가 다시 출발하면 곧 남경이거나 상해일 것이다.” “오늘 밤 전후로 관청의 등이 밝을 것이고……” 왕선생은 이황(二簧)<sup>93)</sup>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다시 3시간을 기다렸고, 왕선생은 알고 있는 이황을 모두 노래했는데 여전히 플랫폼에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갈수록 많아졌고, 사람들에게 밀려 왕선생이 가지고 있던 사과 하나도 박살나 버렸다. 하지만 사람이 많아질수록 왕선생의 마음은 더욱 기뻐졌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많으면 더욱 대담해질 수 있었고, 밤이 늦어져도 귀신이 무섭지 않았다. 두 번째는 사람이 많아지면 폭탄이 떨어져 가루가 되어도 나 혼자 죽지 않아 저승 가는 길이 적막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는 왕선생이 온 이후에 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왕선생은 관심을 덜었다. 만약 내가 급해지면 뒤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급해서 죽지 않겠는가? 그래서 왕선생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그는 급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받은 우월감을 상실하길 원하지 않았고, 이따금 사람들에게 의해 뒤로 밀려 갈 때 왕선생은 사정없이 저항했다. 그의 팔과 팔꿈치는 시종 쉬지 않고 앞을 향해 밀고 나가는 사람을 쳤다. 팔꿈치로 치기에 갈비뼈 위는 좋은 위치이다. 가슴과 조금 떨어져 있는데 가슴을 너무 강력하게 치면 피를 토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왕선생은 그렇게 포악해 지길 원하지는 않았고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동포로 하여금 피를 토하게 한다면 미안할 것이다. 갈비뼈는 좋은 부분이다. 왕선생의 팔꿈치는 매우 정확하게 움직였다.

차는 일렬로 차례차례 출발했다. 왕선생은 정신이 들었다. 일렬로 가면 그에게 더욱 희망이 있었다. 다음 차는 그를 태울 수 있을 것 아닌가? 다음 차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열차는 나까지 순서가 올 것이니 큰 희망이 생겼다. 인내는 미덕이다. 왕선생은 온 몸으로 이 미덕을 실천하고 있었다. 기차역에서 2, 3일 정도 자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93) 중국 전통극 곡조 중의 하나. (호금(胡琴)으로 반주함). 청(淸)나라 때는 북경(北京)에서 서피(西皮)·이황(二簧)이라는 2가지 곡이 크게 유행하여 곤곡을 압도하였는데, 그 멜로디를 사용한 연극이 발달하여 경극(京劇)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출처: doopedia 두산백과)

옆의 한 선생이 가래 한 덩어리를 왕선생의 신발에 뱉었다. 왕선생은 개의치 않았는데 사방이 너무 사람들로 꽉 차있었기 때문에 싸우려고 해도 싸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욕할 필요도 없었다. 그 선생의 옷자락을 조준하여 답례를 해주고 마음속으로 만족을 얻었다.

날이 어두워졌다. 누구에게 물어도 저녁차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내일 낮차도 밤을 기다리지 못하면 모두 헛수고가 된다. 밤을 새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으니 왕선생도 하루 밤의 여관비를 절약하기로 했다. 게다가 주위에는 여자들도 있다. 여자들이 가지 않는데 남자들이 뒷걸음질 한다면 여자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왕선생은 용감하게 결정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끝까지 투쟁하기로! 그는 스스로 구호를 외쳤다.

#### 일야(一夜)<sup>94)</sup>

할말이 없다. 얼어서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고충이 적지 않지만 나와 국가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자연히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운명은 모두 같지 않다. 차에 앉은 사람이 있으면 차를 끄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모두 차를 끌면 차에 앉은 사람이 없다. 누구를 위해 끌 것인가? 권력이 있는 사람은 먼저 도망치고 돈이 있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도망치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도망가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 왕선생은 어쨌든 죽음을 기다리는 부류가 아니고 자족하는 사람이다. 고통을 좀 받는다고 해서 원망할 필요가 있는가? 기차는 제각기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고 사람도 이와 같다. 일본 놈들에게 잡히지만 않으면 된다. 잡혀서 나에게 기차를 끌게 한다면 정말 참을 수 없을 것이다. 한 밤중 비록 말은 없었지만 평소대로 많은 생각을 했다. 게다가 술도 한 병이 있어 더욱 시적인 정서를 자극 했다.

다음날 아침 옆 사람 말에 의하면 오늘 차가 없을 수도 있다고 했다. 왕선생은 자신의 생각을 견지했다. 차가 있든 말든 죽어도 이곳을 떠날 수 없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 왕선생의 눈치를 거짓말로 속일 수 없다.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사실 절반은 다리가 저렸기 때문이기도 했다.

식량도 끊겼다. 만두를 파는 사람이 돈을 좀 벌 것은 당연 했다. 만두는 1마오(一毛)에 두 개였다. 비쌌지만 먹어야 했다. 돈을 벌 사람은 벌고 파산할 사람은 파산한다. 약자는 강자를 이길 수 없으니<sup>95)</sup>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다. 만두를 샀다. 만두를 파는 사람은 사람머리를 힘껏 밀쳐야만 만두를 건넬 수 있었는데 이 역시 쉽지 않았다. 만두를 사지 않는 사람들도 힘들었고, 그곳의 사람들도 모두 힘들었다. 모두 피차일반이었고 이 난국을 함께 해쳐나가야 했다. 만두를 파는 사람은 돈을 좀 벌수 있지만 일본인이 와서 빼앗아 간다면 곧 인과응보이다. 하지만 그를 위한

94) 해가 지고 나서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의 동안

95) 胳膊拧不过大腿:: 팔은 넓적다리를 이길 수가 없다. (“약자가 강자를 당해 낼 수 없다”는 의미임)

좋은 방법도 생각나지 않는다. 만약 내게 팔 수 있는 만두가 있다면 만두 하나를 1마오(一毛)에 팔고 있을지도 모른다.

4시까지 기다렸고 드디어 평포(平浦) 쾌속열차가 운행을 시작했다. 왕선생은 오히려 이렇게 순조롭게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 하룻밤밖에 기다리지 않았는데! 하지만 갈 수 있게 되었으니 더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하지?

상해도 알맞지 않다. 옛적에 19로군(十九路軍)이 상해에서 프랑스놈들과 싸운 적이 있지 않나? 프랑스 놈들이 무릎을 꿇고 “중국 어르신(中國爺爺)”이라고 간청했지만 끝내 비행기에서 유탄을 투하해 도향촌(稻香村)<sup>96)</sup>의 적지 않은 직원들이 죽었다. 사람들의 장과 도향촌의 소시지는 모두 하늘로 올라가버렸다! 상해를 믿을 수 없다면 남경은 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 남경은 조계지역도 없다! 강서지역에는 공산당이 있다. 총을 피하다가 칼을 맞을 텐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앞에 한 사람은 제남으로 가는 2등석 표를 샀다. 그래 제남이 좋겠다. 제남에서 참혹한 사건이 있었나 없었나? 도착해서 다시 얘기해 보자. 만약 일들이 좋지 않게 돌아가면 다시 남쪽으로 도망치면 되니 이것은 좋은 생각이다.

이등석 표를 샀지만 3등석에 앉아야 했다. 국가위기 기간이라 한 등급이 강등되었다. 맞지 않지만 이렇게 된 것이다. 표를 사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1등석에 앉았다. 1등석 표를 산 사람들은 2등석으로 밀렸고 2등석은 3등석으로 밀렸다. 3등석 표를 산 사람들은 표를 손에 쥐고 걸어서 가야했다. 만일 그들이 운동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표를 가지고 돌아가서 이틀 후에 다시 다른 표를 사서 돌아올 것이다. 왕선생은 매우 득의양양했다. 자신도 모르게 2등 표를 샀다. 3등석에 앉아 가는 것은 어떻게 봐도 지상으로 걸어서 가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차에서 이미 두 사람이 떠밀려서 죽었다. 그 누구도 앉을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 한번 앉으면 다시 설려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고 오로지 좌화(坐化)<sup>97)</sup>되는 것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왕선생은 처음부터 앉을 생각이 없었다. 그의 구역은 꽤 괜찮았고, 마침 객차 한복판이었다. 기차가 조금만 방향을 틀면 창문에 기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기차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하지만 그의 머리는 사람들의 몸에 부딪혔다. 그 앞뒤의 사람들도 위치가 딱 적당했다. 하늘이 이 자리를 선정해 준 것이다. 앞사람의 몸은 매우 작아서 왕선생의 아래턱을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올려 휴식을 취하기 좋았다. 뒷사람의 몸은 매우 뚱뚱했는데 마침 왕선생의 몸을 둘러싸는 의자가 되어 주었고 게다가 지탱하는 힘도 있었다. 왕선생은 코를 풀고 싶었는데 당연히 손을 들 수가 없었고 다만 앞 사람의 머리를 대포 지지대(炮架)로 삼아, 흠칫 힘을 줬다. 두 화산구멍의 좁은 분출되었고 비록 멀리가지는 못했지만 어떤 사

96) 1895년 설립된 중국의 식품회사

97) 불교용어: 앉은 채로 왕생(往生)하는 것을 일컬음(往生: 이 세상(世上)을 떠남)

람의 등 위에 떨어졌다. 왕선생은 매우 만족했다.

기차는 천진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몸을 풀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이 구동성으로 욕했다. “왜 차가 아직 출발하지 않는 거야? 젠장!” 천진 이 지명은 듣 기에도 무서운데 더군다나 지금 몸이 그 경계에 가까워져 있다. 게다가 1시간이 넘 게 여기에 멈춰 서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차에서 내릴 수가 없었고 플랫폼을 한번 훑쳐보지도 않았다. 만약 플랫폼의 일본 놈과 눈이라도 마주친다면 죽거나 죽 지 않는다 해도 큰 병이 도질 것이다! 중앙역(总站)에서 노역(老站)으로 가고, 노역 에서 중앙역으로 가는데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쓸데없는 일이다! 사람들이 역장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만약 만났다면 한사람이 한마디씩 욕을 해서 그 사람을 욕으로 죽여 버렸을 것이다. “《대공보(大公报)》사세요, 새 소설입니다”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여기서 아직 물건을 팔다니…… 곧 폭탄이 떨어져서 이 곳이 산산조각이 날 텐데! 죽음을 모르는 귀신같은 놈!

1세기가 넘게 기다린 후 차가 드디어 움직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분을 풀 수가 없었고 천진의 불빛이 완전히 보이지 않자 호흡을 하기 시작했다. 이미 저승문을 떠난 것 같았고 다음 역은 천당이다. 창주(滄州)에 도착했다. 사람들의 다리는 이미 나무막대기로 변해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기쁨이 증가했다. 왕선생의 이황도 다시 시작됐다. 하늘이 밝아지기 전에 덕주(德州)에 도착했고 사람들은 내려서 통닭구 이, 빵, 계란, 물을 사기로 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자양분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왕선생, 뒤쳐질 수 없어 육탄전을 전개하다.

사람들은 손에는 무기를 잡고 미식축구와 홍가권(洪拳)<sup>98</sup>을 하며 한 줄기 혈로(血路)를 개척하면서 구운 통닭을 향해 곧장 달려갔다. 왕선생도 달려갔는데 다른 사람 역시 달려갔다. 닭을 파는 사람은 두 손을 뻗었지만 방법이 없었다. 사람들의 함성이 울렸고 마음이 격앙되었다. 닭을 보고 미치지 않는다면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 겠는가? 왕선생은 닭 한 마리를 가로챘는데 가로채지 않는다면 영원히 수중에 들어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를 가로채 물어뜯었는데 덕주의 통닭은 정말 맛이 있었다. 특별히 하늘이 아직 밝지 않은 때에 이렇게 밖에서 먹으니 뭔가 야생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아니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 국가 역시 영원히 평안할 수는 없다. 국가가 평안하다면 어디에 가서 이러한 소박한 정취를 찾을 수 있겠는가.

역을 지키는 경찰과 군대는 분주해졌다. 소병(燒餅)을 파는 아이가 사람들에게 갈 같이 찢김을 당했다. 사람들은 빵을 사면서도 빵을 파는 아이의 손과 귀를 비틀었다. 빵을 파는 아이는 비참한 죽음을 면치 못했지만 다른 방면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열정이 그들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경찰이 화가 나서 몽둥이를 휘둘

98) 홍가권(洪拳)은 중국 복건성(福建省) 홍희관(洪熙官)이 창시한 무술로 영남무술 5대문 중 최고의 무술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무술임.

렸고, 강하게 때렸다. 사람들의 마음이 통쾌해질 때까지 때렸고 머리에는 열이 났으나 입에는 미소를 띄었다. 경찰이 멈추면 경찰은 무엇을 하겠는가? 사람들이 맞지 않으면 누가 맞겠는가? 설마 일본인이 와서 맞아 주겠는가? 때려보라, 어쨌든 사람들은 통닭을 받기 전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앞으로 들어갔다. 왕선생은 이미 닭 절반을 먹었기에 다시 가서 충돌하지 않았다. 한 대 맞더라도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맞더라도 사람들과 나눠서 맞아야 했고 한 사람이 다 맞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승리를 얻고 차로 돌아갔다.

차에 올라갈 수가 없었다. 차문을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잡고 있었다. 나올 때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이었는데 비교적 힘들지 않았다. 지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앞쪽의 사람들이 비집고 한발을 넣으면 안쪽에도 딱 막혀있어 철옹성과 같았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게다가 손에는 통닭 반 마리를 들고 있었는데…… 손을 앞으로 뻗자 통닭 몸통 한 입 정도가 없어졌다. 차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 입이 사라진 것이다. 왕선생은 조금 조급해졌다.

“중화의 인민들에게, 이 황제의 자손들에게 무슨 일이든 다 방법이 있어” 어떤 사람이 선언하는 것을 들었다. “차 밖에서 창문으로 들어 올사람? 1위안을 내면 올려 주겠소!” 왕선생의 머리가 빨리 돌아갔고 대답했다. “6마오(毛)주겠소, 하겠소 안하겠소?” “8마오(毛)면 대양으로 갑니다. 더 적게는 안됩니다!” “하겠소” 통닭 반 마리를 들고 있던 왕선생은 창문으로 들어갔는데 매우 재미가 있었고 아주 보배와 같은 경험이었다. 가장 좋은 것은 머리는 안에 있고 발은 바깥에 걸려 있는 시간이었다. 몸은 봄 준비와 같이 힘이 있고 가벼웠다. 마지막 잉어 한 마리가 튀어 올랐으나 다시 내려갔는데 뛰어오를 때 머리가 부딪혀 큰 흑이 생겼다. 8모를 낸 후 왕선생은 웃음을 머금고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기차가 출발하기만을 기다렸다. 사십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차에 오르지 못했다. 그들은 비록 역에서 통닭구이를 배불리 먹었지만 결국 음식도 먹고 차도 탄 왕선생 보다는 못했다. 바보들!

태양이 나왔다. 제남이 바로 눈앞이었고 매우 기뻐다. 황하(黃河)철로를 지났는데 뜻밖에도 철교(鐵橋)는 정말로 철(鐵)로 되어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제남역에 도착해 급하게 차에서 내리는데 사람들이 뻑뻑해질수록 더 급해졌지만 사람들은 즐겁게 끼어들었다. 뻑뻑하게 들어차 있는 기차에서 나와 눈을 들어 앞을 보았다. 확실히 제남이었다. 간판의 검은색 글자들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여전히 정확하지 않을까봐 다시 자세하게 한번 보았는데 여러 면의 간판이 모두 같은 지명이었다. 천천히 철로 구름다리를 건넜다. 밀리지도 않으니 평안하게 걷고 허둥대지 않았다. 표를 받는 직원이 큰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 지를 때까지 천천히 걸었다. “젠장 빨리 가세요!” 그제야 몸 곳곳을 뒤져 차표를 찾아야 하는 것이 생각났다.

역을 나오자 혼인대사(婚姻大事)가 생각났다. 하지만 집에는 아직 어머니가 있었다. 먼저 집의 평안을 비는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후에 부인(愛人)을 찾기로 했다. 길에서 낮은 목소리로 얘기했다. “부인은 어디서 찾지? 부인은 어디에 있을까?” 말에는 자신만의 리듬이 있었다.

여관에 가서 집에 편지를 쓰고 탕면(汤面)을 먹었다. 신문을 볼 생각이 났다. 북평은 아직 폭격을 당하지 않아 마음속으로 매우 실망했다. 한숨을 자고 부인(爱人)을 찾으러 나갔다.

1933년 5월 1일 《论语》 제16기에 실음

### <不遠千裏而來>

听说榆关失守，王先生马上想结婚。在何处举行婚礼好呢。天津和北平自然不是吉地，香港又嫌太远。况且还没找到爱人。最好是先找爱人。不过这也有地方的问题在内：在哪里找呢？在兵荒马乱的地方虽然容易找到女人，可是婚姻又非“拍拍脑袋算一个”的事。还是得到歌舞升平的地方去。于是王先生便离开北平；一点也不是怕日本鬼子。

王先生买不到车票；东西两站的人就象上帝刚在站台上把他们造好似的，谁也不识别处，只有站台和火车是圣地，大家全钉在那里。由东站走，还是由西站走，王先生倒不在乎；他始终就没有定好目的地：上哪里去都是一样，只要躲开北平就好——谁要怕日本谁是牛，不过，万一真叫王先生受点险，谁去结婚？东站也好，西站也好，反正得走。买着票也走，买不着票也走，一走便是上吉。

王先生急中生智，到了行李房，要把自己打行李票：人而当行李，自然可以不必买车票了。行李房却偏偏不收带着腿的行李！无论怎说也不行；王先生只能骂行李房的人没理性，别无办法。

有志者事竟成，王先生并不是没志的废物点心。他由正陽门坐上电车，上了西直门。在那里一打听，原来西直门的车站是平绥路的。王先生很喜欢自己长了经验，而且深信了时势造英雄的话。假如不是亲身到了西直门，他怎能知道火车是有固定的路线，而不是随意溜达着玩的？可是，北方一带全不是吉地，这条路是走不得的。这未免使他有点不痛快。上哪儿去呢？不，还不是上哪里去的问题，而是哪里有火车坐呢？还是得上东站或西站，假如火车永远不开，也便罢了；只要它开，王先生就有走开的可能。买了些水果，点心，烧酒，决定到车站去长期等车：“小子，咱老王和你闭了眼啦，非走不可！就是坐烟筒也得走！”王先生对火车发了誓。

又回到东站，因为东站看着比西站体面些；预备作新郎的人，事事总得要个体面。等了五小时，连站台的门也没挤进去！王先生虽然着急，可是头脑依然清楚：“只要等着，必有办法；况且即使在等着的时节，日本兵动了手，到底离着车站近的比较的有逃开的希望。好比说吧，枪一响，开火车的还不马上开车就跑？那么，老王你也便能跳上车去一齐跑，根本无须买票。一跑，跑到天津，开车的一直把火车开到英租界大旅社的前面；跳下来，拍！进了旅馆；喝点咖啡，擦擦脸，车又开了，一开开到南京，或是上海；“今夜晚前后厅灯光明亮——”王先生唱开了“二簧”。

又等了三点钟，王先生把所知道的二簧戏全唱完，还是没有挤进站台希望。人是越来越多，把王先生拿着的苹果居然挤碎了一个。可是人越多，王先生的心里越高兴，一来是因为人多胆大，就是等到半夜去，也不至于怕鬼。二来是人多了即使掉下炸弹来，也不能只炸死他一个；大家都炸得粉碎，就是往陰曹地府走着也不寂寞。三来是后来的越多，王先生便越减少些关切；自己要是着急，那后来的当怎么着呢，还不该急死？所以他越看后方万头攒动，他越觉得没有着急的必要。可是他不愿丢失了自己已得到的优越，有人想把他挤到后面去，王先生可是毫不客气的抵抗。他的胳膊肘始终没闲着，有往前挤的，他便是一肘，肋骨上是好地方；胸口上便差一点，因为胸口上肘得过猛便有吐血的危险，王先生还不愿那么霸道，国难期间使同胞吐了血，不好意思；肋骨上是好地方；王先生的肘都运用得很正确。

车开走了一列。王先生更精神了。有一列开走，他便多一些希望；下列还不该他走吗？即使下列还不行，第三列总该轮到他了，大有希望。忍耐是美德，王先生正体行这个美德；在车站睡上三夜两夜的也不算什么。

旁边一位先生把一口痰吐在王先生的鞋上。王先生并没介意，首要的原因是四围挤得太紧，打架是无从打起，于是连骂也都不必。照准了那位先生的衣襟回敬了一口，心中倒还满意。

天是黑了。问谁，都说没有夜车。可是明天白昼的车若不连夜等下去便是前功尽弃。好在等通夜的大有人在，王先生决定省一夜的旅馆费。况且四围还有女性呢，女人可以不走，男人要是退缩，岂不被女流耻笑！王先生极勇敢的下了决心。牺牲一切，奋斗到底！他自己喊着口号。

## 一夜

无话，因为冻了个半死。苦处不小，可是为身为国还说不上不受点苦。自然人家有势力的人，可以免受这种苦，可是命是不一样的，有坐车的就得有拉车的；都是拉车的，没有坐车的，拉谁？有势力的先跑，有钱的次跑，没钱没势的不跑等死。王先生究竟还不是等死之流，就得知足。受点苦还要抱怨么？火车分头二三等，人也是如此。就是别叫日本鬼子捉住，好，捉了去叫我拉火车，可受不了！一夜虽然无话，思想照常精密；况且有瓶烧酒，脑子更受了些诗意的刺激。

第二天早晨，据旁人讲，今天不一定有车。王先生拿定主意，有车无车给它个死不动窝。焉知不是诈语！王先生的精明不是诈语所能欺得过的。一动也不动；一半也是因为腿有点发麻。

绝了粮，活该卖馒头的发点财，一毛钱两个。贵也得吃，该发财的就发财，该破财的就破财，胳膊拧不过大腿去，不用固执。买馒头。卖馒头的得踩着人头才能递给他馒头，也不容易；连不买馒头的也不容易，大家不容易，彼此彼此，共赴国难。卖馒头的发点小财，等日本人再抢去，也总得算报应，可也替他想不出好办法：自己要是有馒头卖，还许一毛钱“一”个呢？



一直等到四点，居然平浦特别快车可以开。王先生反觉得事情不应当这么顺利；才等了一天一夜！可是既然能走了，也就不便再等。

上哪儿去呢？

上海也并不妥当，古时候不是十九路军在上海打过法国鬼子吗？虽然打得鬼子跪下央告“中国爷爷”，可是到底飞机扔开花弹，炸死了不少稻香村的伙计，人肠子和腊肠一齐飞上了天！上海要是不可靠，南京便更不要提，南京没有租界地呀！江西有共产党：躲一枪，挨一刀，那才犯不上！

前边那位买济南府，二等。好吧，就是济南府好了。济南惨案不知道闹着没有？到了再说，看事情不好再往南跑，好主意。

买了二等票，可是得坐三等车，国难期间，车降一等。还不对，是这么着：不买票的——自然是有势力的——坐头等。买头等的坐二等。买二等的坐三等。买三等的拿着票地上走，假如他愿意运动运动的话；如若不愿意运动呢，可以拿着车票回去住两天，过两天再另买票来。王先生非常得意，因为神差鬼使买了二等票；坐三等无论怎说是比地上走强的。

车上已经挤死了两位；谁也不敢再坐下，只要一坐下就不用想再立起来，专等着坐化。王先生根本就没想坐下。他的地方也不错，正在车当中，车一歪，靠窗的人全把头碰在车板上，而他只把头碰在人们的身上。他前后的客人也安排得恰当——老天爷安排的，当然是一一前面的那位身量很小，王先生的下巴正好放在那位的头上休息一下。后面的那位身体很胖，正好给王先生作个围椅，而且极有火力。王先生要净一净鼻子，手当然没法提上来，只须把前面客人的头当炮架子，用力一激，两筒火山的岩汁就会喷出，虽喷出不很远，可是落在人家的脊背上。王先生非常的满意。

车到了天津，没有一位敢下车活动活动的，而异口同声的骂：“怎么还不开车？王八日的！”天津这个地名听着都可怕，何况身临其境，而且要停一点多钟。大家都不敢下车，连站台上都不敢偷看一眼；万一站台上有个日本小鬼，和你对了眼光，不死也得大病一场！由总站开老站，由老站开总站，你看这个麻烦劲！等雷呢！大家是没见着站长，若是见着，一人一句也得把他骂死了。“《大公报》来——”“新小说——”真有不怕死的，还敢在这儿卖东西；早晚是叫炸弹炸个粉碎！不知死的鬼！

等了一个多世纪，车居然会开了。大家仍然连大气不敢出，直等到天津的灯光完全不见了，才开始呼吸，好象是已离开了鬼门关，下一站便是天堂。到了沧州，大家的腿已变成了木头棍，可是心中增加了喜气。王先生的二簧又开了台。天亮以前到了德州，大家决定下去买烧鸡，火烧，鸡子，开水；命已保住，还能不给它点养料？

王先生不能落后，打着交

手仗，练着美国足球，耍着大洪拳，开开一条血路，直奔烧鸡而去。王先生奔过

去，别人也奔过去，卖鸡的就是再长一双手也伺候不过来。杀声震耳，慷慨激昂，不吃烧鸡，何以为人？王先生“抢”了一只，不抢便永无到手之日。抢过来便啃，哎呀，美味，德州的烧鸡，特别在天还未亮之际，真有些野意！要不怎么说，国家也不应当永远平平安安的；国家平安到哪儿去找这种野意，守站的巡警与兵们急了，因为一个卖烧饼的小儿被大家给扯碎了，买了烧饼还饶着卖烧饼小儿一只手，或一个耳朵。卖烧饼小儿未免死得惨一些，可是从另一方面说，大家的热烈足证人心未死。巡警们急了，抡开了十三节钢鞭，大打而特打，打得大家心中痛快，头上发烧，口中微笑。巡警不打人，要巡警干什么？大家不挨打，谁挨打？难道日本人来挨打？打吧，反正烧鸡不到手，誓不退缩。前进；王先生是鸡已入肚一半，不便再去冲锋，虽然只挨了一鞭，不大过瘾，可是打要大家分挨，未便一人包办，于是得胜回车。

车是上不去了。车门就有五十多位把着。出来的时候是由内而外，比较的容易。现在是由外而内，就是把前层的挤退一步，里边便更堵得结实，不亚如铜墙铁壁，焉能挤得进去，况且手内还拿着半只烧鸡，一伸手，，丢了一口鸡身，未入车而鸡先失去一口，大不上算。王先生有点着急。

到底是中华的人民，黄帝的子孙，凡事有个办法。听，有人宣言：“来呀把谁从车窗塞进去？一块钱！”王先生的脑子真快，应声而出：“六毛，干不干？”“八角大洋，少了不干！”“来吧，”连半只烧鸡带王先生全进了窗门，很有趣味，可宝贵的经验：最好是头在内而脚仍悬在外边的时节，身如春燕，矫健轻灵。最后一个鲤鱼打挺，翩然而下，头碰了个大包。八毛钱付过，王先生含笑不言，专等开车。有四十多位没能上来，虽然可以在站台上饱食烧鸡，究竟不如王先生的既食且走，一群笨蛋！

太阳出来，济南就在眼前，十分高兴。过黄河铁桥，居然看见铁桥真是铁的。一展眼到了济南站，急忙下车，越挤越忙，以便凑个热闹，不冤不乐。挤出火车，举目观看，确是济南，白牌上有大黑字为证；仍怕不准，又细看了一番，几面白牌均题同样地名，缓步上了天桥；既然不拥挤，故须安走勿慌，直到听见收票员高喊：“妈的快走！”才想起向身上各处搜找车票。

出了车站，想起婚姻大事。可是家中还有个老婆，不免先写封平安家信，然后再去寻找爱人。一路上低吟：“爱人在哪里？爱人在哪里？”亦自有腔有韵。

下了旅馆，写了平安家信，吃了汤面；想起看报。北平还未被炸，心中十分失望。睡了一觉，出去寻求爱人。

载一九三三年五月一日《论语》第十六期

## 8. <연꽃잎을 먹다(吃蓮花的)>

올해 나는 2개의 백련을 심었다. 화분은 북평에서 어렵게 찾아온 것인데 안밖으로 녹태<sup>99)</sup>를 품고 있다. 이 녹태는 적어도 5, 60년은 되었다. 진흙은 황하에서 가지고 온 것이고 물은 박돌천(趵突泉)<sup>100)</sup>에서 가지고 왔다. 다만 연뿌리가 조금 부족하는데 이 연뿌리는 먹고 남은 것이다. 좋은 화분, 좋은 진흙, 좋은 물은 당연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 연뿌리가 좋지 않아 연뿌리 스스로도 미안할 것이다. 그나마 자란 후 꽃이 피긴 했는데 꽃도 피지 않았다면 나에게 진심으로 미안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연 줄기를 뽑고 잎을 한편에 두었는데 꽃이 피었다. 하나의 화분에 7, 8송이가 있었는데 흰색도 있었다. 두 송이의 꽃잎만이 뾰족한 부분에 붉은색을 띄었다. 내가 단향목 가루를 구석구석 발랐더니 모두 흰색으로 변했다. 시를 짓자. 시를 짓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정정옥립(亭亭玉立)<sup>101)</sup>” 나는 오직 이 네 자만을 75번 사용했다. 내가 시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생각해보라!

이것에 대해 일단 얘기하지 말자. 이미 수일이 지났고 문 앞에서 채소를 파는 사람은 매일 백련(白蓮) 몇 송이 가지고 온다. 처음에는 내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 좋은 연꽃(蓮花)과 먹는 가지와 동과<sup>102)</sup>(茄子冬瓜)가 한군데 놓여져 있다니……. 진짜! 계속하여 생각해보니 깨달음이 왔다. “아! 제남에는 이름난 선비가 많아서 혼자 연꽃을 심지 못하니까 연꽃을 산 뒤 고병(古瓶)과 맑은 물로 키워서 서재에 놔두려고 하는 건가? 그래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

이것은 둘째 치고 친구와 대명호(大明湖)를 구경을 하기로 약속했다. “가서 연꽃(蓮花) 좀 사와!” 그는 말했다. “굳이 가서 살 필요가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화분에서 볼 수 있잖아?” 나는 별로 유쾌하지 않았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내가 스스로 심은 것들이 설마 대명호의 연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야? 참나!” 게다가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대명호에서 구경하는 것은 고생하는 거야. 차라리 집에서 콩을 익히고 술을 마시면서 시를 짓는 것이 나아. 내가 심은 연꽃을 주제로 만들면 어찌 우아하고 신기하지 않겠어?” 친구는 두 개의 화분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이 너무나 즐거웠다. 친구는 역시 매우 고상했다! “약(哟)<sup>103)</sup>”자를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반드시 이것을 사용 해야겠다”는 것이다! 나는 바빠 집안의 사람에게 콩을 삶으라고 지시했고 신선한 호두를 사올 수 있는지 보라고 했다. 이후 서재에 가서 나의 시 원고를 찾았다. 친구는 조용히 꽃 앞에 서서 꽃을 감상하고 있었다!

99) 청태(靑苔)와 같은 의미로 푸른 이끼이다.

100) 산둥성(山東省) 제남시(濟南市)에 있는 샘 이름

101) 꽃이나 나무가 우뚝 솟은 모양

102) 동과(Winter Melon, 冬瓜) 동과(Benincasa hispida)는 일본 또는 인도네시아가 원산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인기가 높다. 하얗고 밀랍처럼 매끄러운 겉껍질 덕분에, 자르지만 얇으면 몇 달이고 보관해 둘 수 있다. 무게가 45킬로그램까지 나가는 것도 있다. 가장 작은 것은 통째로 파는데, 큰 것은 잘라서 조각으로 판다. 동과는 길쭉한 수박처럼 보이기도 하며, 그 색깔은 연녹색에서 진녹색까지 다양하고, 속살은 하얗다.(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세계 음식 재료 1001, 2009. 3. 15., 마로니에북스)

103) 중국어의 어조사로 약간의 놀라움을 나타낸다.

이것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 서재에서 돌아와 보니 화분 중의 꽃은 모두 친구의 손에 있었다. 곧 죽을 것 같은 두 송이만 화분에 남아서 미동이 없었다. 나는 마치 갑자기 더위를 먹은 것 같았다. 하늘과 땅이 빙빙 돌고 말이 안 나왔다. 하지만 친구는 매우 기뻐했다. 그는 말했다. “이 몇 송이가 그런대로 하고 있어서 대명호에 가서 살 필요가 없게 됐어. 사실 문 입구에서 채소를 파는 사람에게도 연꽃이 있는데 대명호의 꽃보다 신선하지도 않고 싸지도 않아. 니가 준 이 꽃들이 많이 부드럽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괜찮아.” 그는 한편으로는 말하고 한편으로는 주방으로 달렸다. “전씨” 그는 나의 집사이자 요리사를 불렀다. “이 참기름을 이용해서 꽃을 좀 데쳐줘. 바깥의 꽃잎은 필요 없고 안쪽의 연한 부분을 좀 데쳐줘” 전씨는 내가 북평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고 나와 마찬가지로 제남의 옛 일들은 잘 모른다. 그는 참기름으로 연꽃잎을 데치는 것이 무슨 민간처방인줄 알았다. “이게 병을 고치나요? 화상이요?” 그가 물었다. 친구는 웃었다. “화상을 치료하냐고? 먹는 거야! 엄청 맛있어! 야채 파는 멜대<sup>104</sup> 위에 한 잎 한 잎 올려서 파는 거 못 봤어?”

이것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 무엇을 더 언급하라. 시 원고는 모두 태워버렸다. 그래서 여기에 부록으로 넣을 수 없다.

1933년 8월 16일 《论语》 제23기에 실음

### <吃蓮花的>

今年我种了两盆白莲。盆是由北平搜寻来的，里外包着绿苔，至少有五六十岁。泥是由黄河拉来的。水用趵突泉的。只是藕差点事，吃剩下来的菜藕。好盆好泥好水敢情有妙用，菜藕也不好意思了，长吧，开花吧，不然太对不起人！居然，拔了梗，放了叶，而且开了花。一盆里七八朵，白的！只有两朵，瓣尖上有点红，我细细的用檀香粉给涂了涂，于是全白。作诗吧，除了作诗还有什么办法？专说“亭亭玉立”这四个字就被我用了七十五次，请想我作了多少首诗吧！

这且不提。好几天了，天天门口卖菜的带着几把儿白莲。最初，我心里很难过。好好的莲花和茄子冬瓜放在一块，真！继而一想，若有所悟。啊，济南名士多，不能自己“种”莲，还不“买”些用古瓶清水养起来，放在书斋？是的，一定是这样。

这且不提。友人约游大明湖，“去买点莲花来！”他说。“何必去买，我的两盆还不可观？”我有点不痛快，心里说：“我自种的难道比不上湖里的？真！”况且，天这么热，游湖更受罪，不如在家里，煮点毛豆角，喝点莲花白，作两首诗，以自种白莲为题，岂不雅妙？友人看着那两盆花，点了点头。我心里不用提多么痛快了；友人也很雅哟！除了作新诗向来不肯用这“哟”，可是此刻非用不可了！我忙着吩咐家中煮毛豆角，看看能买到鲜核桃不。然后到书房去找我的诗稿。友人静立花前，欣赏着哟！

104) 양쪽 끝에 물건을 달아 어깨에 메는 긴 나무

这且不提。及至我从书房回来一看，盆中的花全在友人手里握着呢，只剩下两朵快要开败的还在原地未动。我似乎忽然中了暑，天旋地转，说不出话。友人可是很高兴。他说：“这几朵也对付了，不必到湖中买去了。其实门口卖菜的也有，不过没有湖上的新鲜便宜。你这些不很嫩了，还能对付。”他一边说着，一边奔了厨房。“老田，”他叫着我的总管事兼厨子：“把这用好香油炸炸。外边的老瓣不要，炸里边那嫩的。”老田是我由北平请来的，和我一样不懂济南的典故，他以为香油炸莲瓣是什么偏方呢。“这治什么病，烫伤？”他问。友人笑了。“治烫伤？吃！美极了！没看见菜桃子上一把一把儿的卖吗？”

这且不提。还提什么呢，诗稿全烧了，所以不能附录在这里。

载一九三三年八月十六日《论语》第二十三期

## 9. <사직하다(辭工)>

당신은 아직 전씨(老田)을 만난 적이 없어서 천만다행이다. 그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람을 화나게 할 수 있다. 어제의 일을 얘기해 보겠다. 어제는 토요일이었는데 관례에 따라 그는 반나절을 쉬었다. 점심을 먹고 나니 비가 오기 시작했다. 전씨가 들어와서는 말했다. “선생님, 장기휴가를 좀 쓸까 합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오늘 제가 반나절을 쉬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비가 옵니다!”

“내가 비를 부른 게 아니잖아!” 내가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토요일에 제가 쉬도록 하셨죠” 그가 말했다.

“오늘 나갈 수 없으면 내일 나가서 쉬면 되잖아!?” 내가 말했다.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죠 오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가 말했다.

“그냥 목이나 매러 가버려” 내가 말했다.

“어디서요?” 그가 말했다.

다행히 둘째누나가 왔다. 이 상황을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나는 전씨에게 길을 내주었고, 그가 가서 잠을 자도록 했다.

나는 그가 잠이 들었는지 들지 않았는지 알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또 들어왔다. “선생님 장기 휴가를 좀 쓰겠습니다!”

“또 왜 그러냐?” 내가 말했다.

“보세요 제가 겨우 막 잠을 자려고 했는데 소구(小球)가 들어와서 제 코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내가 소구를 시켜서 너의 코 냄새를 맡으라고 하지는 않았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제게 가서 자라고 하셨죠” 그가 말했다.

“자기 싫으면 꼭 잘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내가 말했다.

“큰 비가 내리는 날에 잠을 자지 않으면 뭘 하나요?” 그가 말했다.

“나는 용왕님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토요일에 제가 쉬도록 하셨죠” 그가 말했다.

“좋다. 가고 싶으면 가라, 두 달치의 월급을 주마” 내가 말했다.

“선생님 조금 더 주십시오 값아야 할 빛이 좀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5위안 정도면 충분하겠느냐?” 내가 말했다.

“충분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가 돈을 가지고 나갔다. 비가 잦아들었는데 남쪽의 하늘이 개는 모양이었다. 전씨는 소구를 안고 처마 아래 서있었다. 서 있는 것이 힘들어 보였는데 나는 시종 상대하지 않았다. 그는 소구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착한 소구야, 흰둥아, 선생님께 가거라” 나는 그가 나를 찾아오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과연 그는 멋쩍게 말을 꺼내며 들어왔다.

“선생님 날이 곧 개려고 합니다. 한번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장기휴가는 안가고?” 내가 말했다.

그는 들은 체도 안하고 얘기했다. “선생님 돈 5위안은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올해는 맥추수확이 별로입니다.”

“전에는 맥추수확이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어?” 내가 말했다.

“그 날 제가 말했던 것은 다른 집의 맥추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래 가 보거라 돌아올 때 좋은 복숭아 몇 개 좀 들고 오거라” 내가 말했다.

“요 며칠 좋은 복숭아가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넌 그냥 찾는 체나 좀 하거라. 찾는 척 하다가 그냥 몇 개 사오거나, 찾다가 못 찾으면 그냥 됐어” 내가 말했다.

“좋습니다.” 그가 말하고 나갔다.

밤 11시가 되어서 내가 잠이 드니 그가 그제야 돌아왔다.

“선생님, 복숭아 가져왔습니다. 늦게까지 찾았는데 좋은 복숭아 몇 개만 겨우 찾았습니다.” 그가 창문 밖에서 말했다.

“먼저 거기 두거라” 내가 말했다. “붕붕극(蹦蹦戏)<sup>105</sup>은 언제 끝났느냐?”

“막 끝났습니다.” 그가 말했다.

“니가 어떻게 연극도 다 보고 한밤중에 복숭아도 찾아 다녔냐?” 내가 말했다.

“어디요. 다른 사람이 공연장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들으러 간 것은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전씨는 몇 차례나 바깥으로 뛰어 나가며 무슨 긴급한 편지나 소식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전씨, 사온 복숭아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말했다.

“제가 지금 선생님을 위해서 바깥에서 장사꾼이 오는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다렸다 장사꾼이 좋은 것을 가지고 오면 몇 개 사다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러면 어제 밤에 안 사온 것이냐?” 내가 말했다.

“어제 저녁에 주무시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새로 딴 과일을 사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가 말했다.

1933년 8월 14일 《申報·自由谈》에 실음

### <辭工>

您是没见过老田，万幸，他能无缘无故的把人气死。就拿昨天说吧。昨天是星期六，照例他休息半天。吃过了午饭，刷刷的下起雨来。老田进来了：“先生，打算跟您请长假！”“为什么呢？”“您看，今天该我歇半天，偏偏下雨！”

“我没叫谁下雨呀！”我说。

105) 1910년 전후 하북당산(河北唐山) 일대에서 형성된 북방지역의 전통희곡 예술극

“可是您叫我星期六休息。”他说。

“今天出不去，不会明天再补上吗？”我说。

“今天是今天，明天是明天，今天我怎么办？”他说。

“你上吊去。”我说。

“在哪儿上？”他说。

幸而二姐来了，把这场给解说过去。我指给他一条路，叫他去睡觉。

我不知道他睡了没有，不大一会儿他又进来了：“先生，打算跟您请长假！”

“又怎么了？”我说。

“您看，我刚要睡着，小球过来闻我的鼻子。”他说。

“我没让小球闻你的鼻子。”我说。

“可是您叫我去睡觉。”他说。

“不爱睡就不用睡呀。”我说。

“大下雨的天，不睡干什么？”他说。

“我没求龙王爷下雨呀。”我说。

“可是您叫我星期六休息。”他说。

“好吧，你要走就走，给你两个月的工钱。”我说。

“您还得多给点，外边还有点零碎账儿。”他说。

“有五块钱够不够？”我说。

“够了。”他说。

他拿着钱走出去。雨小了，南边的天有裂开的样子。老田抱着小球，在房檐下站着。站的工夫大了，我始终没答理他。他跟小球说开了：“小乖球，小白球，找先生去吧？”我知道他是要进来找我。果然他搭讪着进来了。

“先生，天快晴了，我还是出去走一趟吧。”他说。

“不请长假了？”我说。

他假装没听见。“先生，那五块钱我先拿着吧，家里今年麦秋收得不好。”

“那天你不是说麦子收得很好吗？”我说。

“那天我说的是别人家的麦子。”他说。

“好，去吧；回来的时候给我带几个好桃儿来。”我说。

“这几天没有好桃。”他说。

“你假装的给我找一下，找着呢就买，找不着拉倒。”我说。

“好吧”他说；走了出去。

到夜里十一点，我睡了，他才回来。

“先生，给您桃儿，直找了半夜，才找到这么几个好的。”他在窗外说。

“先放着吧。”我说：“蹦蹦戏什么时候散的？”

“刚散。”他说。

“你怎么听完了戏，又找了半夜的桃呢？”我说。

“哪，我看见别人刚从戏棚里出来；我并没听去。”他说。



今天早晨起来，老田一趟一趟的往外跑象等着什么要紧的信或消息似的。

“老田，给我买来的桃呢？”我说。

“我这不是直给您在外边看着吗？等有好的过来给您买几个。”他说。

“那么昨天晚上你没买来？”我说。

“昨晚上您不是睡了吗？早晨买刚下树的多么好！”他说。

载一九三三年八月十四日 《申报·自由谈》

## 10. <복권을 사다(買彩票)>

우리 마을에서 사람들이 복권에 도박을 거는 것은 예로부터 있어왔다. 항공복권은 자연스레 큰 환영을 받았다. 1등은 50만위안(五十萬元)<sup>106</sup>이나 준다! 둘째 누나는 복권을 여러 사람과 함께 살 계획을 세웠고, 먼저 은화 2자오(角)를 준비했다. 나는 먼저 점을 한번 쳐보고 길한 운(上吉)이 나왔기 때문에 4자오(角)를 투자했다. 둘째 누나와 온종일 계산을 했는데 한 장을 사려면 아직 9.4위안(元)이 부족했다. 나와 그녀는 각자 나누어 홍보를 했다. 50만위안, 50만위안, 50명이 나누면 각각 1만위안씩 떨어집니다! 2자오가 1만위안이 됩니다! 이 소식은 온 마을을 미치게 만들었고, 동네 개들도 “50만위안”을 질리게 들었다. 50만 위안을 준다는데 모르는 사람이라도 바로 꼬리를 흔들며 가서 다리를 짹 물을 것이다. 이렇게 온통 한 주가 떠들썩했다. 드디어 10위안을 모았다. 나는 최대 주주가 되었다. 셋째 외할머니는 겨우 5푼(五分)을 냈고 넷째 이모와 다섯째 이모도 한 주를 투자했다. 그들은 장부도 한권 만들었다.

어디 가서 복권을 사야 될까? 역시 점을 쳐보아야 한다. 둘째누나는 나의 복성금전과(諸葛金錢課)<sup>107</sup>를 믿지 못하고 돈을 주고 왕할자(王瞎子)<sup>108</sup>를 청해 마전신과(馬前神課)<sup>109</sup> 점을 보았는데 이익이 동북쪽에 있다고 했다. 성(城) 안에는 복권 파는 곳이 4곳이 있다. 이성기(利成記)는 성의 동북쪽에 있었기에 이성기에게 가서 사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성기는 네 곳 중에서 거래가 가장 작은 점포로 담배, 등유만 팔았다. 만일 10위안을 사기 치거나 가짜 복권(假券)을 팔면 어떻게 하나! 다시 왕할자에게 돈을 주고 새로 점을 치게 했다. 그 결과 서북쪽도 괜찮다고 한다. “괜찮을 뿐만 아니라 손가락을 꼬집어보았는데 동북쪽보다도 더 좋단다! 서북은 항상 기(恒祥記)인데 거래도 많고 둘째 누나가 시집갈 때의 비단 홍이불도 거기서 산 것이다.

그럼 누가 가서 살까? 이것도 문제이다. 나는 첫 번째 주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한번 가야된다. 하지만 나는 소띠인데 올해는 닭띠해라서 결국 닭띠인 사람을 찾아야 하고 또한 남자여야 한다. 여자는 불길하기 때문이다. 이씨네 소삼(小三)만이 닭띠 해에 태어났다. 그 외 닭띠 해에 태어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변한 것 같아서 적당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소삼이 혼자 보내는 것은 정말 마음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금명(金命)해<sup>110</sup>에 태어난 두 명의 남자를 함께 보내서 주도면밀히

106) 중국의 화폐단위: 1위안(元): 10자오(角), 1자오(角): 10푼(分) / 중국의 화폐단위를 한자독음을 따르는 경우 해석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화폐단위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 표기하였다.(표준국어대사전 참조)

107) 풀어서 諸葛亮六十四卦金錢課라고 하며 돈을 사용하여서 점을 치는 방식이다.

108) 人名

109) 《馬前課》 또는 《馬前神課》라는 책은 중국의 삼국시대 유명한 군사가, 정치가, 도사, 발명가였던 諸葛亮的 작품이다. 책 《馬前神課》는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말(馬) 앞에서 점을 치는 것이다.

110) 열 두 띠를 기준으로 셋씩 묶어 네 그룹을 만드는데 목명(木命), 화명(火命), 금명(金命), 수명(水命)으로 구분한다. 목명(木命)은 해묘미(亥卯未)로 “돼지, 토끼, 양” 띠에 해당하며, 화명(火命)은 인오술(寅午戌)로 “범, 말, 개” 띠를 의미하고, 금명(金命)은 사유축(巳酉丑) “뱀, 닭, 소” 띠를 일컬으며, 수명(水命)은 신자진

그를 보호하도록 했다. 좋은 날을 고른 후 세 명은 성에 들어가 표를 샀다.

복권을 사서 돌아왔는데 이제 누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우리 마을의 합작사업은 특징이 하나 있다. 누구도 서로를 신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일 밤낮의 토론을 거친 후 셋째 외할머니(三娣姥)에게 맡기기로 했다. 나이는 많지만 덕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쨌든 손발이 재빠르지 못해서 몰래 혼자 도망가지 못할 것이다.

복권 당첨자를 발표하는 그날까지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잠을 잘 자지 못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1등이 된다면…… 누군가 1등이 된다면 우리가 되지 않겠는가!?, 2만위안을 내가 받게 된다면 이 2만위안을 어떻게 써야 하나? 작은 집을 하나 구입하자, 좋다, 집의 위치, 양식, 집안 배치는 어떻게 하나? 이에 대해 새벽까지 생각했다. 아니다, 방을 사지말자, 역시 장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점포의 위치, 형식, 종류, 어떻게 돈을 벌지에 대해, 돈을 번 후에는 어떻게 발전을 할지에 대해 다시 반나절을 생각했다. 하늘의 별들, 강변의 물거품들이 모두 은화 같았다. 이른 아침의 새소리, 한밤중의 벌레 소리는 모두 “50만위안”이라고 외쳤다. 가끔 잠이 들 때면 내 손을 가슴위에 얹고 잠이 들었는데 한 더미 은화에 내 몸이 깔려 숨을 쉬지 못하는 꿈을 꿨다. 1등이 된다면 특별히 골패(骨牌)<sup>111)</sup> 한 세트를 사서 수시로 점을 칠 것이다. 좋지 않은 점괘가 나오면 계산하지 않고 또 다시 점을 칠 것이다. 그래서 좋은 점괘만 칠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돈을 벌게 된다.

개표가 시작됐다. 신문에 오등까지 번호가 나왔는데 우리가 줄줄 외웠던 번호는 하나도 없었다. 집, 가게…… 흘린 땀을 따라 모두 사라졌다. 6등이나 7등을 기다려보자. 앞 5등까지는 없었더라도 설마 6등도 못하려고? 점도 쳤고 길하게 나왔는데 말이야. 6등은 5백위안을 주니 몇 위안을 써서 여름 모시셔츠 한 벌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한편으로는 6등, 7등의 번호가 나오기를 기다렸고, 한편으로는 5등 당첨번호를 다시 보았다. 당첨된 사람을 대신해 어떻게 돈을 쓰면 좋을지 생각해 보았다. 질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리저리 생각을 하다가 당첨된 사람의 즐거움이 극에 달할 때 슬픈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아마 돈 때문에 불에 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당첨 되지 않아도 괜찮다. 당연히 내가 당첨되고 난 후 보이지 않는다면 불에 타 죽은 것이다. 어떻게 말을 해도 마음이 우울해졌다.

6등, 7등 당첨번호도 나왔는데 역시나 우리 번호는 없었다. 이는 마지막 번호에 대해 생각하게 했는데, 마지막 번호 마저 우리를 놀려댔다. 우리의 마지막 번호는 “3”인데 1등 당첨번호는 하필이면 “2”였다. 방법이 없다.

둘째 누나와 나는 발기인(发起人)이었다! 셋째 외할머니는 우리 둘에게 그녀가 낸 5편(五分)을 청구했다. 배상하지 않을 방법이 없었다. 그녀에게 배상하고 다른 사람들의 2자오도 의도치 않게 허비해 버렸다. 둘째 누나는 최근 며칠 몸져누웠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면 몸이 아픈 재주가 있었다. 남은 것은 결국 나였고 나는

(申子辰)의 “원숭이, 쥐, 용”띠를 말한다.

111) 납작하고 네모진 작은 나무 조각 32개에 각각 흰 뼈를 붙이고, 여러 가지 수의 구멍을 판 노름 기구임. 노름기구로 사용됨과 동시에 점을 치는 도구로도 사용되었음.

사람들 개개인에게 줄 2자오를 마련해야 했다. 돈을 모두 마련한 후엔 둘째 누나의 병도 좋아졌다. 나는 어떻냐고? 어제 밤에 아주 달콤한 잠을 잤다.

1933년 9월 1일 《论语》 제24기에 실음

### <買彩票>

在我们那村里，抓会赌彩是自古有之。航空奖券，自然的，大受欢迎。头彩五十万，听听！二姐发起集股合作，首先拿出大洋二角。我自己先算了一卦，上吉，于是拿了四角。和二姐算计了好大半天，原来还短着九元四才够买一张的。我和她分头去宣传，五十万，五十万，五十个人分，每人还落一万，二角钱弄一万！举村若狂，连狗都听熟了“五十万”，凡是说“五十万”的，哪怕是生人，也立刻摇尾而不上前一口把腿咬住。闹了整一个星期；十元算是凑齐；我是最大的股员。三姥姥才拿了五分，和四姨五姨共同凑了一股；她们还立了一本账簿。

上哪里去买呢？还得算卦。二姐不信任我的诸葛金钱课，花了五大枚请王瞎子占了个马前神课.....利东北。城里有四家代售处；利成记在城之东北；决议，到利成记去买。可是，利成是四家买卖中最小的一号，只卖卷烟煤油，万一把十元拐去，或是卖假券呢！又送了王瞎子五大枚，从新另占。西北也行，他说；不但是行，他细掐过手指，还比东北好呢！西北是恒祥记，大买卖，二姐出阁时的缎子红被还是那儿买的呢。

谁去买？又是个问题。按说我是头号股员，我应当跑一趟。可是我是属牛的，今年是鸡年，总得找属鸡的，还得是男性，女性丧气。只有李家小三是鸡年生的，平日那些属鸡的好象都变了，找不著一个。小三自己去太不放心啊，于是决定另派二员金命的男人妥为保护。挑了吉日，三位进城买票。

票买来了，谁拿著呢？我们村里的合作事业有个特点，谁也不信任谁。经过三天三夜的讨论，还是交给了三姥姥，年高虽不见得必有德，可是到底手脚不利落，不至私自逃跑。

直到开彩那天，大家谁也没睡好觉。以我自己说，得了头彩——还能不是我们得吗？！——就分两万，这两万怎么花？买处小房，好，房的地点，样式，怎么布置，想了半夜。不，不买房子，还是作买卖好，于是铺子的地点、形式、种类，怎么赚钱，赚了钱以后怎样发展，又是半夜。天上的星星，河边的水泡，都看著象洋钱。清晨的鸟鸣，夜半的虫声，都说著“五十万”。偶尔睡著，手按在胸上，梦见一堆现洋压在身上，连气也出不得！特意买了一付骨牌，为是随时打卦。打了坏卦，不算，另打；于是打的都是好卦，财是发准了。

开奖了。报上登出前五彩，没有我们背熟了的那一号。房子，铺子.....随著汗全走了。等六彩七彩吧，头五奖没有，难道还不中个小六彩？又算了一卦，上吉；六彩是五百，弄几块作件夏布大衫也不坏。于是一边等著六彩七彩的揭露，一边重读前五彩的号

数，替得奖的人们想著怎么花用的方法，未免有些嫉妒，所以想著想著便想到得奖人的乐极生悲，也许被钱烧死；自己没得也好；自然自己得奖也不见得就烧死。无论怎说，心中有点发堵。

六彩七彩也登出来了，还是没咱们的事，这才想起对尾子，连尾子都和我们开玩笑，我们的是个“三”，大奖的偏偏是个“二”。没办法。

二姐和我是发起人呀！三姥姥向我们俩要索她的五分。没法不赔她。赔了她，别人的二角也无意虚掷。二姐这两天生病，她就是有这个本事，心里一想就会生病。剩下我自己打发大家的二角。打发完了，二姐的病也好了，我呢，昨天夜里睡得很清甜。

载一九三三年九月一日《论语》第二十四期

## 11. <유성영화(有聲電影)>

둘째누나는 아직 유성영화(有聲電影)<sup>112)</sup>를 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유성영화를 보기도 전에 그 논리를 펼쳤는데 이는 둘째누나 뿐만 아니라 많은 위인들도 이와 같았다. 소위 “아는 것은 아는 것이라 하고 모르는 것도 아는 것이라고 하여라(知之為知之, 不知為知之)<sup>113)</sup>”라고 하는 것이다. 그녀는 유성영화는 전기가 만들어 내는 소리이며, 그냥 특별히 크게 울려 퍼질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기사람(電人)이거나 말이다.

둘째누나는 무대 위의 영웅미인들을 모두 전기인(電人)이라고 부른다. 전기인들이 서로 키스를 할 때 무대 아래 사람들의 박수소리는 특히 정신 나간 듯 하고, 그 박수소리가 바로 “유성(有聲)”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전혀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본래 그녀는 그냥 영화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고, 매번 전기인들이 키스를 할 때 그녀는 항상 손으로 눈을 가린다.

하지만 설에 의하면 유성영화는 말과 웃음 그리고 노래가 있다. 그녀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각 방면의 소식은 모두 그렇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제야 마음을 열고 안목을 높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둘째 외할머니 등도 아직 유성영화에 대한 견문을 넓히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누나는 때마침 마작으로 돈을 따 사람들을 청했다. 둘째 외할머니, 셋째 외숙모, 넷째 이모, 소독, 소순, 사구자도 모두 청했다.

둘째 외할머니는 날이 어두워지면 바로 자기 때문에 저녁 영화는 절대 보러 갈 수 없었다. 사람들은 정오에 가기로 결정했고 오후 2시 30분의 영화를 보기로 했다. 영화를 보는 것은 본래 무료함을 달래고 즐겁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12시에 움직이면 괜찮았다. 역에 가서 사람을 마중해야 할 때면 둘째누나는 항상 7, 8시간 일찍 나간다. 그 해 둘째누나의 남편이 천진(天津)에 가는데 3일 이전부터 재촉하면서 역에 일찍 가지 않으면 좌석을 확보할 수 없다고 재촉했다.

일찍 출발한다고 해서 반드시 빨리 도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말하기로는 12시에 가자고 했는데 12시 45분이 되어도 아무도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둘째 외할머니는 15분 정도 안경을 찾았지만 확실히 찾기가 쉽지 않았다. 안경은 그녀의 허리춤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 뒤를 이어 셋째 외숙모는 단추를 찾아다녔고 4개의 상자를 뒤졌지만 찾지 못하자 결국 옷을 바꿔 입었다. 사구자는 15분이 넘게 얼굴을 씻고 또 씻었는데 그런데로 뭐 순조롭다고 볼 수 있다. 평소 얼굴 한번을 씻는데 최소 40분이 넘게 걸릴 뿐 아니라 문 밖의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출발했다. 골목 어귀에 도달해서 출석을 부르니 소독이가 없었다. 사람들은 중도에 되돌아 가서 30분이 넘게 찾아 다녔지만 찾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냥 영화를 보

112) 유성영화는 사운드가 도입된 영화

113) 본래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공자의 가르침으로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知之為知之, 不知為不知)라는 의미인데 노사는 유머를 섞어 다르게 변형하였다.

지 않기로 했다. 소독이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 새 옷을 모두 벗고 훌어져 소독이를 찾아다녔다. 그리고 있는데 소독이 돌아왔다. 원래 그는 앞으로 먼저 달려 나갔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찾으러 돌아온 것이다. 좋다. 다시 옷을 바꿔 입고 가자. 골목 바깥에 인력거가 있으니 어쨌든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다.

둘째 외할머니가 인력거 값을 치루는 방식은 여전히 은화 1개를 동자(銅子)<sup>114)</sup> 120개로 바꾸던 시절의 규칙에 따랐다. 한푼이라도 더 많게 주지 않았다. 요 몇 년간 그녀는 문 밖으로 좀처럼 나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항상 3개의 큰 솔에 소병(燒餅)을 파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그녀를 속인다고 생각했다. 최근 인력거 인부는 3마오(三毛), 2마오(兩毛)씩을 그녀에게 요구했는데 이것은 인력거 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녀가 늙어 잘 걷지 못하는 것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더욱 걷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동경(憧憬)”일 뿐이다. 그녀는 확실히 앞으로 가려는 의지가 있지만 발만 앞뒤로만 왔다 갔다 한다. 그녀 자신도 앞으로 가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한다. 넷째 이모(四姨)는 오히려 오래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영화를 보기 위해 높은 힐을 신었고 뭔가를 지탱하지 않고는 다리를 들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일부러 둘째 외할머니(二姥姥)를 부축하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 그녀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만약 한 사람이 넘어질 경우 이 두 사람은 분명히 함께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사구자와 소독은 급하게 계속 뛰었다.

마침내 3시 15분에 극장에 도착했다. 영화는 이미 시작했다. 이것은 당연히 극장의 잘못이지 않겠는가. 설마 넷째이모(四姨)는 둘째 외할머니(二姥姥)가 오늘 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겠지? 둘째 누나는 실제로 한바탕 욕을 해야 할 필요를 느꼈지만 욕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가끔씩 잠깐 동안은 매우 교양 있게 행동한다.

기왕 왔으니 잘 적응할 것이다. 표를 샀다. 문에 들어가니 소순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두운 것을 무서워하고 어두운 지역은 도깨비(紅眼鬼)가 있다고 한다. 어떻게 해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둘째 외할머니는 안쪽이 너무 어두워서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고 생각했고 잠잘 때의 편안함이 생각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순을 데리고 집에 가려고 했다.

만약 둘째 외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면 둘째누나는 자신이 돈을 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중 누구도 둘째 외할머니가 이미 죽을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유성영화를 보지 않고 돌아간다면 이후에 염라대왕을 만날 때 이 유성영화에 대해 물어보면 어떻게 할텐가? 사람들은 회의를 열었다. 안 된다. 외할머니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소순은 다루기가 쉽다. 사탕을 몇 개 사주면 되었다. 사탕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도깨비(紅眼鬼)가 보이지 않을 터였다. 일은 이렇게 해결이 되었다.

넷째 이모는 둘째 외할머니를 부축하고 있고 셋째 외숙모는 소순을 잡고 있으며

114) 청말(淸末)부터 항일 전쟁 이전까지 통용되던 동으로 만든 보조 화폐

둘째누나는 소독과 사구자를 부르고 있다. 앞에서 부르면 뒤에서 응답했고 어두움 속에서 손을 더듬었다. 극장 직원들이 와서 안내를 했으나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좌석을 찾아다녔고 앞뒤로 왔다갔다 좌우로 왔다갔다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분산되었다가 다시 만나는 등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게다가 모두 함께 앉으려고 했다. 둘째누나의 입이 마르고 열이 올랐다. 둘째 외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기침을 했고 사구자는 천둥처럼 소리를 쳐댔고 극장 직원들의 얼굴이 땀에 흠뻑 젖었다. 관중들은 모두 영화를 보는 것을 잊고 일제히 욕을 해댔다. 하지만 둘째누나의 지휘구령의 열정을 막지는 못했다. 둘째누나는 공공장소에서 말하는 목소리가 특히 컸다.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외장인(外場人)<sup>115)</sup>이 되었겠는가?

안내하는 사람의 손전등 전기가 다 되자 사람들은 그제서야 양심적으로 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역시 이렇게 대충 앉을 수는 없었다. 사람들은 항상 공손함을 잊을 수 없었고 게다가 그곳은 공공장소였다. 둘째 외할머니는 나이가 있고 덕이 있었는데 당연히 안쪽에 앉아야 했다. 하지만 둘째 외할머니와 넷째 이모는 나이가 많은 것 때문에 대우받고 싶어하지 않았다. 넷째 이모는 고모 할머니였지만 둘째 누나는 확실히 누나였고 또 사람들을 청한 주인이었다. 셋째 외숙모는 역시 며느리였고 소순자 등은 애였다. 이러한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사람들은 마치 싸우는 것처럼 양보했고 앞뒤좌우의 관중들은 감화하여 “오! 하느님”이라고 외쳤다. 다들 서로 양보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할 때 겨우 같이 앉았다. 하지만 소순의 사탕은 아직 사지 못했다! 둘째누나는 사탕 파는 사람에게 소리쳤는데 매우 힘이 있었다. 매표소 직원마저 사탕 파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서 공연장 안으로 들어왔다.

사탕을 사왔고 둘째 외할머니는 큰 일 하나가 생각났다. 아직 기침을 못한 것이다. 둘째 외할머니는 한바탕 기침을 했고 이는 둘째 누나의 효심을 자극했다. 둘째 누나는 넷째 이모 그리고 셋째 외숙모와 함께 외할머니의 후사<sup>116)</sup>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외할머니와 같은 어르신은 자녀들이 자신의 후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게다가 기쁘게 의견을 낸다. 예를 들어 “다른 것들은 모두 작은 일이고 나는 꼭 금구련환(金九连环)<sup>117)</sup>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쌍의 인형도 관에 붙이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면 끝이 날수가 있겠는가? 얘기는 또 다른 얘기를 묻고 물었다! 말하기 시작하니 끝이 나지 않았다. 이야기 한 건은 계속해서 다음 건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건으로 연결되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참 이상했다. 극장 안에서 집안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복잡해 보였다. 사람들이 한창 즐겁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켜졌다. 사람들은 모두 밖을 향해 나갔다. 둘째누나는 해바라기씨를 파는 사람을 불렀다. 집안일을 말하기 시작할 때 해바라기씨를 먹지 않으면 섭섭한 일 아닌

115) 바깥에서 일을 하고 세상물정을 잘 아는 사람

116) 죽은 뒤의 일

117) 구련환(九连环)은 중국전통민간놀이기구 중의 하나이다. 9개의 둥근 고리를 하나의 틀에 끼워 넣은 후 아홉 개의 고리를 푸는 놀이이다.



가. 안내인이 와서는 말했다. “이번 극은 끝이 났습니다. 저녁에 있는 영화는 8시에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둘째 외할머니는 잠이 들었고 둘째 누나는 그제야 생각이나 셋째 외숙모에게 물었다. “유성영화는 도대체 어떻게 말하는 것이야?” 셋째 외숙모가 잠깐 생각해보고 말했다. “나도 몰라. 그걸 알아서 뭐하겠어? 난 어쨌든 듣지 못했어” 역시 넷째 이모가 세심했다. 그녀는 양놈이 담배를 피는 것을 봤는데 코에서도 담배 연기가 나왔다고 했다. “영화를 어떻게 이렇게 만든거야? 이렇게 기교가 있다니, 코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이 정말 사실 같았어 그치?” 사람들은 모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1933년 11월 16일 《论语》 제29기에 실음

### <有聲電影>

二姐还没有看过有声电影。可是她已经有了一种理论。在没看见以前，先来一套说法，不独二姐如此，有许多伟人也是这样；此之谓“知之为知之，不知为知之”也。她以为有声电影便是电机答答之声特别响亮而已。要不然便是当电人——二姐管银幕上的英雄美人叫电人——互相巨吻的时候，台下鼓掌特别发狂，以成其“有声”。她确信这个，所以根本不想去看。本来她对电影就不大热心，每当电人巨吻，她总是用手遮上眼的。

但据说有声电影是有说有笑而且有歌。她起初还不相信，可是各方面的报告都是这样，她才想开开眼。

二姥姥等也没开过此眼，而二姐又恰巧打牌赢了钱，于是大请客。二姥姥三舅妈，四姨，小秃，小顺，四狗子，都在被请之列。

二姥姥是天一黑就睡，所以决不能去看夜场；大家决定午时出发，看午后两点半那一场。看电影本是为开心解闷，所以十二点动身也就行了。要是上车站接个人什么的，二姐总是早去七八小时的。那年二姐夫上天津，二姐在三天前就催他到车站去，恐怕临时找不到座位。

早动身可不见得必定早到；要不怎么越早越好呢。说是十二点走哇，到了十二点三刻谁也没动身。二姥姥找眼镜找了一刻来钟；确是不容易找，因为眼镜在她自己腰里带着呢。跟着就是三舅妈找钮子，翻了四只箱子也没找到，结果是换了件衣裳。四狗子洗脸又洗了一刻多钟，这还总算顺当；往常一个脸得至少洗四十多分钟，还得有门外的巡警给帮忙。

出发了。走到巷口，一点名，小秃没影了。大家折回家里，找了半点多钟，没找着。大家决定不看电影了，找小秃是更重要的。把新衣裳全脱了，分头去找小秃。正在这个当儿，小秃回来了；原来他是跑在前面，而折回来找她们。好吧，再穿好衣裳走吧，巷外有的是洋车，反正耽误不了。

二姥姥给车价还按着现洋换一百二十个铜子时的规矩，多一个不要。这几年了，她不大出门，所以老觉得烧饼卖三个大锅子一个不是件事实，而是大家欺骗她。现在拉车的三毛两毛向她要，也不是车价高了，是欺侮她年老走不动。她偏要走一个给他们瞧瞧。这一挂劲可有些“懂憬”：她确是有志向前迈步，不过脚是向前向后，连她自己也不准知道。四姨倒是能走，可惜为看电影特意换上高底鞋，似乎非扶着点什么不敢抬脚。她假装过去搀着二姥姥，其实是为自己找个靠头。不过大家看得很清楚，要是跌倒的话，这二位一定是一齐倒下。四狗子和小秃们急得直打蹦。

总算不离，三点一刻到了电影院。电影已经开映。这当然是电影院不对；难道不晓得二姥姥今天来么？二姐实在觉得有骂一顿街的必要，可是没骂出来，她有时候也很能“文明”一气。

既来之则安之，打了票。一进门，小顺便不干了，怕黑，黑的地方有红眼鬼，无论如何也不能进去。二姥姥一看里面黑洞洞，以为天已经黑了，想起来睡觉的舒服；她主张带小顺回家。要是不为二姥姥，二姐还想起不起请客呢。谁不知道二姥姥已经是土埋了半截的人，不看回有声电影，将来见阎王的时候要是盘问这一层呢？大家开了家庭会议。不行，二姥姥是不能走的。至于小顺，好办，买几块糖好了。吃糖自然便看不见红眼鬼了。事情便这样解决了。四姨搀着二姥姥，三舅妈拉着小顺，二姐招呼着小秃和四狗子。前呼后应，在暗中摸索，虽然有看座的过来招待，可是大家各自为政的找座儿，忽前忽后，忽左忽右，离而复散，分而复合，主张不一，而又愿坐在一块儿。直落得二姐口干舌燥，二姥姥连喘带嗽，四狗子咆哮如雷，看座的满头是汗。观众们全忘了看电影，一齐恶声的“吃——”，但是压不下去二姐的指挥口令。二姐在公共场所说话特别响亮，要不怎样是“外场”人呢。

直到看座的电棒中的电已使净，大家才一狠心找到了座。不过，还不能这么马马虎虎的坐下。大家总不能忘了谦恭呀，况且是在公共场所。二姥姥年高有德，当然往里坐。可是二姥姥当着四姨怎肯以老卖老，四姨是姑奶奶呀；而二姐又是姐姐兼主人；而三舅妈到底是媳妇，而小顺子等是孩子；一部伦理从何处说起？大家打架似的推让，甚至把前后左右的观众都感化得直喊叫老天爷。好容易大家觉得让的已够上相当的程度，一齐坐下。可是小顺的糖还没有买呢！二姐喊卖糖的，真喊得有劲，连卖票的都进来了，以为是卖糖的杀了人。

糖买过了，二姥姥想起一桩大事——还没咳嗽呢。二姥姥一阵咳嗽，惹起二姐的孝心，与四姨三舅妈说起二姥姥的后事来。老人家象二姥姥这样的，是不怕儿女当面讲论自己的后事，而且乐意参加些意见，如“别的都是小事，我就是个金九连环。也别忘了糊一对童儿！”这一说起来，还有完吗？一桩套着一桩，一件联着一件，说也奇怪，越是在戏馆电影场里，家事越显着复杂。大家刚说到热闹的地方，忽，电灯亮了，人们全往外走。二姐喊卖瓜子的；说起家务要不吃瓜子便不够派儿。看座的过来了，“这场完了，晚场八点才开呢。”

大家只好走吧。一直到二姥姥睡了觉，二姐才想起问三舅妈：“有声电影到底怎么说来着？”三舅妈想了想：“管它呢，反正我没听见。”还是四姨细心，她说她看见一个洋鬼

子吸烟，还从鼻子里冒烟呢，“电影是怎样作的，多么巧妙哇，鼻子冒烟，和真的一样，你就说。”大家都赞叹不已。

载一九三三年十一月十六日《论语》第二十九期

## 12. <과학이 사람을 살린다(科學救命)>

요 며칠 정말로 과학을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기계를 하나 발명하고 싶다. 이 기계는 작고 정교해야 하고, 아무리 커도 담배 10개비가 들어가는 만리장성 담배갑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몸에 지닐 수 있지만 개인권총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사용을 할 때는 한손으로 터치만 하면 되고 나사못을 돌리거나 전기가 필요하지 않고 안테나나 접지선 등도 필요 없다. 안테나, 접지선, 사람 중 사람만 있으면 된다. 한손으로 터치하고 사람에게 닿으면 손가락부터 시작해 머리까지 달궈진다. 그리고는 즉시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이것이 이 기계의 용도이다.

근래에 들어 실제로 이러한 기계가 필요해졌다. 생각해 보라! 어떤 사람이 식사를 청하면 가지 않을 수 있는가? 술을 3잔 이상 마시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익은 복숭아처럼 미소를 머금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라고 한다! 사면을 흠어 보니 앉아 있는 사람들 중 최소 두 명은 이미 “어리석은 사위 이야기(傻姑爺)”와 십칠자시(十七字詩)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다. 방법이 없다! 천재들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이야기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보다 더 좋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이야기는 몇 가지가 되지 않고, 게다가 듣는 사람도 늘다 가까운 지인이다. 말을 하려고 막 입을 벌리면 지인들이 그 이야기를 이어간다. “또 그 어리석은 사위 이야기야?” 그러면 어떻게 계속해서 말을 이어 가겠는가! 다행히도 참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몇 명은 생기 없는 눈으로 나를 주시할 것이다. 그 이야기는 이미 다 들어 보았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내가 입을 어떻게 벌리고 어떻게 눈을 어떻게 깜박이든지 바라본다. 그러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 있어야 할 의욕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의욕이 없어지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어떤 때 내가 앞 두, 세 마디 정도를 해서 시작을 하면 친분이 있는 사람이 그저 선의로 웃어 준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한다.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야! 장인이 그 어리석은 사위를 때리다니 말이야 하하하!” 그러면 계속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 김이 이미 빠졌는데 어떻게 계속 말을 한단 말인가! 밥이 배에 들어가긴 했으나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다.<sup>118)</sup>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은 모두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잠은 자지 않고 있다. 내가 땅콩과 곶감을 가지고 올 것만 기다리면서 말이다. 10번 중에 9번은 이렇게 자잘한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을 까먹는다. 좋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겠다. 내가 막 입을 열자 꼬마 장군들이 일제히 명령을 하달했다. “그 고리타분한 이야기는 안들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 어떤 걸 말해야지? 어떤 것이 고리타분한 것이지? 대중 넘어갈 수 없다.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어른과 아이들 모두 인생이 재미가 없다고 느낀다. 게다가 아이들은 분명히 화를 낸다. 1시간이

118) 역자 주: 필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말재주가 없어서 한, 두마디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 알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하니 본인이 밥을 먹다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미

넘게 울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울고 한편으로는 고함을 친다. “그 지겨운 이야기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학교에 도착했더니 학생대표가 왔다. 선생님 저희가 오늘 간담회를 열려고 합니다. 오셔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주시죠? 이것은 꼭 서둘러 거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어쨌든 발표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좋다. 머리 속 가장 아래에 있는 것, 머리카락부터 대략 삼사리(三四里)<sup>119)</sup> 정도에 떨어져 있는 나의 깊은 곳에서부터 녹슬어 있는 이야기를 하나 찾자. 정리를 잘 하고 잘 갈고 닦아서 가서 말해보자.

식순 상에는 내 앞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다른 사람의 순서도 있었다. 그가 앞 순서이니 당연히 그가 먼저 말할 것이다. 그가 입을 열자 나의 급성맹장염이 사라져 버리고 모든 몸이 차가워진다. 막 연마해서 온 이야기를 그가 먼저 발설해 버린다. 게다가 매우 주도면밀하게 이야기를 잘했다. 나와 비교해서 대단히 다양한 모습을 연출했다. 나는 매우 당황하였고 매우 창피했다! 내 순서가 되었다. 입을 벌린 채 “차렷” 연습이나 하자.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머리 속 가장 아래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으니 척추에서 이야기 하나를 찾는 수밖에 없다.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고 매우 불편했다. 어쨌든 되는데로 몇 문장을 서술했는데 재밌는 이야기 같지 않았고 스토리가 있지도 않았으며 연극 같지도 않았다. 그 어떤 것 같지도 않았다. 원래 척추의 놀이문예는 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은가? 내 얼굴은 미소를 머금었지만 사람들의 얼굴표정은 매우 어두웠다. 한 종일 말을 했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으나 박수소리는 호흡소리보다 아주 약간 더 컸다.

반드시 기계를 발명해야 한다! 주머니에 넣고 손으로 터치만 하면 머리가 즉시 예열되어 밝아지고 곧 기묘한 이야기가 떠오른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 유머스러울 수 없고 게다가 십년의 수명이 줄 수도 있다.

이 기계를 발명하기 위해 먼저 중학물리교과서를 좀 읽어야겠다.

1933년 12월 1일 《论语》 제30기에 실음

### <科學救命>

很想研究科学，这几天。要发明个机器。这个机器得小巧玲珑，至大也不过象个十支长城烟包，可以随身带着，而没有私携手枪的嫌疑。到应用的时候，只须用手一摸就得，不用转螺丝，通电流，或接天线地线等等。只要一根天地人三才中的“人线”就够了。用手一摸，碰上人线，手指一热，热到脑部，于是立刻就能有个好笑话——机器的用处。

119) 일리(一里)는 약 0.39km. 삼리(一里): 약 1.17km / 사리(四里): 약 1.57km

近来实在需要这么个机器。你看，有人请吃饭，能不去吗？去了，酒过三杯，临座笑得象个蜜桃似的——请来个笑话！往四下一观，座中至少有两位已经听过咱的那些傻姑爷与十七字诗。没办法！即使天才真有那么大，现成的笑话总比自造的好。可是现在的笑话似乎老是那几个，而且听笑话的老有熟人。刚一张嘴就被熟人接过去了——又是那个傻姑爷呀？这还怎往下说！幸而没人插嘴，而有这么一两两位两眼死盯着咱，因为笑话听过的，所以专看咱怎么张嘴与眨巴眼，于是把那点说笑话应有的得意劲儿完全给赶走了；没这股得意劲儿乘早不用说笑话！有的时候，咱刚说了头两句。一位熟人善意的笑了——那是个好笑话，老丈人揍傻姑爷，哈哈！不用再往下说了。气先泄了，还怎么说！这顿饭吃到肚中，至少得到医院去一趟。

回到家，孩子们都钻了被窝，可是没睡，专等咱带来落花生与柿饼儿。十回有九回，忘了带这些零碎；好吧，说个笑话。刚一张嘴，小将军们一齐下令——“不听那个臭的！”香的打哪儿来呢？说哪个，哪个是臭的，一点不将就，为说笑话，大人小孩都觉得人生没有多少意义；而且小孩一定发脾气，能哭上一个多钟头，一边哭一边嚷——不听那个臭笑话，不听！

到了学校，学生代表来了——先生，我们今天开联欢会，您说个笑话？趁早不用驳回，反正秩序单早已定好了。好吧，由脑子里的最下层，大概离头发还有三四里地，找出个带锈的笑话来。收拾了收拾，打磨了打磨，预备去说。秩序单上的笑林项下还有别人呢。他在前面，当然他先说。他一张嘴，咱的慢性盲肠炎全不发炎了，浑身冰凉。刚打磨好的笑话被他给说了。而且他说得非常的圆到，比咱想起来的多着好多花样；这不仅使咱发慌，而且觉得惭愧！轮到咱了，张着嘴练习“立正”吧。有什么办法呢？脑子最下层的的东西被人抢去，只好由脊椎骨上找点话吧；这自然不是容易的事，也不十分舒服。好歹的敷衍了几句，不象笑话，不象故事，不象演说，什么也不象；本来吗，脊椎骨上的玩艺还能高明的了？咱的脸上笑着，别人的都哭丧着。说完了好大半天，大家想起鼓掌来，鼓得比呼吸的声音稍微大一些。

非发明个机器不可了！放在口袋里，用手一摸，脑中立刻一热，一亮，马上来个奇妙的笑话。不然，人生绝对幽默不了，而且要减寿十年。

打算先念中学物理教科书。

载一九三三年十二月一日《论语》第三十期

### 13. <진일비 선생에게 보내는 편지(致陳逸飛先生信)>

(주: 진일비 선생은 삼 십년대초 북경 학생화보(學生畫報)의 기자였다. 노사는 영국에서 북경으로 돌아온 후 언어학자(語言學家) 백조주(白澆洲)의 집에서 지냈다. 진 선생은 1930년 5월 25일 노사를 내방하였으나 만나지는 못했다. 진일비 선생이 남긴 편지에 노사를 “웃음 왕(笑王)”이라고 칭했다.)

일비 선생에게

선생님이 오셨을 때 나는 마침 천진에서부터 돌아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빌어먹을! 사실 백노(白老)선생(주: 백노선생은 백조주선생의 부친이다.) 역시 나를 매우 사랑했는데 만일 그가 와서 나를 불렀더라면 내가 “불성주의(不醒主義)<sup>120)</sup>”를 견지하고 있었을까요?

당신의 편지에 나를 “웃음 왕(笑王)”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중국논리에 의하면 왕은 필히 왕비가 있으며 또한 관청이 있고 팔인대교(八人大轎)<sup>121)</sup>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왕비도 관청도 대교도 없습니다. 이것은 “왕이 아님”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28일 화요일 오전에 제가 집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길 원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힘드시면 일자를 바꿔서 제가 선생님이 계신 곳에 가서 문안드리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웃으며 문안인사 드립니다.

동생 노사 인사 올립니다.

1930년 5월 26일

1981년 9월 《망종(芒種)》 진일비

《老舍早年在文坛上的活动》에 실림

120) 불성주의(不醒主義): 직역하면 “깨지않는 주의”라는 의미인데, 문맥상 진일비 선생이 자신을 내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깨어나지 않았던 태도를 일컬어 불성주의(不醒主義)라고 말하였다.

121) 옛날, 고관대작들이 타던 여덟 사람이 메는 가마

<致陳逸飛先生信>

(注：陈逸飞在三十年代初任北京《学生画报》的记者。老舍从英国回到北京后住在语言学家白涤洲家，陈于1930年5月25日来访未见，在留下的信中称老舍为“笑王”。)

逸飞先生：

您来，正赶上我由津回来大睡其午觉，该死！其实，白老先生（注：白老先生，指白涤洲先生的父亲。）也太爱我了，假如他进来叫我一声，我还能一定抱着“不醒主义”吗？

您封我为“笑王”，真是不敢当！依中国逻辑：王必有妃，王必有府，王必有八人大轿，而我无妃无府无大轿，其“不王”也明矣。

我星期二（二十八）上午在家，您如愿来，请来；如不方便，改日我到您那儿去请安，嘘！

敬祝

笑安

弟舒舍予鞠躬1930年5月26日

载一九八一年九月《芒种》陈逸飞  
《老舍早年在文坛上的活动》一文



## V. 結 論

본 논문에서는 老舍文集(第十四卷)에 실린 유머산문 13작품을 선정하여 번역하였다. 한 작가의 작품을 이해하려면 그가 살아온 생애와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4가지 시기(출생이후 북경체류 시기, 영국유학시기에서 전쟁발발이전 시기, 항전기, 해방이후 시기)로 구분하여 주목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개관해 보았다.

老舍의 인생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그의 어릴 적 생활이었다. 그가 태어난 이듬해 노사의 아버지가 죽었고, 그 이후 그는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생활했다. 노사의 선조들은 대대로 문맹이었고 그의 형제들도 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으나 노사만큼은 어머니의 배려로 정규교육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아 소학교 졸업 후 입학하였던 北京市立 第3中學校에서 중도퇴학을 당하기도 하였었다.

老舍는 홀어머니 밑에서 북경 서쪽의 어둡어둡하고 칙칙한 골목의 빈민가에서 가난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다. 노사의 작품 중 많은 수가 그의 유년기 및 청소년기와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그가 어릴 적 생활하였던 북평(北平)<sup>122</sup>과 관련된 작품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북평에서 떠돌아다니는 무직자, 북평의 학생, 인력거꾼, 공무원 등 북평의 어떤 것이든 그에게는 작품의 주제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더욱 주목할 점은 그의 묘사가 매우 사실적이고 생생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탄을 자아내기도 하였으며 훗날 “언어예술가”, “언어대사”라는 호칭을 얻기도 하였다.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영국에서의 생활이다. 그는 교육자로서 일을 하다 알게 된 R. K. Evans 교수의 추천으로 1924년 영국으로 건너가 런던대학의 중국어 교사로 생활하게 되는데 이 때 영어공부를 위해 당대의 유명한 작가들, 예컨대 셰익스피어, 괴테, 단테, 찰스 디킨스와 같은 유럽 작가들의 작품들을 섭렵했다. 특히, 외국작가들 중에서도 찰스 디킨스(1812~1870)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노사와 찰스 디킨스의 작품은 풍자성이 짙고, 하층민들의 생활·정서에 대해 많은 부분을 다루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부분 닮아 있다. 노사와 찰스 디킨스 작품의 공통점은 별도로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주제로 보인다.

老舍는 중국에서 정규교육을 성실하게 받아 문학적 소양을 마련하였고, 영국에서 영어공부를 위해 읽었던 외국 작가들의 여러 작품들이 그의 문학세계를 더욱 더 확장시켜 주었다. 이 소양들을 기반으로 하여 소설, 산문, 시 등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훌륭한 작품을 생산해 내었고, 현재까지 중국 내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대부분의 유머작품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특징을 풍자성과 예술성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하여 보았다.

122) 북평(北平)은 지금의 북경(北京)이다.

첫 번째로 그는 유머와 풍자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였다. 유머와 풍자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며, 유머에는 작가의 사상을 나타내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사상이 없이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는 것은 유머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유머 작품이라면 응당 사상성을 띄어야 한다고 하였다.

사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유명한 외국 작가들의 글을 언급한다. 어떠한 작품이 유머작품이며 그 작품에 담겨져 있는 사상성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려면 “찰스 디킨스, 마크 트웨인, 니콜라이 바실리에비치 고골”과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읽어볼 것을 권유한다. 이처럼 노사는 외국 작가들의 문장을 통해서 유머는 풍자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배우게 되었고,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그의 글에도 분명하게 반영하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영어공부를 위해 읽었던 외국 작품들이 그의 문장 양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은 결국 외국의 문학양식과 중국어 고유의 매력, 그리고 노사 특유의 필치와 風格이 합쳐져 중국문학의 새 지평을 연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老舍의 幽默작품에서 그의 예술성은 감탄을 자아낸다. 그의 작품들은 많은 수 그가 자라온 北平과 어릴 적 체험한 소재들로 창작되었다. 따라서 노사의 작품을 보면 그가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매우 사실적임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노사는 서민생활을 매우 긴밀하게 그려내고 있다. 서민들의 생활상과 그들이 겪는 애환이나 생활상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그들이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순과 우매함 등을 유머의 제재로 사용한다. 그는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매우 가난한 환경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깊이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공감과 웃음을 유발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교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상과 같이 老舍의 생애를 살펴보고, 그의 작품 전반에 나타나는 특징인 풍자성과 예술성을 개관해 보았다. 그의 작품들 곳곳에 비유가 숨어있고, 중국인이 아니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문장들이 있었으며 직역을 하는 경우에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문장들이 많았다. 따라서 원어민의 도움을 받고 자료를 찾으면서 이해한 문장들을 한국어와 최대한 가깝게 번역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예술가였던 노사 특유의 필치를 느끼려면 원문과 반드시 함께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본고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가 많은 영향을 받았던 외국 작가들의 작품과의 비교 연구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찰스 디킨스의 문학작품과 그의 작품들을 비교연구해 본다면 매우 유사한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노사의 작품세계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추후 이와 같은 연구가 진행된다면 노사라는 작가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이를 더할 것으로 판단한다.

【參考文獻】

1. 이영숙, 《老舍 散文 選譯》(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 김영구·김진공, 《중국현대문학론》(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9).
3. 방수경, 《老舍 小說에 나타난 傳統的 思想 觀念의 受用과 批判 研究》(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4. 이수용, 《노사(老舍)》(건국대학교출판부, 1994).
5. 최성일, 《노사의 소설주제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6. 최성임, 《노사의 유머소설 연구》(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7. 강문진, 《채만식과 노사(老舍)의 작품에 대한 비교연구》(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